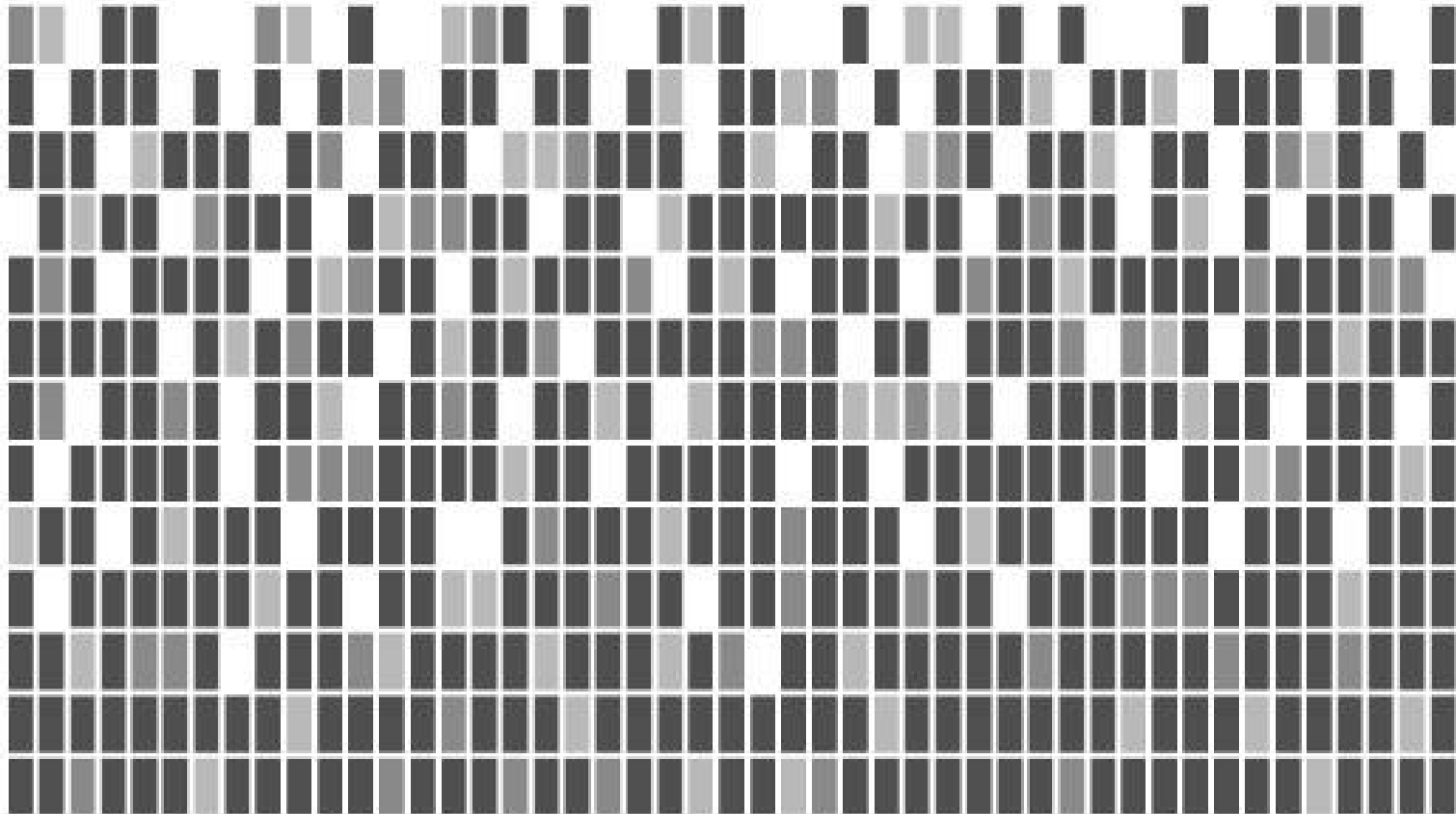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2017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연구진

책임연구원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경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박사)

연구보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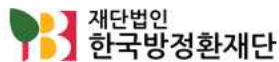
이승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김수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부)

■ 설문조사기관

(주)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이사 이상경)

본 자료집은 한국방정환재단이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에 의뢰하여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모델로 한 국제비교 연구 조사결과 보고서입니다.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발행처 한국방정환재단

발행일 2017년 5월

전화 02-322-5515

팩스 02-322-5452

이메일 happy365@korsofa.org

홈페이지 www.korsofa.org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53길 5 솔밭 3층 (우 04309)

목차

제1장 연구결과 요약	9
I. 2015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11
II. 운동수준과 행복감	15
III. 가출 및 자살충동 위험집단	16
IV. 온·오프라인 친구관계에 따른 삶의 질	17
제2장 연구개요	19
I. 조사설계	21
1. 개요	21
2. 조사설계	21
3. 표본 특성	22
4. OECD 자료	22
II.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28
1.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28
2. 행복지수 산출 방법	28
제3장 OECD 행복지수	31
I. 물질적 행복	33
1. 상대적 빈곤	33
2. 미취업 가정	34
3. 빈곤	35

II. 보건과 안전	37
1. 영아건강	37
2. 예방접종	39
3. 사고사	42
III. 교육	43
1. 학업성취	43
2. 교육참여	46
3. 고용으로의 전환	48
IV. 가족과 친구관계	49
1. 가족구조	49
2. 부모관계	51
3. 친구관계	53
V. 행동과 생활양식	54
1. 건강행동	54
2. 위험행동	58
VI. 주관적 행복	65
1. 건강	65
2. 학교생활	66
3. 개인 행복	67
제4장 운동수준과 행복감	71
I. 정서적 지지망과 행복감	73
1. 교급별 운동수준 분포	73
2. 성별, 계층, 성적에 따른 운동수준 분포	74
II. 운동수준과 학교생활	75
III. 운동수준과 행복감	78
1. 운동수준과 주관적 행복	78
2. 운동수준과 생활 만족도	80
IV. 학교성적 수준에 따른 운동수준과 행복감	83
1. 성적 범주별 운동수준과 주관적 행복	83
2. 성적 범주별 운동수준과 생활만족도	84
제5장 가출·자살충동 위험집단	85
I. 가출·자살충동 위험집단	87

- 1. 가출 및 자살충동 경험 비율 87
- 2. 가출·자살충동 위험집단 구분 89
- II. 가출·자살충동 위험집단과 사회적 관계 92
 - 1. 가출·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사회적 관계 수준 92
 - 2. 가출·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정서적 지지망 유무 95
- III. 가출·자살충동 위험집단과 행복감 96
 - 1. 공부·성적 스트레스 98
 - 2. 외모 스트레스 99
 - 3. 용돈·소비 관련 스트레스 101

제6장 온·오프라인 친구관계와 삶의 질 103

- I.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친구관계 105
 - 1. 오프라인 친구관계와 온라인 친구 관계 105
 - 2. 친구들과의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 106
- II. 온·오프라인 친구관계와 삶의 질 109
 - 1. 친구 유형에 따른 자살충동과의 상관관계 109
 - 2. 친구 유형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110

부록1. 설문지 113

부록2. 1922~1923 어린이날 선언 132

표목차

표1-1. OECD 국가의 영역별 행복지수 비교	11
표1-2.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역대 변화 추이	12
표1-3. 주요 행복영역 세부 항목별 역대 변화 추이(%) - 주관적 행복	14
표1-4. 주요 행복영역 세부 항목별 역대 변화 추이(%) - 부모 및 친구관계	14
표1-5. 주요 행복영역 세부 항목별 역대 변화 추이- 교육	14
표2-1. 설문조사의 개요	21
표2-2. 표본 특성	22
표2-3. 행복지수 영역 구성 및 지표 측정 자료	23
표2-4. 2009-2015년 측정지표	25
표2-5. 2017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연구(KCWI)의 각 지표별 표준점수	29
표6-1. 온라인 상에서의 상호작용에 따른 친구의 유형 분류	105

그림목차

그림1-1.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역대 변화 추이	12
그림1-2. 주관적 행복지수 변화 추이	13
그림1-3. 주관적 행복의 세부 요소	13
그림1-4. 교급별 운동수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15
그림1-5. 중학생 _ 성적 범주별 운동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15
그림1-6. 교급별 가출 및 자살충동 위험집단 비율	16
그림1-7.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정서적 지지망 부재	16
그림1-8. 교급별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주관적 행복감	17
그림1-9.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얼굴 스트레스 경험	17
그림1-10. 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 수에 따른 자살 충동 확률	18
그림1-11. 오프라인 위주형 친구 수에 따른 자살 충동 확률	18
그림1-12. 온라인 위주형 친구 수에 따른 자살 충동 확률	18
그림3-1. 국가별 상대적 빈곤	33
그림3-2. 미취업 가정	34
그림3-3. 교육여건	35
그림3-4. 문화적 결핍	36
그림3-5. 영아사망율	37
그림3-6. 저체중아	38

그림3-7. 홍역 예방접종	39
그림3-8. 소아마비 예방접종	40
그림3-9. DPT 예방접종	41
그림3-10. 아동사고사	42
그림3-11. 읽기시험 점수	43
그림3-12. 수학시험 점수	44
그림3-13. 과학시험 점수	45
그림3-14. 학업유지	46
그림3-15. 실업상태	47
그림3-16. 미숙련 일자리	48
그림3-17. 홀부모가정	49
그림3-18. 의붓가정	50
그림3-19. 함께 식사하기	51
그림3-20. 함께 대화하기	52
그림3-21. 친절한 급우관계	53
그림3-22. 아침식사	54
그림3-23. 과일섭취	55
그림3-24. 과체중	56
그림3-25. 운동	57
그림3-26. 흡연	58
그림3-27. 음주	59
그림3-28. 마약	60
그림3-29. 성관계	61
그림3-30. 콘돔사용	62
그림3-31. 임신과 출산	63
그림3-32. 싸움	64
그림3-33. 주관적 건강	65
그림3-34. 학교생활 만족	66
그림3-35. 삶의 만족	67
그림3-36. 소속감	68
그림3-37. 어울림	69
그림3-38. 외로움	70
그림4-1. 교급별 주 단위 평균 운동일수	73
그림4-2. 교급별 주 단위 운동일수 분포	73
그림4-3. 성별 구분에 따른 주 단위 평균 운동일수	74
그림4-4. 계층인식에 따른 주 단위 평균 운동일수	74
그림4-5. 학교성적 구분에 따른 주 단위 평균 운동일수	74
그림4-6. 초등학교 : 주 단위 운동일수와 학교생활 만족	75
그림4-7. 중학생 : 주 단위 운동일수와 학교생활 만족	75
그림4-8. 고등학교 : 주 단위 운동일수와 학교생활 만족	75

그림4-9. 교급별 운동수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	76
그림4-10. 초등학생 : 성별에 따른 운동수준과 학교생활 만족	76
그림4-11. 중학생 : 성별에 따른 운동수준과 학교생활 만족	77
그림4-12. 고등학생 : 성별에 따른 운동수준과 학교생활 만족	77
그림4-13. 초등학생 : 주 단위 운동일수와 주관적 행복	78
그림4-14. 중학생 : 주 단위 운동일수와 주관적 행복	78
그림4-15. 고등학생 : 주 단위 운동일수와 주관적 행복	78
그림4-16. 교급별 운동수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79
그림4-17. 초등학생 : 성별 운동수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79
그림4-18. 중학생 : 성별 운동수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79
그림4-19. 고등학생 : 성별 운동수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80
그림4-20. 초등학생 : 주 단위 운동일수와 생활만족	80
그림4-21. 중학생 : 주 단위 운동일수와 생활만족	80
그림4-22. 고등학생 : 주 단위 운동일수와 생활만족	81
그림4-23. 교급별 운동수준과 생활만족	81
그림4-24. 초등학생 : 성별 운동수준과 생활만족	81
그림4-25. 중학생 : 성별 운동수준과 생활만족	82
그림4-26. 고등학생 : 성별 운동수준과 생활만족	82
그림4-27. 중학생 : 성적 범주별 운동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83
그림4-28. 고등학생 : 성적 범주별 운동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83
그림4-29. 중학생 : 성적 범주별 운동수준과 생활만족	84
그림4-30. 고등학생 : 성적 범주별 운동수준과 생활만족	84
그림5-1. 교급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87
그림5-2. 초등학생 :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87
그림5-3. 중학생 :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87
그림5-4. 고등학생 :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88
그림5-5. 교급별 자살충동 경험 이유	88
그림5-6. 초등학생 : 자살충동 경험 이유	88
그림5-7. 중학생 : 자살충동 경험 이유	89
그림5-8. 고등학생 : 자살충동 경험 이유	89
그림5-9. 초등학생 : 가출충동 경험 빈도	89
그림5-10. 중학생 : 가출충동 경험 빈도	90
그림5-11. 고등학생 : 가출충동 경험 빈도	90
그림5-12. 교급/성별 가출충동 위험집단 비율	90
그림5-13. 초등학생 : 자살충동 경험 빈도	91
그림5-14. 중학생 : 자살충동 경험 빈도	91
그림5-15. 고등학생 : 자살충동 경험 빈도	91
그림5-16. 교급/성별 자살충동 위험집단 비율	91
그림5-17.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어머니관계 수준	92
그림5-19.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어머니관계 수준	92

그림5-20.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아버지관계 수준	93
그림5-21.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아버지관계 수준	93
그림5-22.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친구관계 수준	93
그림5-23.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친구관계 수준	94
그림5-24.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교사관계 수준	94
그림5-25.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교사관계 수준	94
그림5-26.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정서적 지지망 부재	95
그림5-27.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정서적 지지망 부재	95
그림5-28. 교급별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주관적 행복감	96
그림5-29. 교급별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주관적 행복감	96
그림5-30. 교급별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생활만족도	96
그림5-31. 교급별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생활만족도	97
그림5-32. 교급별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학교생활 만족	97
그림5-33. 교급별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학교생활 만족	97
그림5-34.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공부 스트레스 경험	98
그림5-35.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공부 스트레스 경험	98
그림5-36.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학교성적 스트레스 경험	99
그림5-37.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학교성적 스트레스 경험	99
그림5-38.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얼굴 스트레스 경험	99
그림5-39.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얼굴 스트레스 경험	100
그림5-40.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몸무게 스트레스 경험	100
그림5-41.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몸무게 스트레스 경험	100
그림5-42.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용돈 스트레스 경험	101
그림5-43.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용돈 스트레스 경험	101
그림5-44.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소비 관련 스트레스 경험	102
그림5-45.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소비 관련 스트레스 경험	102
그림6-1. 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의 수 분포	106
그림6-2. 오프라인 위주형 친구의 수 분포	107
그림6-3. 온라인 위주형 친구의 수 분포	107
그림6-4. 아주 친한 친구의 수에 따른 온라인 위주형 친구 수 분포	108
그림6-5. 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 수에 따른 자살 충동 확률	109
그림6-6. 오프라인 위주형 친구 수에 따른 자살 충동 확률	110
그림6-7. 온라인 위주형 친구 수에 따른 자살 충동 확률	110
그림6-8. 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 수에 따른 삶에 만족할 확률	111
그림6-9. 오프라인 위주형 친구 수에 따른 삶에 만족할 확률	111
그림6-10. 온라인 위주형 친구 수에 따른 삶에 만족할 확률	112

제1장 연구결과 요약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I. 2017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여전히 최하위권

- 주관적 행복 수준은 여전히 최하위권이지만 점진적인 증가
- 행복지수 다른 영역은 OECD 상위권 수준
 - 행동과 생활양식(1위), 물질적 행복(2위), 보건과 안전(3위), 교육(2위), 가족과 친구관계(3위)

표1-1. OECD 국가의 영역별 행복지수 비교

순위	주관적 행복		가족과 친구관계		보건과 안전		물질적 행복		교육		행동과 생활양식	
	국가	점수	국가	점수	국가	점수	국가	점수	국가	점수	국가	점수
1위	오스트리아	116	이탈리아	120	스웨덴	116	핀란드	118	네덜란드	116	대한민국	126
2위	스페인	115	네덜란드	116	핀란드	114	대한민국	115	대한민국	112	아이슬랜드	111
3위	노르웨이	112	대한민국	112	대한민국	112	덴마크	112	폴란드	112	네덜란드	111
4위	네덜란드	111	노르웨이	111	아이슬랜드	112	독일	110	포르투갈	110	아일랜드	110
5위	덴마크	109	포르투갈	108	일본	110	스웨덴	109	아일랜드	109	스위스	106
6위	스위스	108	스위스	108	노르웨이	109	오스트리아	108	벨기에	108	포르투갈	105
7위	아일랜드	107	덴마크	106	스위스	104	체코	106	독일	108	스페인	104
8위	스웨덴	105	아일랜드	104	네덜란드	104	네덜란드	103	노르웨이	107	덴마크	103
9위	아이슬랜드	105	스페인	101	아일랜드	104	폴란드	103	체코	106	벨기에	101
10위	독일	103	스웨덴	100	오스트리아	103	헝가리	100	덴마크	106	오스트리아	101
11위	그리스	103	아이슬랜드	100	독일	103	프랑스	96	일본	105	캐나다	100
12위	이탈리아	99	독일	98	프랑스	103	이탈리아	95	스웨덴	101	스웨덴	100
13위	영국	97	벨기에	98	영국	102	호주	93	핀란드	101	핀란드	97
14위	폴란드	95	핀란드	97	체코	102	벨기에	93	호주	101	영국	96
15위	프랑스	94	헝가리	97	스페인	100	아일랜드	93	아이슬랜드	100	독일	96
16위	핀란드	93	오스트리아	93	그리스	99	포르투갈	92	뉴질랜드	98	폴란드	94
17위	포르투갈	91	프랑스	93	덴마크	99	영국	92	미국	97	프랑스	94
18위	헝가리	91	그리스	93	벨기에	98	그리스	91	스위스	97	체코	91
19위	캐나다	90	폴란드	92	호주	96	스페인	90	캐나다	97	이탈리아	88
20위	대한민국	88	영국	86	헝가리	94	미국	80	프랑스	97	그리스	86
21위	벨기에	86	캐나다	84	이탈리아	94			영국	95	헝가리	83
22위	체코	81	체코	82	캐나다	89			스페인	91	-	-
23위	-	-	-	-	포르투갈	89			헝가리	85	-	-
24위	-	-	-	-	폴란드	88			오스트리아	83	-	-
25위	-	-	-	-	뉴질랜드	81			그리스	82	-	-
26위	-	-	-	-	미국	75			이탈리아	78	-	-

* 괄호 안의 숫자는 평균 100점, 표준편차 10을 기준으로 한 표준점수를 뜻함.
* 점수가 없는 국가는 가용한 데이터의 부재로 순위에서 빠짐

그림1-1.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역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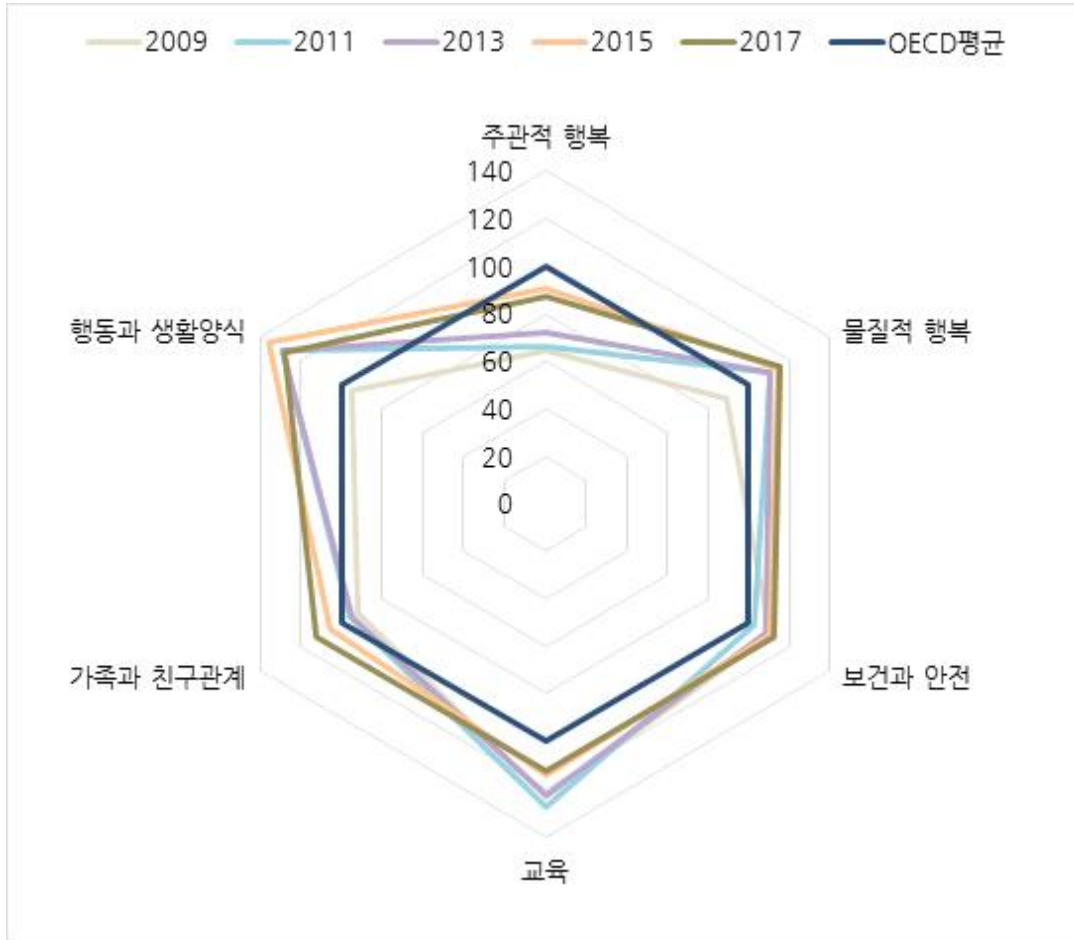


표1-2.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역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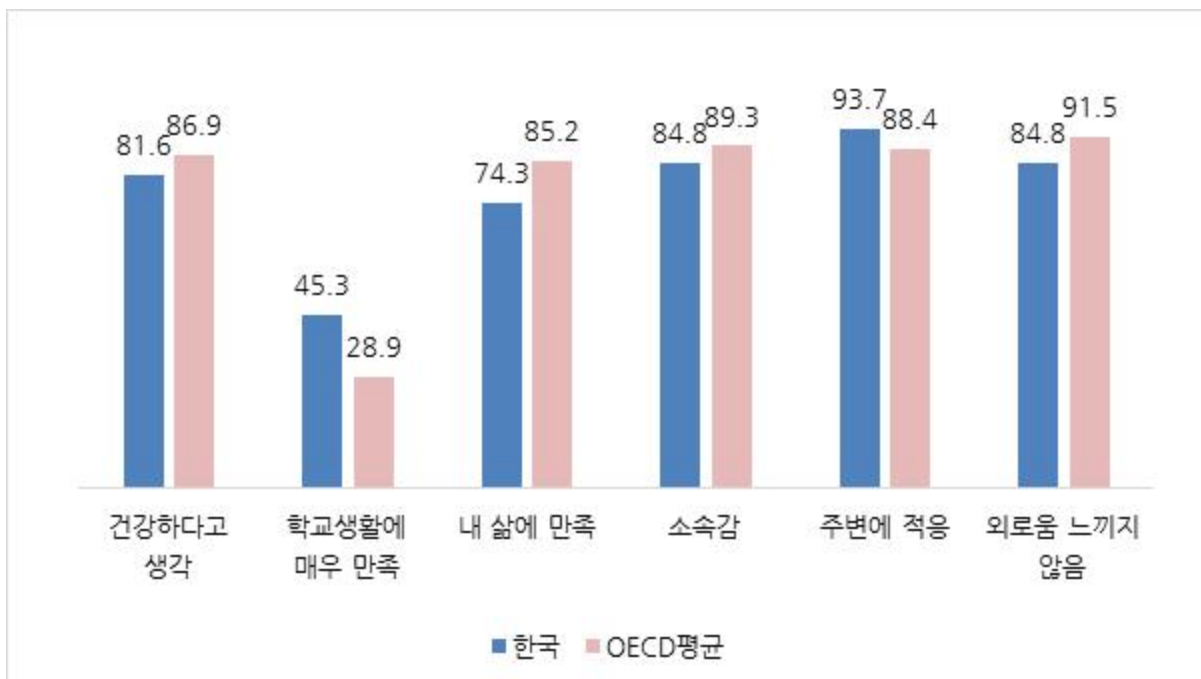
	주관적 행복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2009	64.3	89.1	110.5	123.4	91.6	95.1
2010	65.1	96.9	104.2	109.6	99.4	129.2
2011	66.0	110.7	102.6	127.8	96.1	129.3
2012	71.4	110.1	102.6	133.9	96.7	126.6
2013	72.5	110.8	108.4	123.0	95.1	129.1
2014	74.0	111.9	111.1	122.2	98.9	128.8
2015	90.4	114.4	110.7	114.5	106.1	135.7
2016	82.0	112.4	113.0	114.5	104.8	129.8
2017	87.6	115.3	112.5	112.0	111.9	126.4

그림1-2. 주관적 행복지수 변화 추이



* OECD 평균을 100, 표준편차를 10으로 표준화시킨 점수

그림1-3. 주관적 행복의 세부 요소



- *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 혹은 '다소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 *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 * 내 삶에 '매우 만족한다', 혹은 '다소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 * 소속감을 '매우 느낀다', 혹은 '다소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율
- * 주변사람들과 '매우 잘 어울린다', 혹은 '다소 잘 어울린다'라고 응답한 비율
- * 외로움을 느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혹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표1-3. 주요 행복영역 세부 항목별 역대 변화 추이(%) -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나쁨	학교 생활 만족	삶에 만족	소속감 못 느낌	주변상황 적응 못함	외로움
2009	24.4	29.4	55.4	10.1	8.2	20.1
2010	26.5	27.0	53.9	18.3	7.7	16.7
2011	26.2	30.3	55.4	15.9	7.2	16.2
2012	22.6	34.0	63.6	11.5	6.3	16.1
2013	19.6	35.6	66.6	16.3	6.7	15.3
2014	20.0	37.6	67.6	13.0	5.7	18.0
2015	17.5	45.0	74.3	14.33	4.78	11.62
2016	18.9	43.7	73.2	14.5	6.5	13.9
2017	18.4	45.3	74.3	15.2	6.3	15.2

표1-4. 주요 행복영역 세부 항목별 역대 변화 추이(%) - 부모 및 친구관계

	홀부모 가정	의붓 가정	부모와 식사	부모와 대화	친절한 급우 관계
2009	6.1	1.8	68.4	58.3	59.6
2010	11.5	2.5	58.8	66.4	67.8
2011	9.5	2.2	53.2	41.9	70.9
2012	11.0	2.0	54.7	43.1	69.9
2013	8.9	2.0	50.6	41.2	66.1
2014	7.5	1.9	59.6	44.2	66.0
2015	6.2	0.7	59.7	47.1	77.2
2016	6.8	2.0	57.4	44.7	71.37
2017	8.5	1.6	69.5	53.9	75.0

표1-5. 주요 행복영역 세부 항목별 역대 변화 추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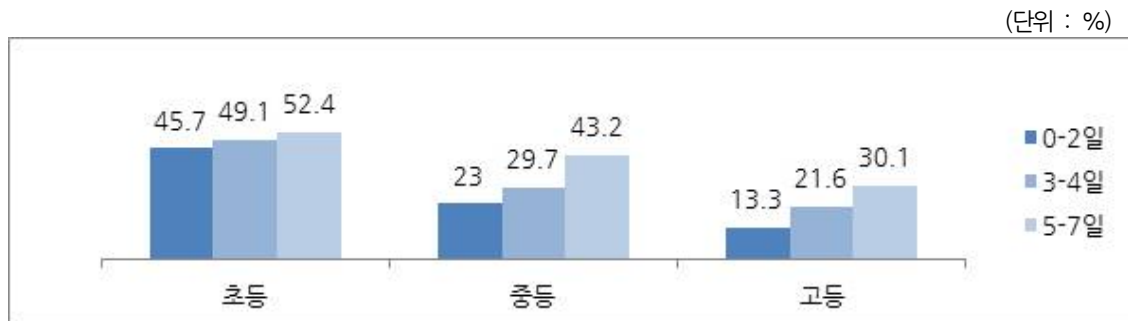
	읽기 (PISA)	수학 (PISA)	과학 (PISA)	교육 참여	청소년 실업	미숙련일자리 기대
2009	539	546	538	87.49	6.95	15.4
2010	539	546	538	85.87	8.46	15.4
2011	539	546	538	86.46	8.72	15.4
2012	536	554	538	86.8	8.54	15.4
2013	536	554	538	86.8	8.5	15.4
2014	536	554	538	86.8	8.5	15.4
2015	536	554	538	86.8	8.5	15.4
2016	536	554	538	86.8	8.5	15.4
2017	517	524	516	87	7.7	15.4

II. 운동수준과 행복감

성적 범주에 관계없이 **운동 수준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행복감 높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큼**

- 운동수준에 따라 행복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운동수준은 “지난 1주일 동안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1시간 이상 운동한 날수는 몇 일인가요” 문항을 사용했으며, 응답 항목은 0일부터 7일까지 구성돼 있다. 운동수준을 0-2일, 3-4일, 5-7일 등 3개 범주로 구분했을 때 운동수준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운동수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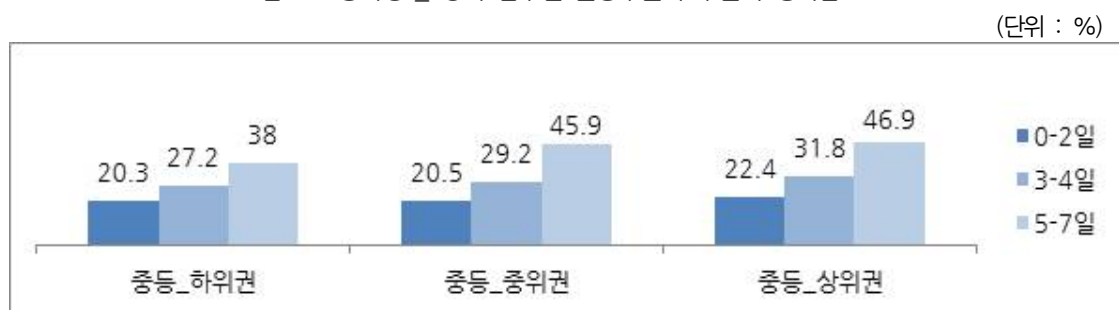
그림1-4. 교급별 운동수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

- 또한, 학교성적을 구분해 운동수준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학교성적을 하위, 중위, 상위 등 3개 범주로 구분했는데 주관적 행복감은 성적 범주에 관계없이 운동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학교성적은 하위권이지만 운동수준이 높을 경우 운동수준이 낮은 중위권 · 상위권 학생과 비교해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5. 중학생 _ 성적 범주별 운동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

Ⅲ. 가출 및 자살충동 위험집단

초등학생 자살충동 위험집단 중 정서적 지지망이 없는 비율이 비위험집단의 4배

- 가출충동 및 자살충동을 지금까지 3회 이상 경험한 학생층을 “위험집단”으로 구분해 사회적 관계 수준과 행복감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위험집단 비율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약 10명 중 1명이 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림1-6. 교급별 가출 및 자살충동 위험집단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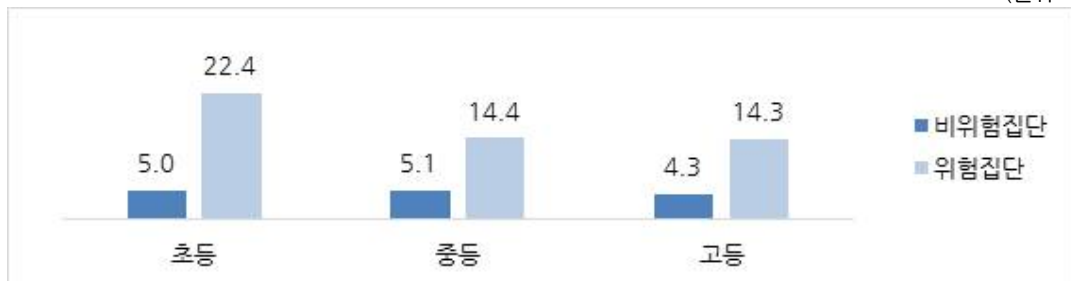


* 가출 및 자살충동을 지금까지 3회 이상 경험한 비율.

- 먼저, 가출 및 자살충동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을 구분해 정서적 지지망 유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서적 지지망의 부재를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했을 때 이 비율이 두 집단간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초등학생 자살충동 위험집단 중 정서적 지지망이 없는 비율은 22.4% 수준으로 비위험집단과 비교해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그림1-7.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정서적 지지망 부재

(단위 : %)



*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질문에 “없다”고 응답

IV. 온·오프라인 친구관계에 따른 삶의 질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행복감**이 비위험집단 대비 **3배 이상 낮고, 외모 스트레스** 높아

- 또한, 가출 및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행복감이 비위험 집단과 비교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주관적 행복감, 삶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비교했다. 예를 들면 주관적 행복감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질문에 대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했을 때 이 비율이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이 주관적 행복감에서 3배 이상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1-8. 교급별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주관적 행복감



*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 외모 스트레스 경험에서도 가출 및 자살충동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이 큰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면 얼굴 스트레스 경험을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했을 때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이 전반적으로 3-6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얼굴 스트레스 경험 비율은 19.4%로, 비위험집단(2.9%)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또한, 몸무게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비율도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이 약 2.5~5배 차이를 보였다.

그림1-9.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얼굴 스트레스 경험



*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IV. 온·오프라인 친구관계에 따른 삶의 질

온라인 위주형 친구수가 많을수록 자살 충동 확률 높게 나타나

- 친구 관계를 세 가지로 유형화 하여 ‘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 ‘오프라인 위주형 친구’, ‘온라인 위주형 친구’로 나누어, 각각의 친구 유형에서 친구 수가 증가할 때 학생들의 삶의 질 변화를 살펴보았다.
- 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의 경우 그 수가 늘어날수록 자살 충동 확률이 감소했던 반면 오프라인 위주형 친구의 수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흥미롭게도 온라인 위주형 친구 수가 늘어날수록 자살 충동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삶에 만족할 확률이 있어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1-10. 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 수에 따른 자살 충동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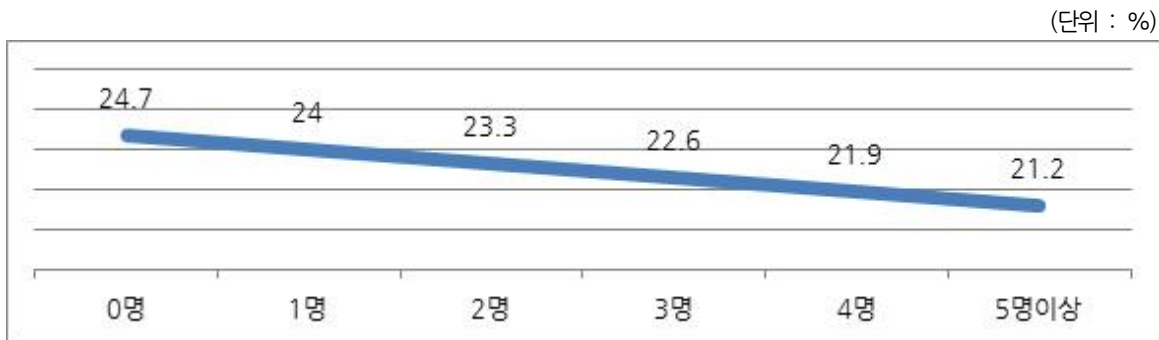


그림1-11. 오프라인 위주형 친구 수에 따른 자살 충동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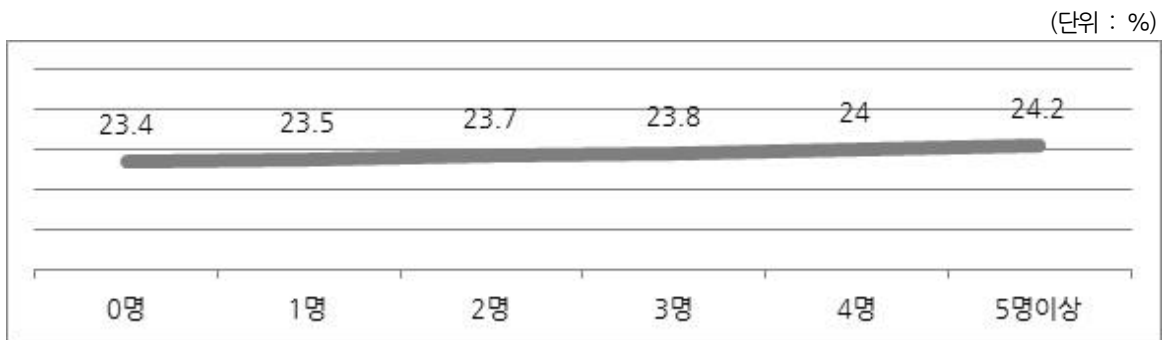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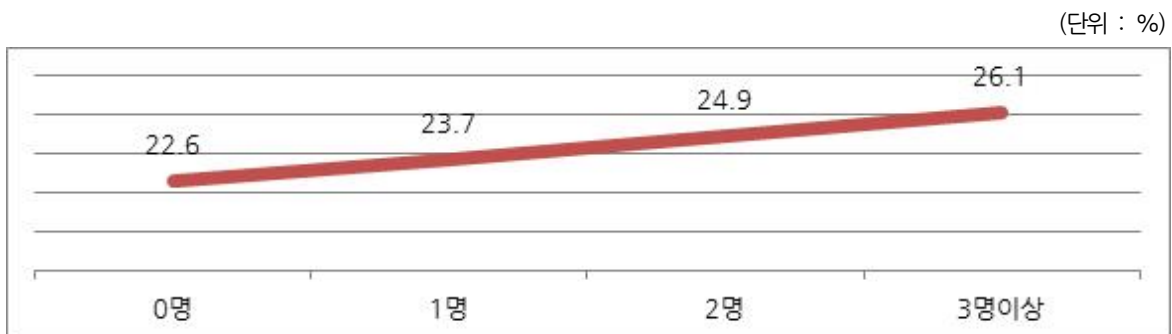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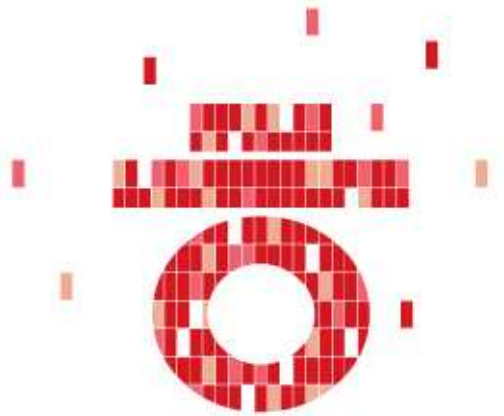


그림1-12. 온라인 위주형 친구 수에 따른 자살 충동 확률



제2장 연구개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놈, 내 딸년 하고 자기의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I. 조사설계

1. 개요

- 이 연구는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하고, 나아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구체적으로,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삼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 관계, 행동과 안전, 주관적 행복 등 6개 영역에 대한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측정한다.
- 행복지수 조사가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됨에 따라 OECD 국가간 횡단 비교에서 나아가, 시간 흐름에 따른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 2012년도부터 학교폭력 연구를 새로이 추가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을 분석했으며, 2014~2017년 스마트폰과 게임이용, 친구관계 등을 새로이 추가해서 연구하고 있다.

2. 조사설계

- 2017년 설문조사는 2016년 3월 ~ 4월에 걸쳐 진행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표본은 시도교육청의 2016년 교육기본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학급을 표집 단위로 하여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을 고려하여 크기 비례 확률추출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 무작위로 추출된 학급의 학교에 교감 선생님께 먼저 연락하여 조사 허락을 받은 후 각 학교에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유효 표본수는 총7,353명으로 초등학생 2,303명, 중학생 2,240명, 그리고 고등학생 2,810명이다.
- 이 설문조사는 학급을 표집단위로 했기 때문에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 비율이 실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표2-1. 설문조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조사지역	전국 (제주도 제외)
표 본 수	총7,353명(초등학생 2,303명, 중학생 2,240명, 고등학생 2,810명)
표본추출방법	크기비례확률추출법(PPS : Probability Propotional to size Sampling)
조사방법	배포-수거방식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7년 3월 14일 ~ 4월 10일
조사기관	(주)현대리서치연구소
조사분석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3. 표본 특성

표2-2. 표본 특성

구분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7,353	100.0	2,303	100.0	2,240	100.0	2,810	100.0		
성별	남	3,647	49.6	1,175	51.0	1,164	52.0	1,308	46.6	
	여	3,706	50.4	1,128	49.0	1,076	48.0	1,502	53.5	
거주지역	수도권	3,436	46.7	1,050	45.6	1,071	47.8	1,315	46.8	
	강원도	236	3.2	76	3.3	80	3.6	80	2.9	
	충청권	813	11.1	300	13.0	258	11.5	255	9.1	
	영남권	1,996	27.2	601	26.1	583	26.0	812	28.9	
	호남권	872	11.9	276	12.0	248	11.1	348	12.4	
지역규모	대도시	3,142	42.7	924	40.1	984	43.9	1,234	43.9	
	중소도시	3,190	43.9	961	41.7	987	44.1	1,242	44.2	
	읍면지역	1,021	13.9	418	18.2	269	12.0	334	11.9	
학교급	초등학교	4학년	2,303	-	745	32.4	-	-	-	-
		5학년			775	33.7	-	-	-	-
		6학년			783	34.0	-	-	-	-
	중학교	1학년	2,240	-	-	-	748	33.4	-	-
		2학년			-	-	706	31.5	-	-
		3학년			-	-	786	35.1	-	-
	고등학교	1학년	2,810	-	-	-	-	-	903	32.1
		2학년			-	-	-	-	980	34.9
		3학년			-	-	-	-	927	33.0

4. OECD 자료

- 행복지수의 영역별 지표 자료는 OECD국가의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수집하였다.
- 대표적으로 OECD 데이터베이스,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자료, HBSC(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서베이, 세계은행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 올해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표2-3. 행복지수 영역 구성 및 지표 측정 자료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사용한 데이터		
					외국자료	한국자료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학생의 비율	0~17세	OECD 2013	통계청 2015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가족의 성인이 직업이 없는 학생 비율	19세 이하	OECD 2014	본 연구 설문지 (2017 KCWI)	
	결핍	교육여건	교육자재를 4개미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 ¹⁾	15세	OECD 2012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 미만 있는 아동의 비율	19세 이하	PISA 2012		
보건과 안전	영아 건강	영아 사망률	사망한 영아의 비율 (출산 1,000명당)	0~12개월	WHO 2015		
		저체중아의 비율	저체중아의 비율	2500g 이하	UNICEF 2014		
	예방 접종	질병 예방접종 여부	홍역 예방접종		12~23개월	WHO 2015	
			소아마비 예방접종		0~11개월	WHO 2015	
			DPT3 예방접종		12~23개월	WHO 2015	
사고사	아동사고사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학생의 비율 (10만명당)	19세 이하	WHO 2008			
교육	학업 성취	학업성취	읽기, 수학, 과학 시험점수	15세	PISA 2015		
	교육 참여	아동의 학업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15~19세	OECD 2014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인 청소년	학교, 다른 훈련기관, 직업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	15~19세	OECD 2014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15세	PISA 2006		

1) 교육자재 : PISA(2009)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곳', '학습을 위한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연결', '자기만의 계산기', '사전', '학교교과서'로 총 8개의 항목이 조사된 결과를 보여준다.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15년	
					외국자료	한국자료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 구조	홀부모 가정	홀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본 연구 설문지 (2017 KCWI)
		의붓 가정	의붓 아버지/어머니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부모 관계	함께 식사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5세	PISA 2000	
		함께 대화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학생의 비율	15세		
친구 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급우가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행동과 생활 양식	건강 행동 (증진 행위)	아침식사	학교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본 연구 설문지 (2017 KCWI)
		과일섭취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과체중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비율	13, 15세		
		운동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한 일 수	11, 13, 15세		
	위험 행위	흡연/음주/마약/섹스	흡연/음주 경험 비율 마약사용 경험 비율		11, 13, 15세	
			섹스 경험 비율		15세	
임신과 출산	10대 출산율	15-19세 (여)	WDI 2015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자신의 건강상태가 ‘전혀 좋지 않다’, ‘별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본 연구 설문지 (2017 KCWI)
	학교 생활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개인 행복	삶의 만족 척도	자신의 삶에 ‘다소’,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PISA 2012	
		부정적 생각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주변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다소’, ‘매우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				

표2-4. 2009-2015년 측정지표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 수입의 50% 이하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학생의 비율	0~17세	OECD 2000 (1999, 2001 부분적 사용)	아동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2008	OECD 2006	아동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8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가족의 성인이 직업이 없는 학생 비율	14세 이하	OECD 2005	본 연구 설문지 (2009 KCWI)	OECD 2005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2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3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4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5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6 KCWI)		
	결핍	교육 여건	교육자재를 4개 미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		15세	PISA 2003	본 연구 설문지 (2009 KCWI)	PISA 2003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 이하로 있는 아동의 비율		19세 이하	PISA 2003	본 연구 설문지 (2009 KCWI)	PISA 2003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PISA 2003		PISA 2003		PISA 2006		PISA 2006		PISA 2012		PISA 2012		
보건과 안전	영아 건강	영아 사망률	사망한 영아의 비율 (출산 1,000명 당)	0~12개월	OECD 2002 2003	사망원인 통계 2007	OECD 2009	교육 개발원	OECD 2010 WHO 2010 WDI 2010	OECD 2010 WHO 2010 WDI 2010	OECD 2010 WHO 2010 WDI 2010	WDI 2011 OECD 2011	WDI 2011 OECD 2011	WDI 2011 OECD 2011		WDI 2011 OECD 2011		WDI 2013		WDI 2013		
		저체중아 비율	저체중아의 비율	2500g 이하	OECD 2002 2003	OECD 2002 2003	OECD 2009	교육 개발원	OECD 2010 WHO 2010 WDI 2010	OECD 2010 WHO 2010 WDI 2010	OECD 2010 WHO 2010 WDI 2010	OECD 2010 WHO 2010 WDI 2010	WDI 2011 OECD 2011	WDI 2011 OECD 2011	OECD 2011		OECD 2011		OECD 2011		OECD 2011	
	예방 접종	질병 예방접종 여부	홍역 예방접종		12~23개월	WDI 2003 HNP 2002		UNICEF 2008 WDI 2008	WDI 2009	WDI 2009	WDI 2009	WDI 2009	WDI 2011 UNICEF 2011	WDI 2011 UNICEF 2011	WDI 2011 UNICEF 2011		WDI 2011 UNICEF 2011		WDI 2013		WDI 2013	
			소아마비 예방접종		0~11개월	WDI 2003 HNP 2002		UNICEF 2008 WDI 2008	WDI 2009	WDI 2009	WDI 2009	WDI 2009	WDI 2011 UNICEF 2011	WDI 2011 UNICEF 2011	UNICEF 2013		UNICEF 2013		UNICEF 2013		UNICEF 2013	
DPT3 예방접종				12~23개월	WDI 2003 HNP 2002		UNICEF 2008 WDI 2008	WDI 2009	WDI 2009	WDI 2009	WDI 2009	WDI 2011 UNICEF 2011	WDI 2011 UNICEF 2011	WDI 2013		WDI 2013		WDI 2013		WDI 2013		
사고사	아동 사고사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학생의 비율 (10만명 당)	19세 이하	WHO 2005	사망원인 통계 2007	WHO 2005	사망원인 통계 2007	WHO 2008		WHO 2008		WHO 2008		WHO 2008		WHO 2008		WHO 2008		WHO 2008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교육	학업 성취	15세 학업성적	읽기, 수학, 과학 시험점수	15세	PISA 2003		PISA 2006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12		PISA 2012			
	교육 참여	아동의 학업 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15-19 세	OECD 2009	국제통계 연감 2007	OECD 2009	교육 개발원 2010	OECD 2010		OECD 2010		OECD 2012		OECD 2012		OECD 2012		OECD 2012			
	청소년 실업	실업 상태인 청소년	학교나 훈련기관에 소속되어있지 않으면서 직업이 없는 청소년 비율	15-19 세	조사하지 않음		OECD 2009	교육 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3		OECD 2013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15세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09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가족과 친구관계	가족 구조	홀부모 가정	홀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13, 15세	HBSC 2001		HBSC 2001		HBS C 2006		HBSC 2012		HBSC 2012		HBS C 2012		HBSC 2012		HBSC 2012			
		이웃 가정	이웃 아버지/어머니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13, 15세																		
	부모 관계	함께 식사 하기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5세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09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2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3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4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5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6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6 KCWI)
		함께 대화 하기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학생의 비율	15세																		
	친구 관계	친절한 급우 관계	‘급우가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11,13, 15세	HBSC 2001		HBSC 2001		HBS C 2001		HBSC 2012		HBSC 2012		HBS C 2012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행동과 생활 양식	건강 행동 (증진 행위)	아침 식사	학교가기전 아침식사 하는 학생의 비율	11,13 15세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09)	본연구 설문지 (KCWI 2010)	HBSC 2006	본연구 설문지 (KCWI 2011)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2)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3)	HBS 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4)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5)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6)	
		과일 섭취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11,13 15세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5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5													
		과체중	체질량지수(BMI) 25이상인 학생의 비율	13, 15세		본연구 설문지 (KCWI 2009)	본연구 설문지 (KCWI 2010)													
		운동	지난 1주일 간 1시간 이상 운동한 일수	11,13 15세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5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5			HBSC 2006										
	위험 행위	흡연 음주 마약 섹스	흡연/음주 경험비율 마약 사용 경험비율	11,13 15세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09)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10)	HBSC 2006	본연구 설문지 (KCWI 2011)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2)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3)	HBS 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4)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5)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6)
			섹스 경험비율	15세																
		임신과 출산	십대출산율	15-19세 (여)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자신의 건강상태가 '전혀', '별로' 좋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	11,13, 15세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09)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10)	본연구 설문지 (KCWI 2011)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2)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3)	HBS 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4)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5)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6)	
	학교 생활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11,13 15세																
	개인 행복	삶의 만족	자신의 삶에 '다소',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11,13, 15세																
		부정적 생각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주변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다소', '매우'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	15세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12	PISA 2012						

Ⅱ.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올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 Programming 과정을 거쳐 전산화했다.
- 올해 설문조사 데이터의 경우 지역별, 지역규모별, 교급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 전산화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TATA MP와 SPSS를 활용해 분석했다.

2. 행복지수 산출 방법

- OECD 자료의 경우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해 사용했다. 개별지표를 표준화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해 지표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해 다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요소를 점수화했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점수를 더해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구했다. 원자료 가운데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준점수(Z-score)로 전환할 때 부호를 바꿔주었다. 측정질문, 지표, 구성요소, 그리고 영역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비교 연구하는 과정에서 각 영역의 구성요소와 지표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 과정을 통해 얻어졌다. 먼저, 각 영역을 점수로 나타내기 위해 구성요소와 지표를 점수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산술평균을 얻는 과정에서 단위가 서로 다른 다양한 수치의 단순 합산은 단위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영역에서 학업성취 점수와 교육참여 아동의 비율을 직접 합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수 사이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해 사용했다. 만약 점수가 70이라면 모든 국가의 평균치에서 약 3개의 표준편차만큼이나 낮은 점수이다. 즉, 개별지표들을 표준화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해 지표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해 다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요소를 점수화 한 것이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점수를 더해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구했다.
- 원자료 가운데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준점수(Z-score)로 전환할 때, 부호를 바꿔주었다. 예를 들어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비율을 합쳐 어린이의 ‘영아 건강’을 측정하는 경우, 영아 사망률과 저체중아 비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국가는 표준화 점수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도록 표준화 점수의 부호를 바꿔주었다. 그리고 측정질문, 지표, 구성요소, 그리고 영역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 가지 측정 질문이 지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른 측정 질문보다 클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배제하고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표2-5. 2017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연구(KCW)의 각 지표별 표준점수 2)3)

영역	구성요소	지표	조사대상	OECD 평균	한국 표준점수		
					원점수	구성요소별 표준점수	영역별 표준점수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0-17세	11.7	11.4	100.6	115.3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아동	19세 이하	9.8	3.1	120.1	
	결핍	교육여건 문화적 결핍	15세 19세 이하	2.7 12.3	3.1 4.6	110.7	
보건과 안전	영아건강	영아 사망률	0-12개월	3.3	2.9	111.6	112.5
		저체중아 비율	2500g 이하	6.7	4.0		
	예방접종	홍역	12 ~23개월	94.7	98.0	109.8	
		소아마비		95.8	98.0		
DPT3		95.8		98.0			
사고사	아동사고사 (10만명당)	19세 이하	23.8	22.4	103.2		
교육	학업성취 (PISA 표준화 점수평균:500)	읽기	15세	500.2	517.0	112.4	112.0
		수학		498.6	524.0		
		과학		501.0	516.0		
	교육참여	15-19세 아동 학업유지	15-19세	86.3	87.0	101.5	
	청소년 실업 고용으로의 전환	실업상태인 청소년 미숙련 일자리	15-19세 15세	6.5 28.7	7.7 15.4	95.2 115.0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구조	홀부모 가정	11, 13, 15세	15.2	8.5	127.7	111.9
		의붓 가정		9.0	1.6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15세	78.7	69.5	89.4	
함께 대화하기		61.1		53.9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11,13,15세	70.5	75.0	103.9		
행동과 생활 양식	건강 증진행위	아침식사	11,13,15세	67.2	77.8	121.4	126.9
		과일섭취	11,13,15세	38.8	59.2		
		과체중 (BMI 25 이상)	13, 15세	14.5	9.7		
		운동 (평균 일 수)	11,13,15세	18.8	12.0		
	건강 위험행위	흡연	11,13,15세	5.0	1.4	125.5	
		음주		8.8	8.7		
		마약		14.9	0.7		
섹스	15세	20.7	0.8				
임신과 출산	15-19세 (여)	9.0	21.8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불건강	11,13,15세	13.1	2.0	84.7	87.6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11,13,15세	28.9	12.4	115.7	
	개인행복	삶의 만족	11,13,15세	85.2	3.7	76.4	
		소속감 못느낌	15세	10.6	18.4		
		어울림 못느낌		11.6	45.3		
외로움		8.5		74.3			

2) 생활과 행동양식영역에서 '폭력의 경험'은 한국에서 유니세프 연구와 같은 지표화와 측정이 쉽지 않았으므로 제외되었다. 행동과 생활양식 영역에서 콘돔사용에 대한 질문은 한국 청소년의 성행위 경험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표산출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3) UNICEF의 원지표는 '지난 1주일간에 한하여' 음주여부'를 묻는 질문인데 반해, 본 연구 설문지(KCW)는 '지금까지 두번 이상 음주경험을 물었기 때문에 한국의 비율이 과대측정 되었다'

제3장 OECD 행복지수 4)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른은 뿌리라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려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원칙상 그 싹을 위하여 그 나무는 뺏쳐 나갈 것입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4) 그래프에서 수치가 0인 경우는 해당 수치가 조사되지 않은 국가로 기술 통계지에서는 0을 결측값으로 처리한 후 계산함.

1. 물질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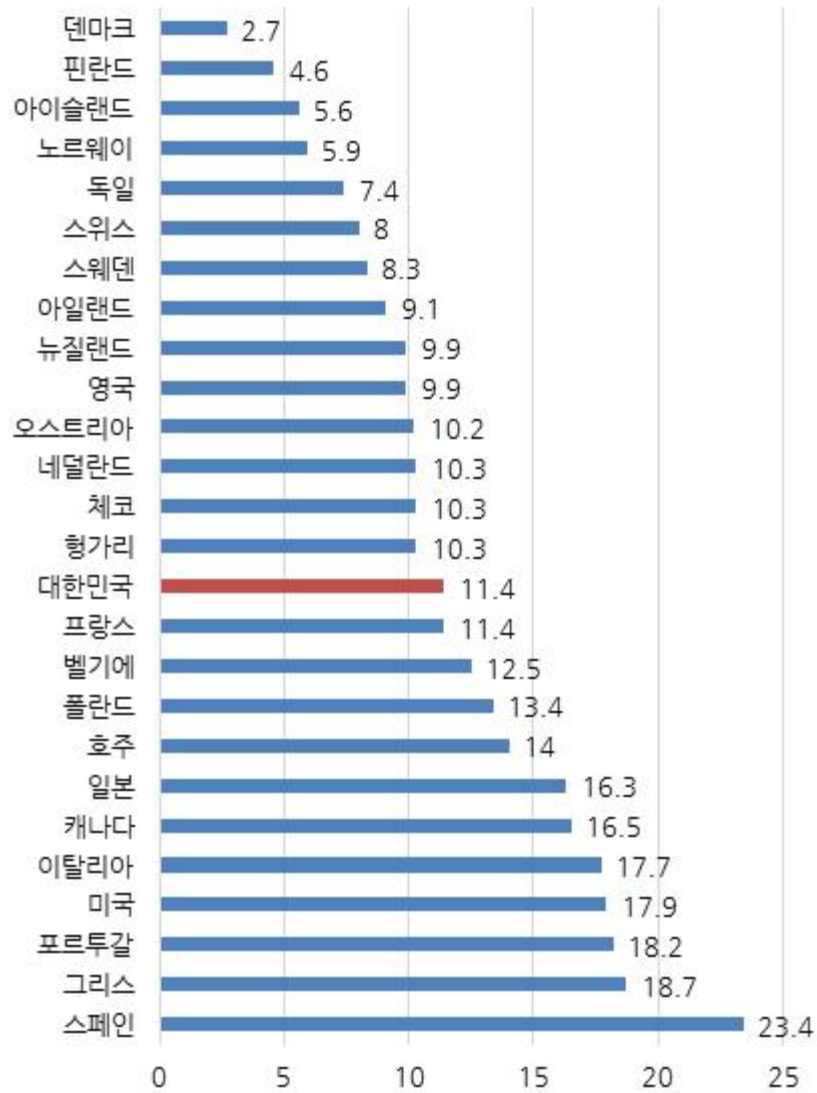
1.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 개별국가에서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아동의 비율

- 한국의 상대적 빈곤 비율은 11.4%로, OECD 국가 평균(11.7%)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3-1. 국가별 상대적 빈곤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상대적 빈곤	11.7	5.0	2.7	11.4	23.4

2.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 가정의 성인이 취업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비율

- 한국의 미취업 가정 비율은 3.1%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2. 미취업 가정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미취업 가정	9.8	3.4	3.1	3.1	16

3. 빈곤 교육여건

교육여건 : 교육자재-책상, 조용한 곳, 컴퓨터, 교육 소프트웨어, 인터넷, 계산기, 사전, 학교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책-를 4개 미만 소유한 비율

- 한국의 교육여건 관련 수치는 3.1% 로, OECD 국가 평균(2.7%)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3-3. 교육여건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교육여건결핍	2.7	1.9	0.8	3.1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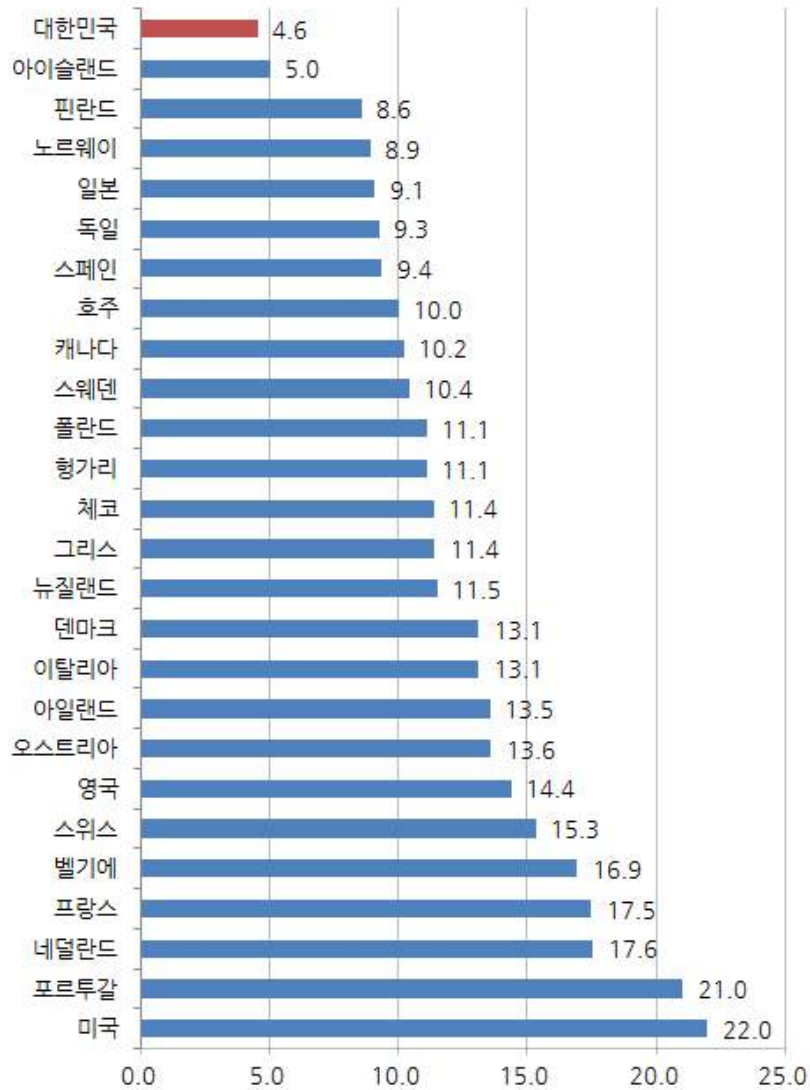
3. 빈곤 문화적 결핍

문화적 결핍 : 집에 책이 10권 이하 있는 아동의 비율

- 한국의 문화적 결핍수치는 4.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4. 문화적 결핍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문화적 결핍	12.3	4.2	4.6	4.6	22.0

II. 보건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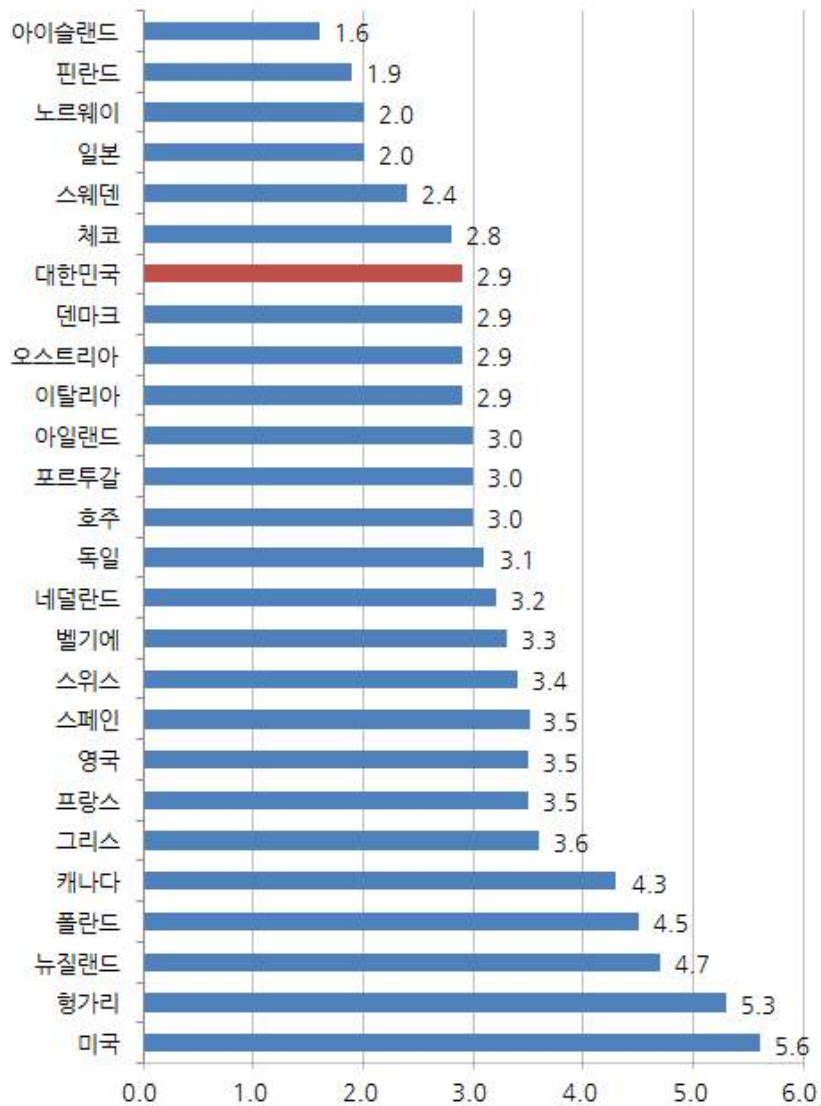
1. 영아건강_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 : 사망한 0~1세의 비율(출산 1,000명당)

-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2.9%로, OECD 국가 평균(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5. 영아사망률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영아사망률	3.3	1.0	1.6	2.9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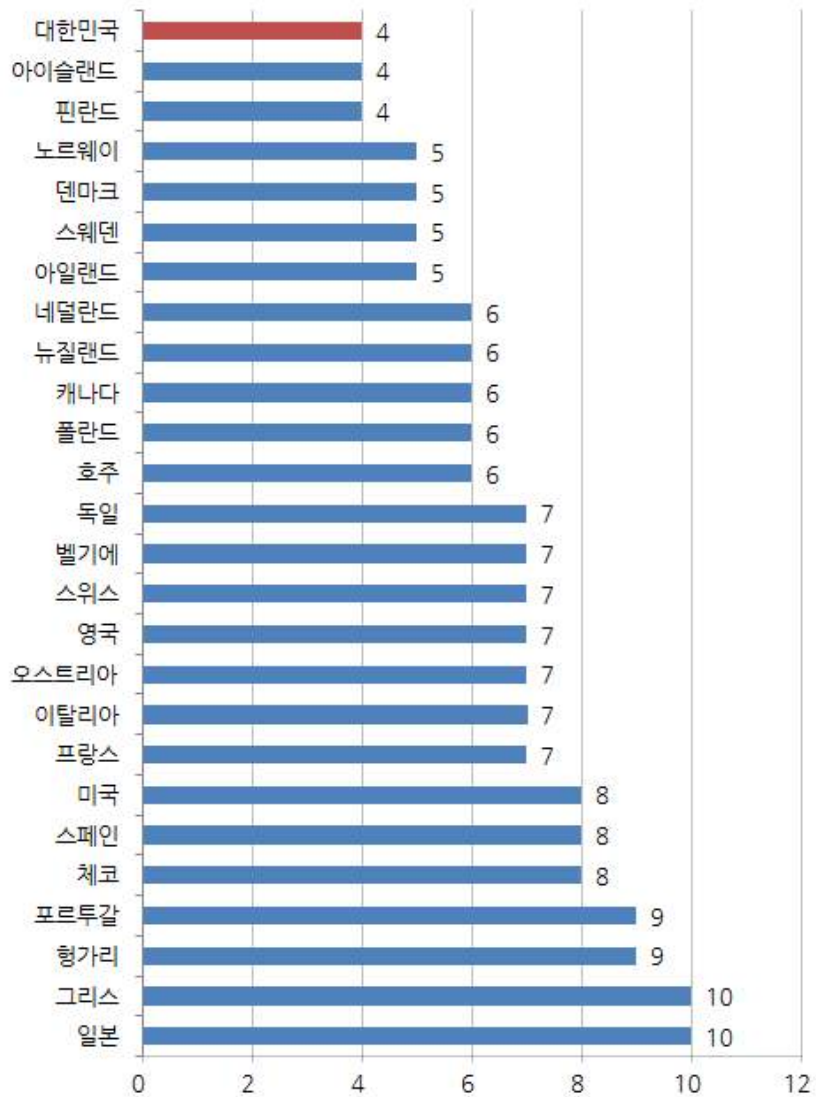
1. 영아건강_저체중아 비율

저체중아 비율 : 2.5kg 이하 저체중아의 비율

- 한국의 저체중아 비율은 4%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6. 저체중아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저체중아	6.7	1.7	4	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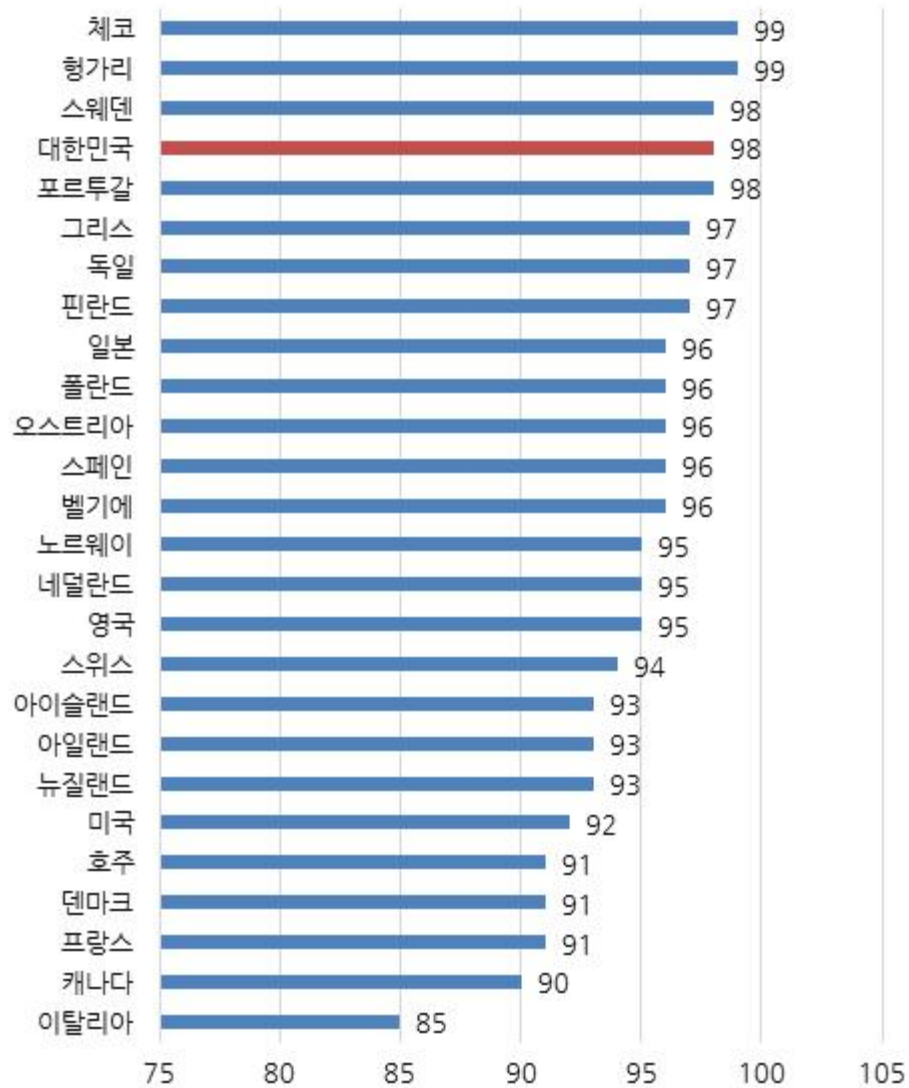
2. 예방접종_홍역

홍역 예방접종 비율 : 12-23개월 영아의 홍역 예방접종 비율

- 한국의 홍역 예방접종 비율은 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림3-7. 홍역 예방접종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홍역 예방접종	94.7	3.3	99	98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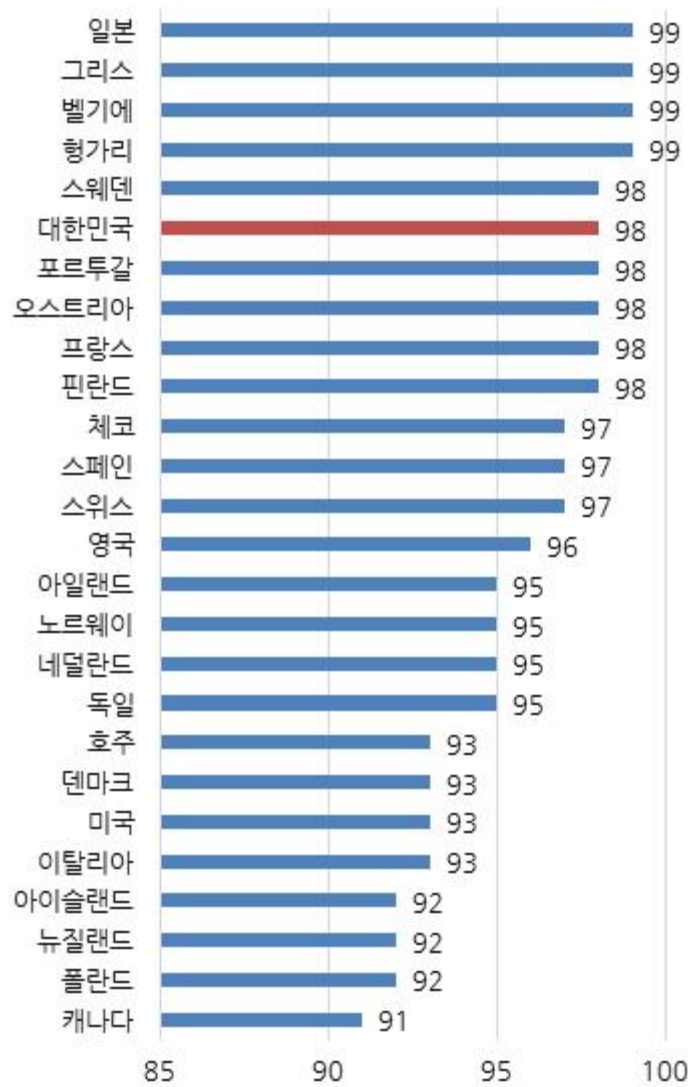
2. 예방접종_소아마비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 : 12-23개월 영아의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

- 한국의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은 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림3-8. 소아마비 예방접종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소아마비 예방접종	95.7	2.6	99	98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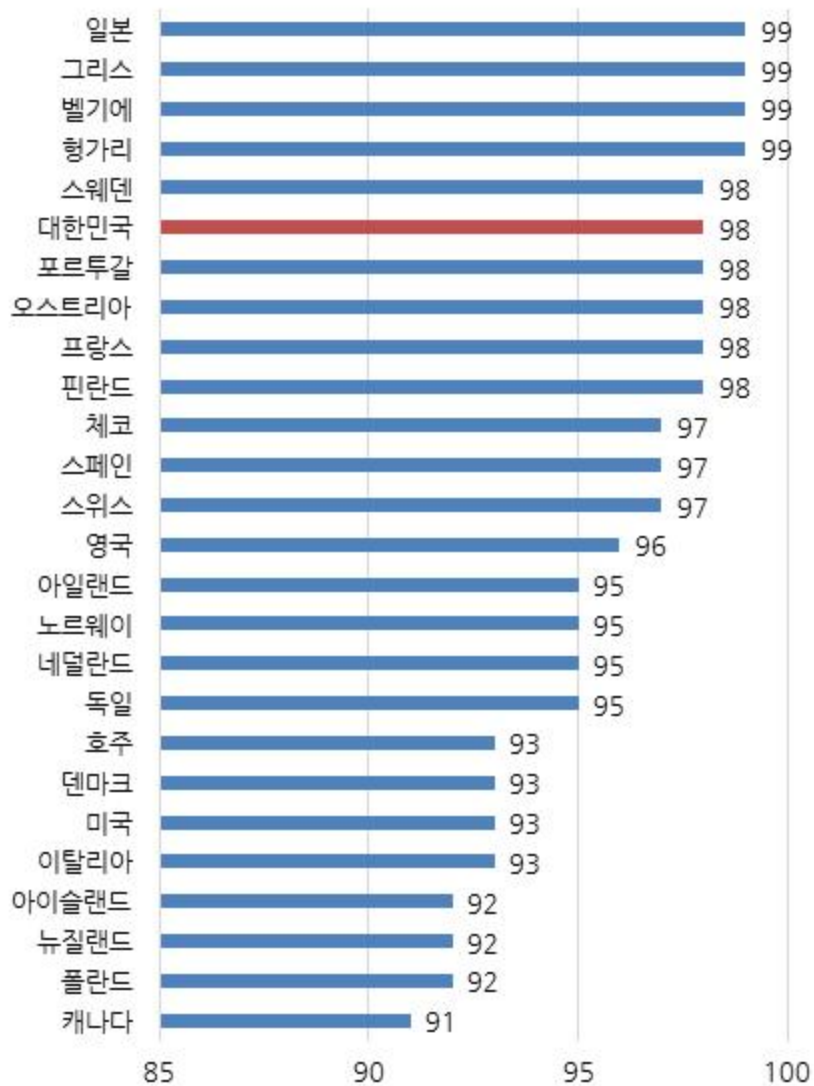
2. 예방접종_DP3

DPT3(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비율 : 12-23개월 영아의 DPT3 예방접종 비율

- DP3(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 비율 역시 한국은(98%)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 99%에 가깝다.

그림3-9. DPT 예방접종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DPT3 예방접종	95.7	2.6	99	98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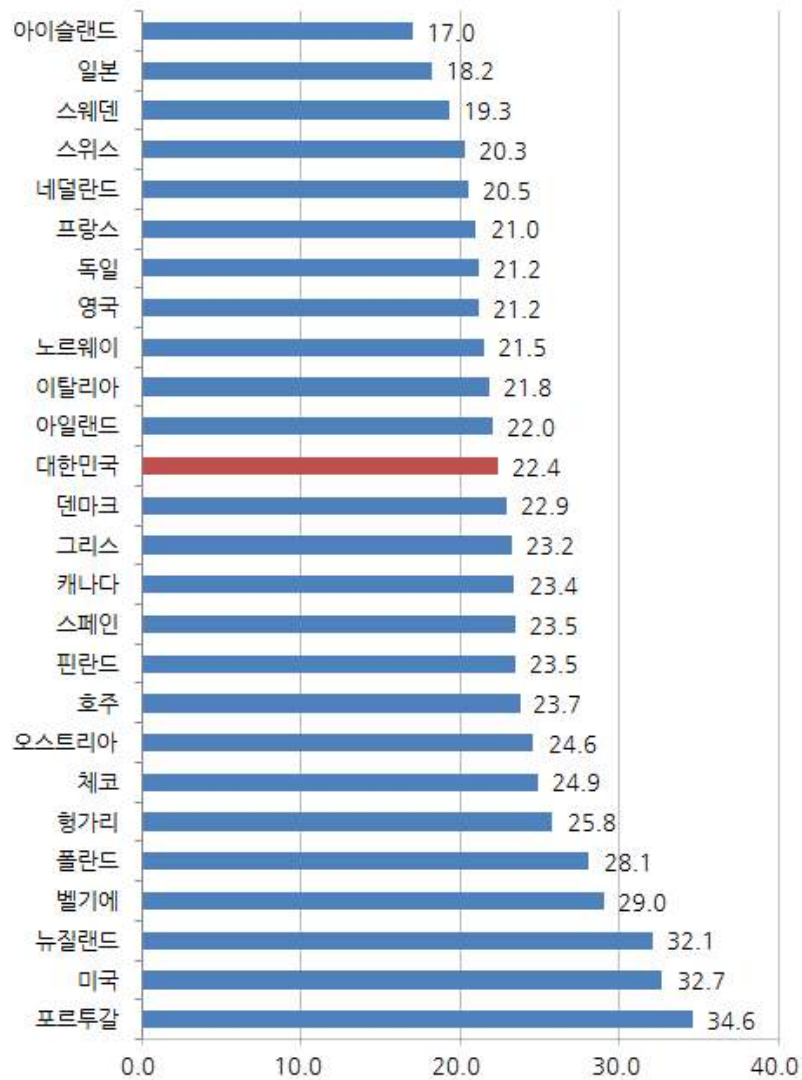
3. 사고사

아동사고사 :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아동(19세 이하)의 십만 명당 비율

- 한국의 연평균 아동사고사 비율은 10만 명당 22.4명으로, OECD 국가 평균(23.8명)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림3-10. 아동사고사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아동 사고사	23.8	4.3	17.0	22.4	34.6

Ⅲ.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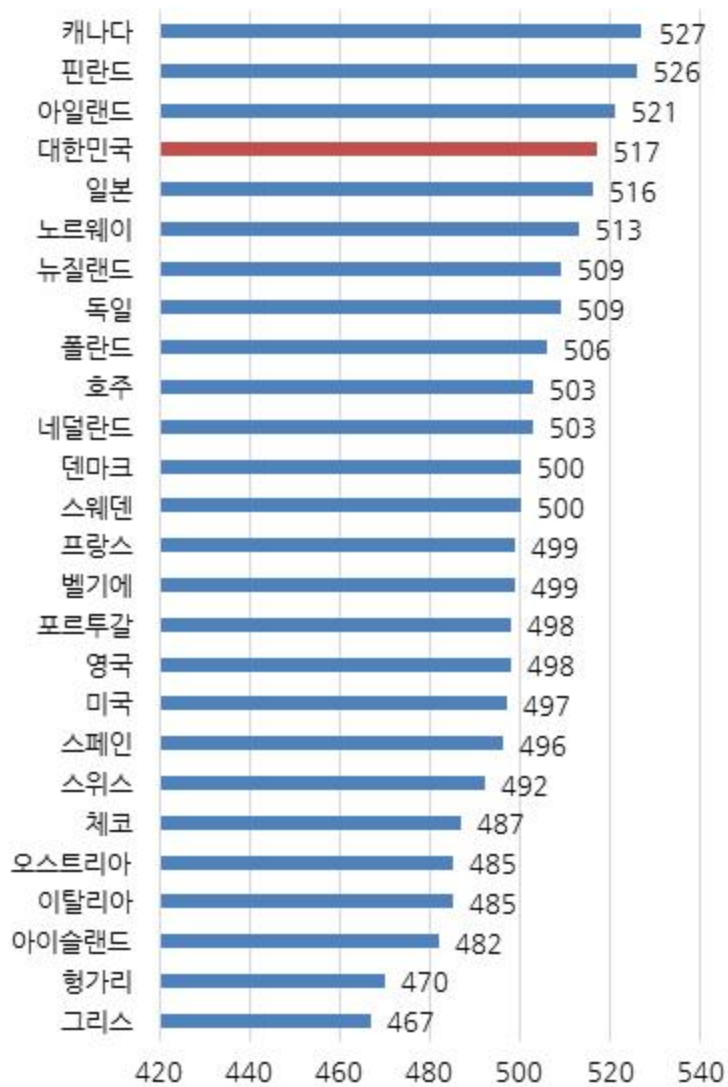
1. 학업성취_읽기

15세 학업성적 :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읽기 점수

- 한국의 읽기시험 점수는 517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4순위로 나타났다.

그림3-11. 읽기시험 점수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읽기 점수	500.2	15.1	527	517	467

1. 학업성취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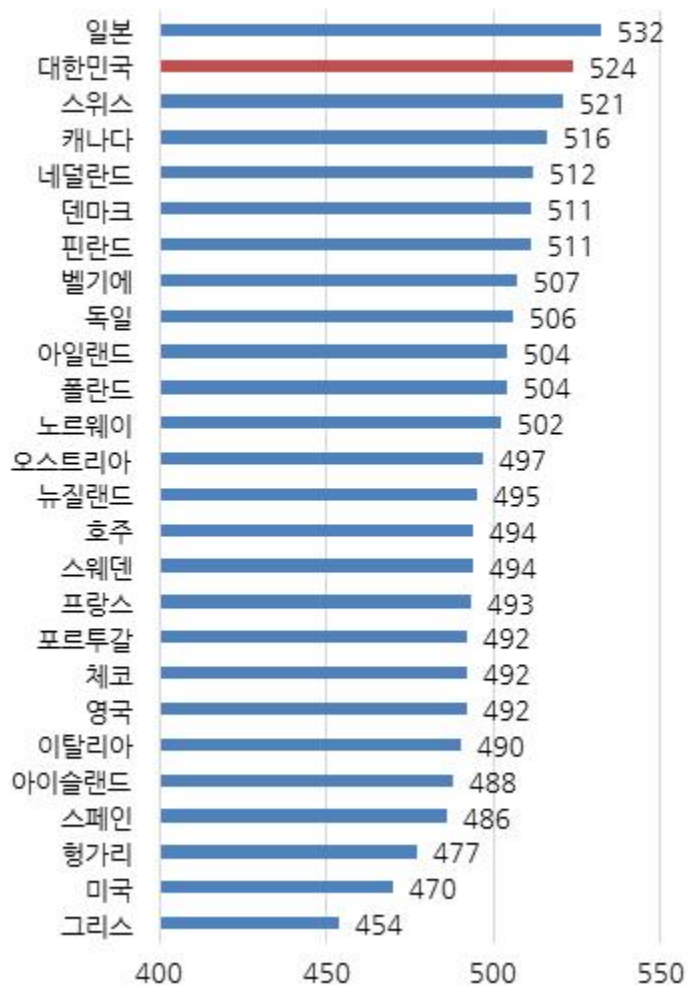
15세 학업성적 :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수학 점수

- 한국의 수학시험 점수는 OECD국가 평균(498.6)을 크게 상회하는 524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림3-12. 수학시험 점수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수학 점수	498.6	16.8	532	524	454

1. 학업성취 과학

15세 학업성적 :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과학 점수

- 한국의 과학시험 점수는 516점으로 OECD 국가 평균(501.04)보다 크게 높았으며, 핀란드, 일본, 캐나다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그림3-13. 과학시험 점수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과학 점수	501	17.7	538	516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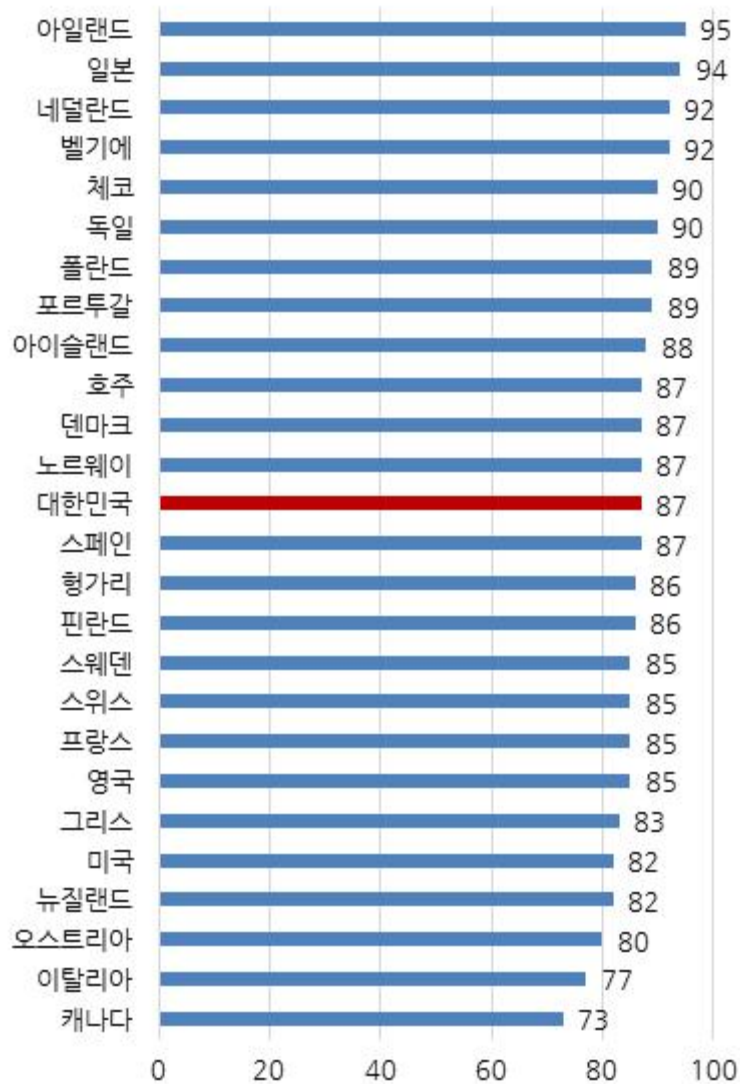
2. 교육참여_학업유지

15-19세 아동의 학업 유지 : 학교를 다니는 15-19세의 아동의 비율

- 한국의 학업유지 비율은 87%로, OECD 국가 평균 86.3%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3-14. 학업유지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학업 유지	86.3	4.9	95	87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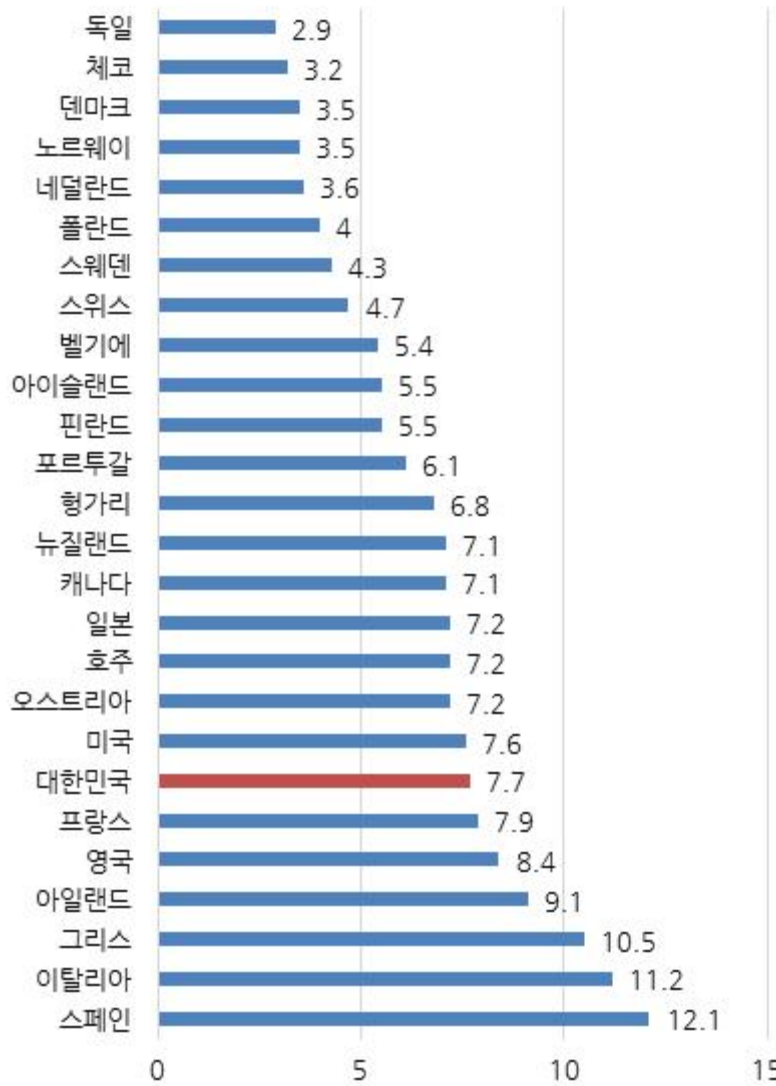
2. 교육참여 실업상태

실업상태 :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층의 비율

-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 층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6.5%이며, 한국은 7.7%로 OECD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3-15. 실업상태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청소년 실업	6.5	2.5	2.9	7.7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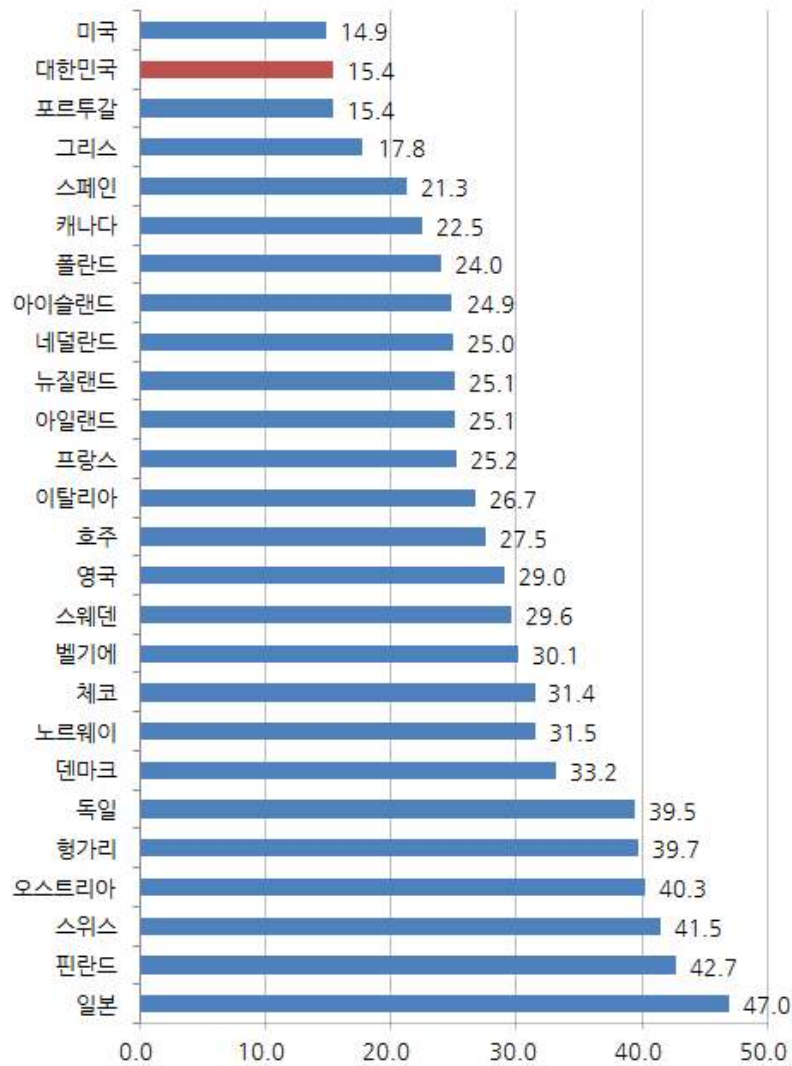
3.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 기대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

- 성인이 되어 희망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기대하는 비율은 한국이 15.4%로 OECD 국가 평균인 28.7%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16. 미숙련 일자리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미숙련 일자리 희망	28.7	8.7	14.9	15.4	47.0

IV. 가족과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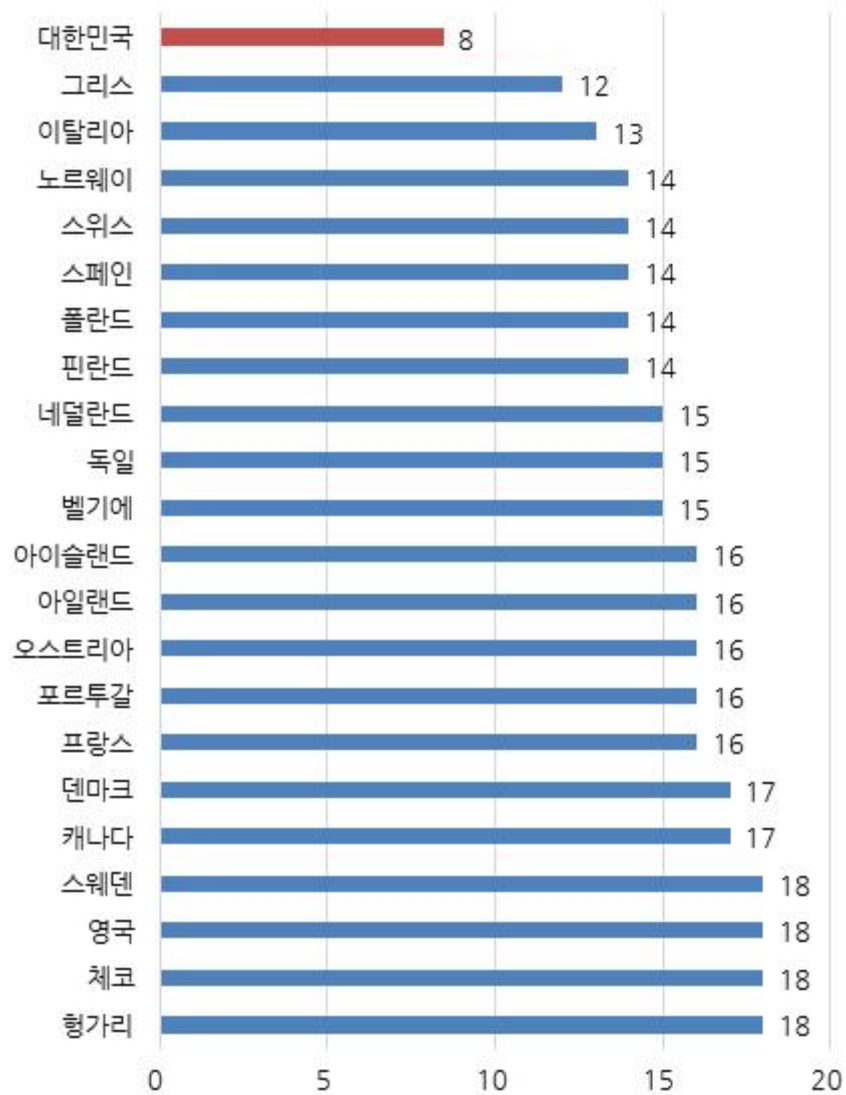
1. 가족구조_홀부모가정

홀부모가정 : 홀부모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 한국의 홀부모가정 비율은 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17. 홀부모가정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홀부모가정	15.1	2.5	8	8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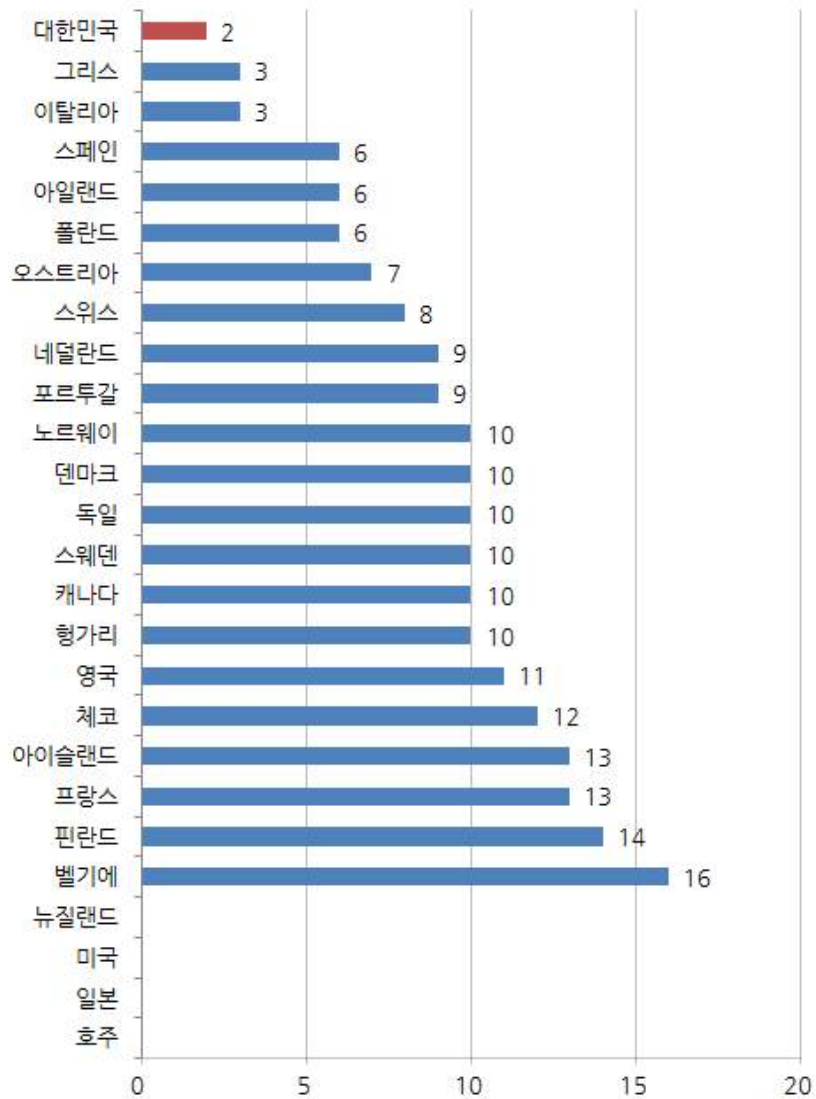
1. 가족구조_의붓가정

의붓가정 :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 의붓아버지 혹은 의붓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2%에 그친 반면, OECD국가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은 9%로 나타났다.

그림3-18. 의붓가정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의붓 가정	8.9	3.7	2	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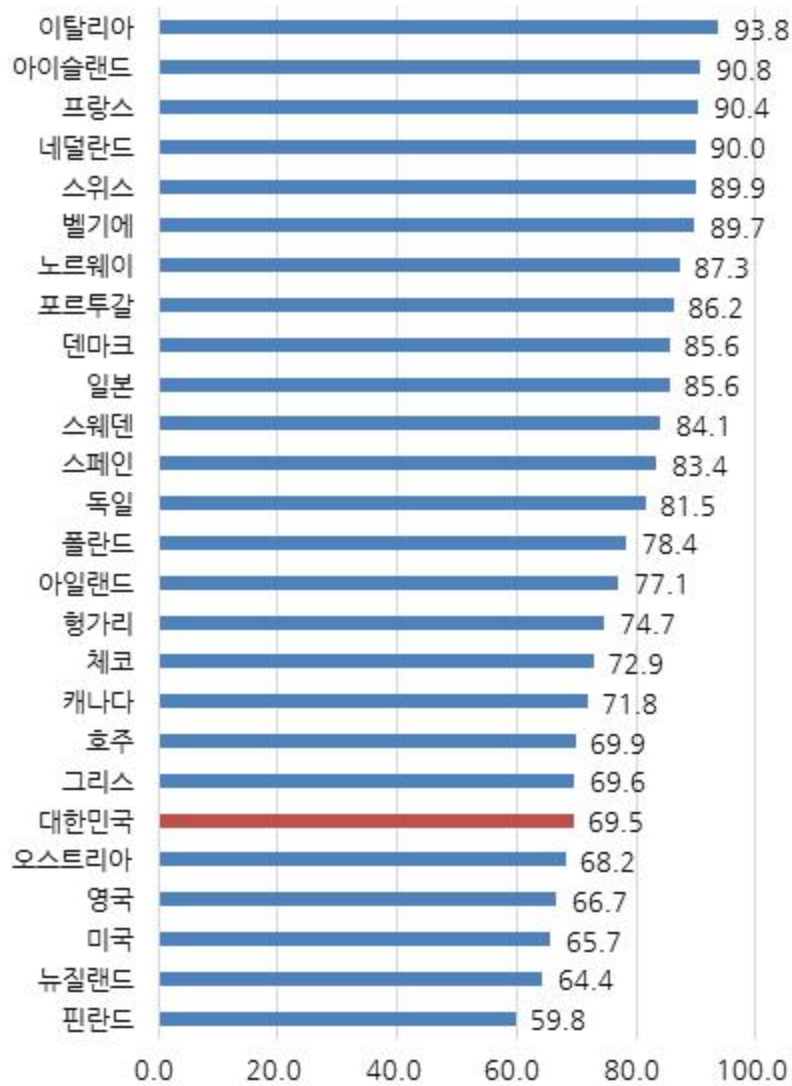
2. 부모관계_함께 식사하기

함께 식사하기 :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아동의 비율

- 부모님과 함께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69.5%로, OECD 국가 중 하위 6위로 나타났다.

그림3-19. 함께 식사하기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부모와 함께 식사	78.7	10.0	93.8	69.5	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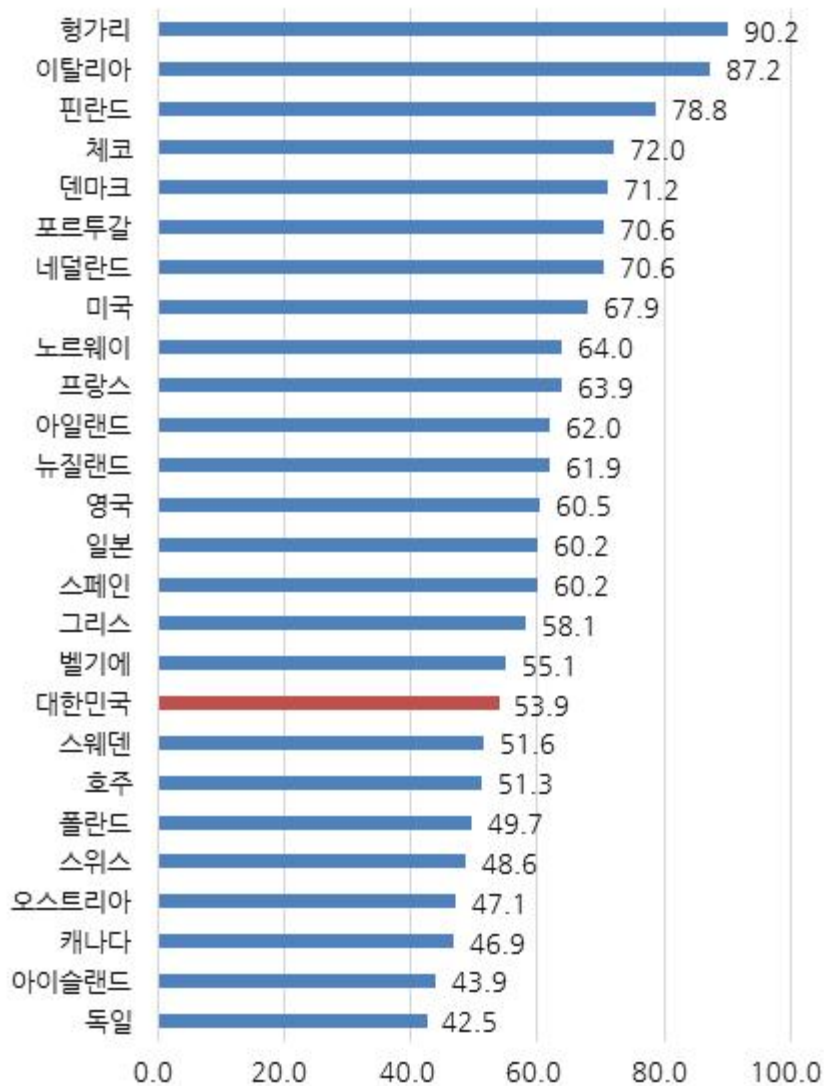
2. 부모관계_함께 대화하기

함께 대화하기 :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아동의 비율

- 부모님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대화하는 빈도에서는 OECD 국가 평균이 60.8%로, 한국은 53.9%로 나타났다.

그림3-20. 함께 대화하기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부모와 함께 대화	61.2	12.5	90.2	53.9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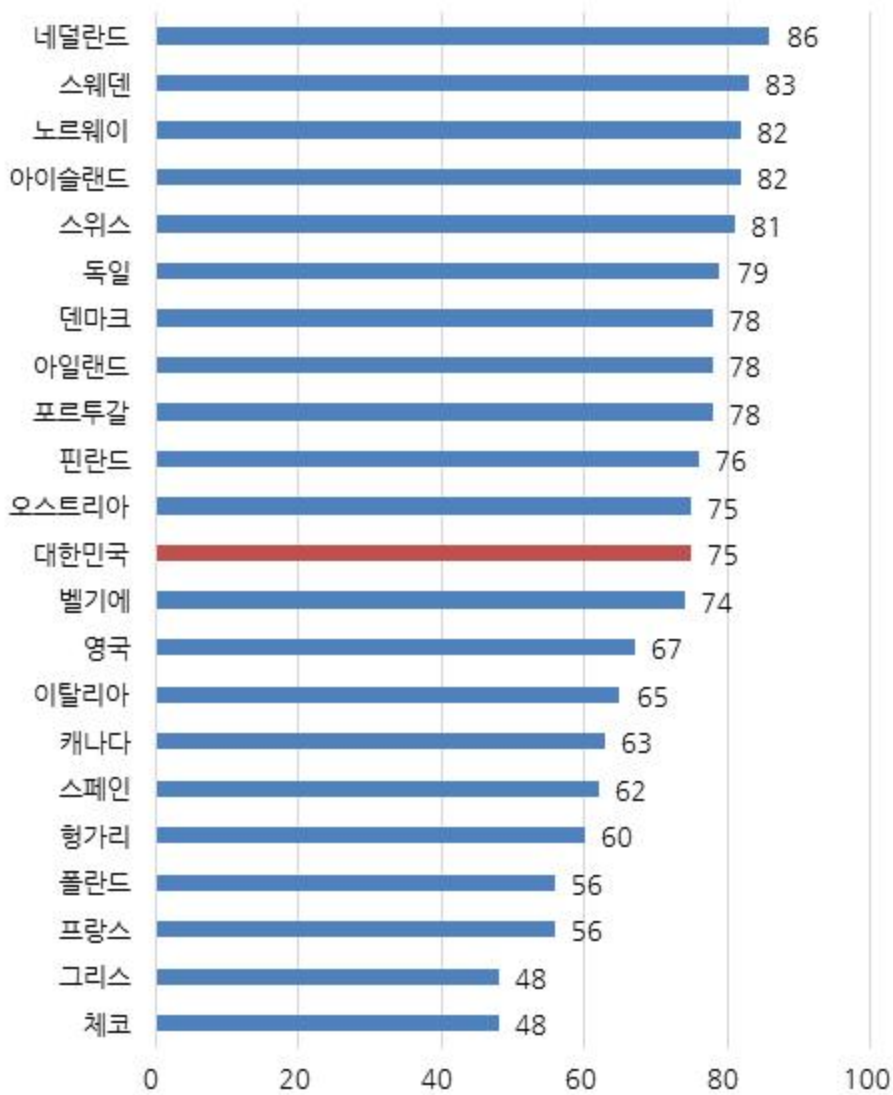
3.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 급우가 자신에게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

- 급우가 자신에게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은 한국이 75%로 OECD 국가 평균 70.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3-21. 친절한 급우관계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급우관계	70.5	11.6	86	75	48

V. 행동과 생활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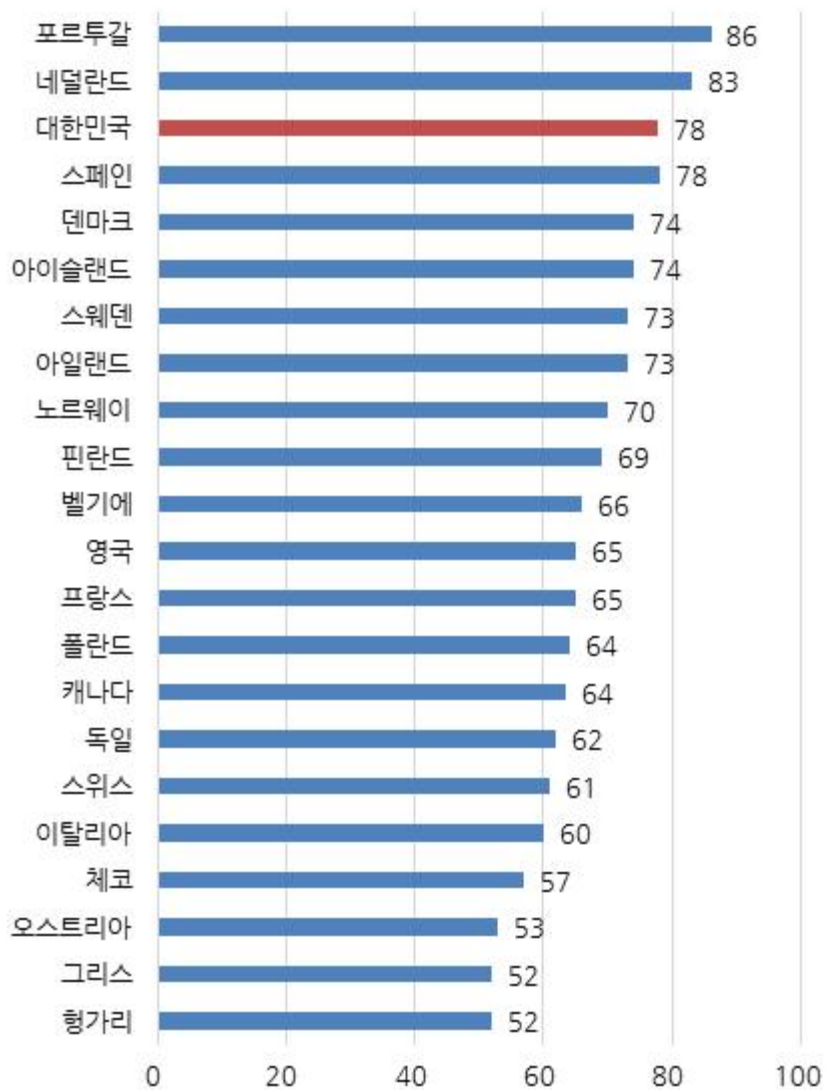
1. 건강행동_아침식사

아침식사 :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 11,13, 15세 어린이 비율

- 2017년 설문에서 측정된 등교 전 아침식사 비율은 한국이 78%로, OECD 국가 평균 (67.3%)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22. 아침식사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아침식사	67.2	9.6	86	78	52

1. 건강행동_과일섭취

과일섭취 :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11, 13, 15세 학생의 비율

- 2016년 설문으로 측정한 과일섭취 비율은 한국이 59.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23. 과일섭취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과일 섭취	38.8	7.5	59.2	59.2	24

1. 건강행동_과체중

과체중 : 체질량지수(BMI)가 25이상인 13, 15세 학생의 비율

- 체질량지수 (BMI)가 25 이상, 즉 과체중인 아이들의 비율이 한국은 9.7%로, OECD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3-24. 과체중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과체중	14.5	3.3	8.3	9.7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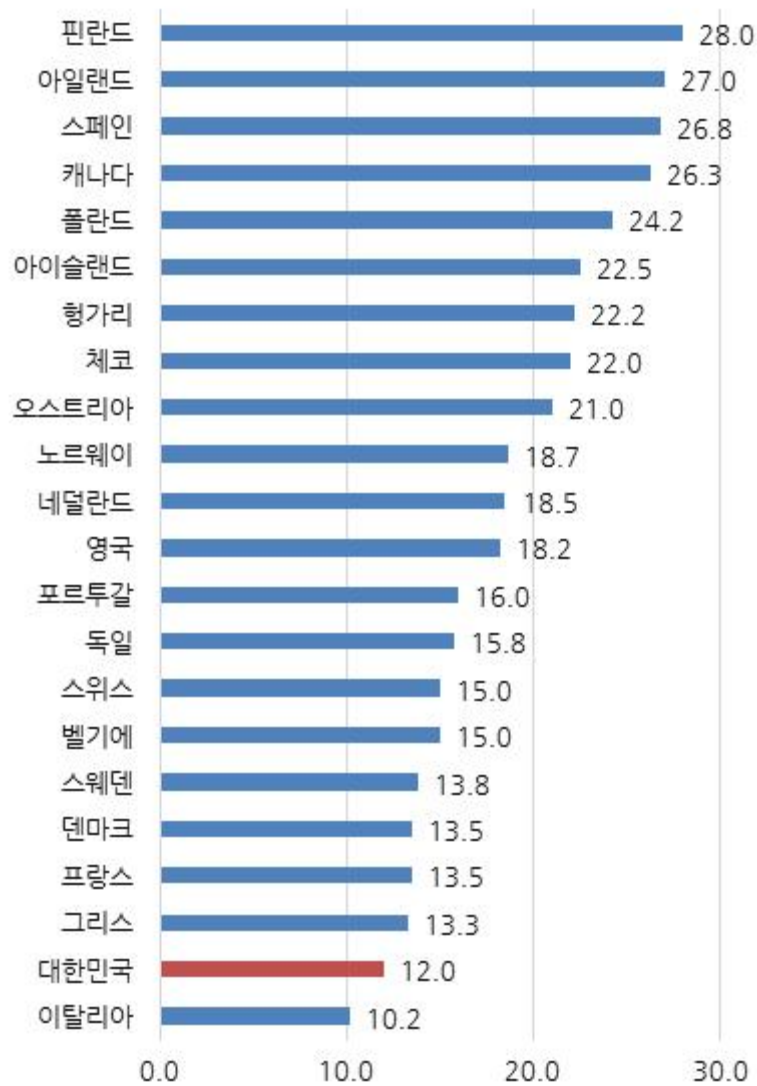
1. 건강행동_운동

운동 :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수가 7일인 비율

-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수가 7일인 비율의 경우 한국은 12%로, OECD 국가 평균인 18.8%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3-25. 운동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운동	18.8	5.3	28.0	12.0	10.2

2. 위험행동_흡연

흡연 : 11, 13, 15세의 흡연 비율

- 한국 청소년의 흡연 비율은 1.4%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3-26. 흡연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흡연	4.8	2.9	1.3	1.4	8.8

2. 위험행동_음주

음주 : 11, 13, 15세의 음주 비율

- 한국 청소년 음주경험 비율은 8.7%로, OECD 국가 평균(8.8%)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3-27. 음주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음주	8.8	3.1	2.3	8.7	15.5

2. 위험행동_마약

마약 : 11, 13, 15세의 마약 사용 비율

- 한국 청소년의 마약복용 비율은 0.7%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3-28. 마약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마약	14.9	7.4	0.7	0.7	27.5

2. 위험행동_성관계

성관계 : 15세의 성관계 경험 비율

- 2016 설문을 통해 측정한 한국 10대의 성관계 경험 비율은 0.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29. 성관계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성관계	20.6	5.7	0.8	0.8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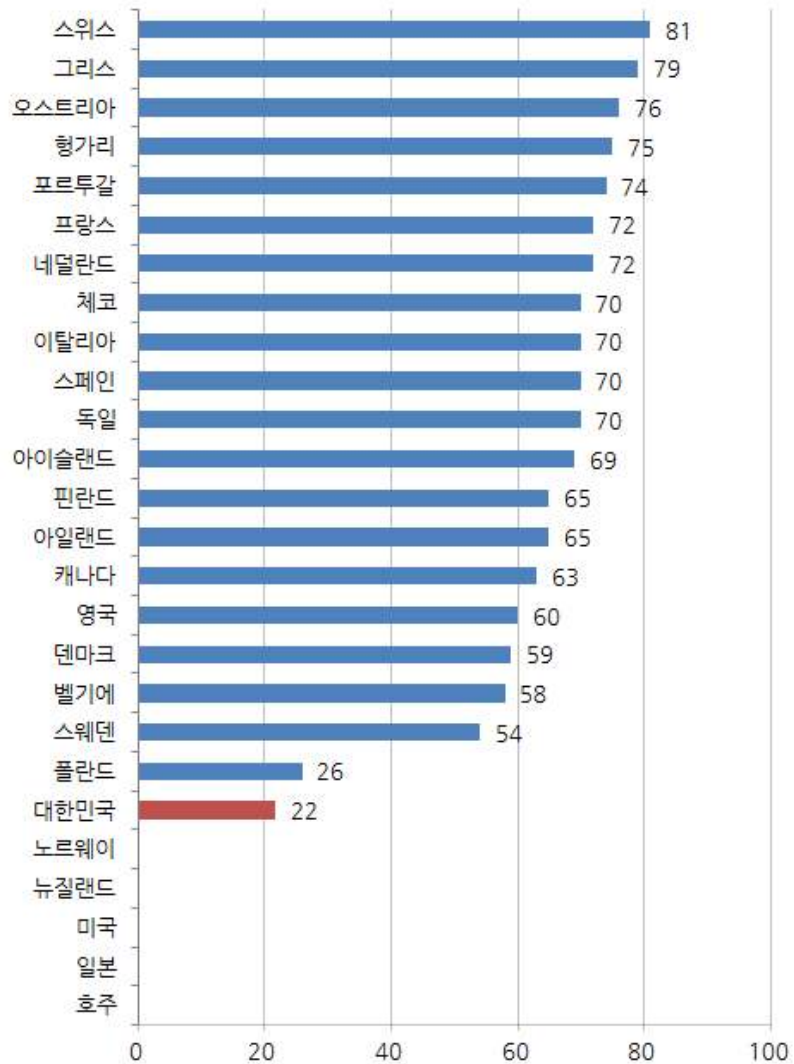
2. 위험행동_콘돔사용

콘돔사용 :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 15세의 학생 비율

-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 비율의 경우 한국은 22%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30. 콘돔사용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콘돔	64.3	14.8	81	22	22

2. 위험행동_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 : 15-19세 여학생의 출산율

- 한국 10대의 출산비율은 2.3%로 OECD 국가 평균(9.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3-31. 임신과 출산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십대 출산율	9.0	5.3	2	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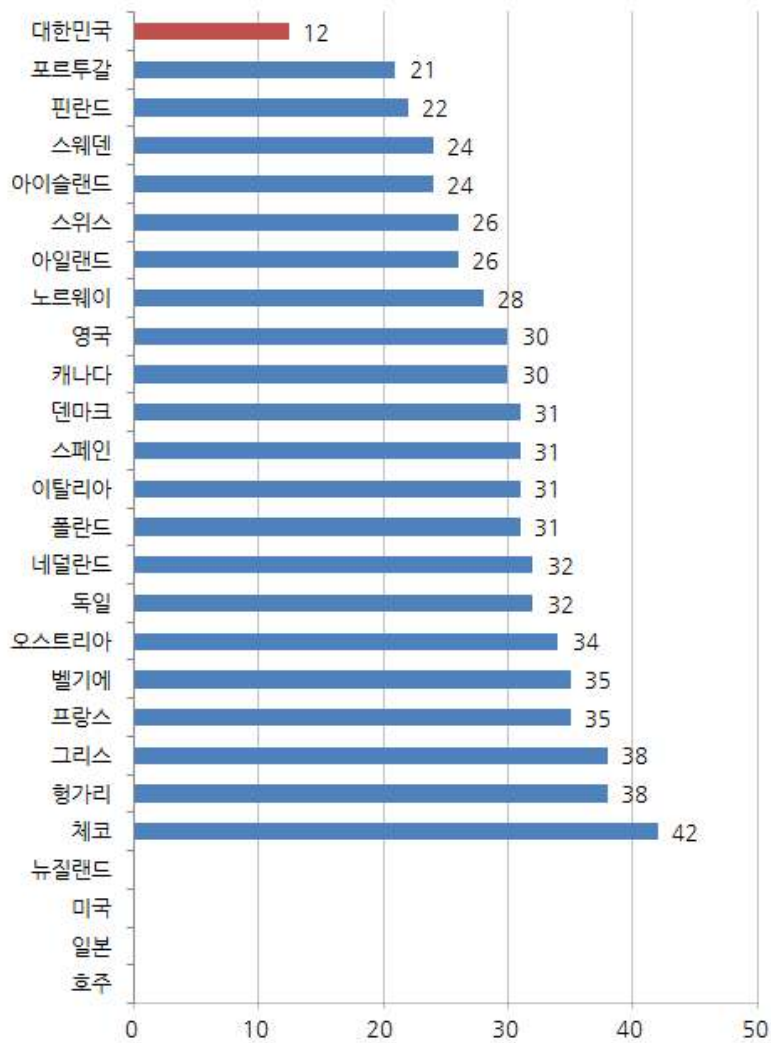
2. 위험행동_싸움

싸움 : : 지난 12개월 동안 폭력행위에 관련된 아동의 비율

- 지난 12개월간 싸움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12%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32. 싸움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싸움	29.7	6.6	12	12	42

Ⅵ. 주관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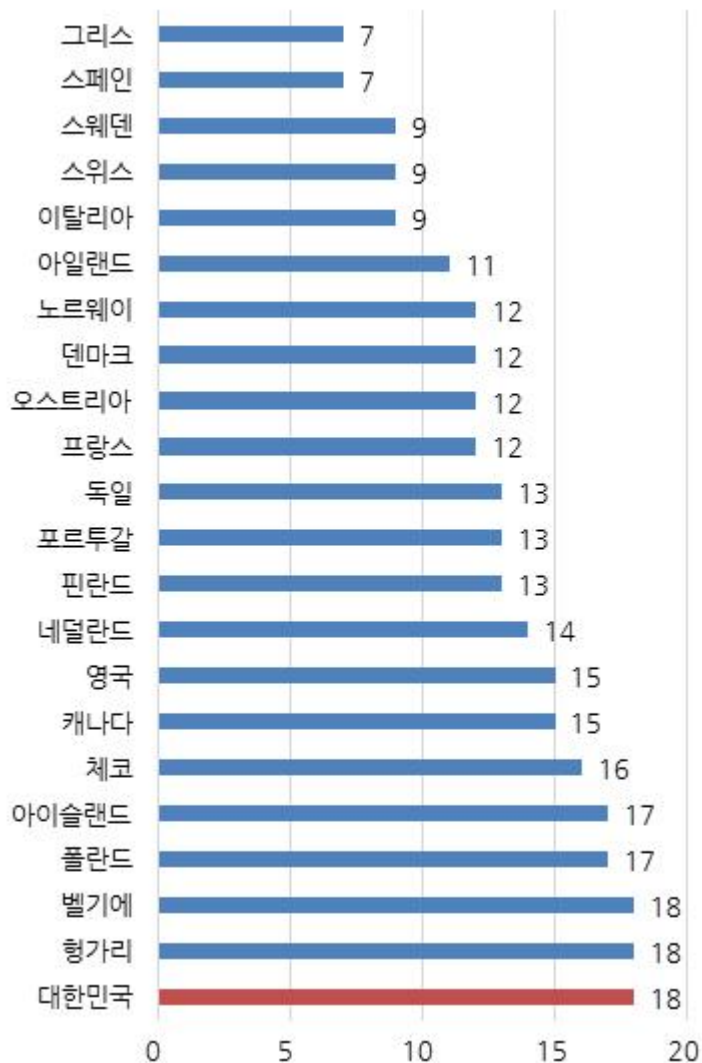
1. 건강

주관적 건강 :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

-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 비율은 한국이 18.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33. 주관적 건강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주관적 건강 좋지 못함	13.1	3.5	7	18.4	18.4

2.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한국이 45.2%로 OECD 국가 평균(28.9%)보다 높았다.

그림3-34. 학교생활 만족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학교 만족	28.9	10.4	45	4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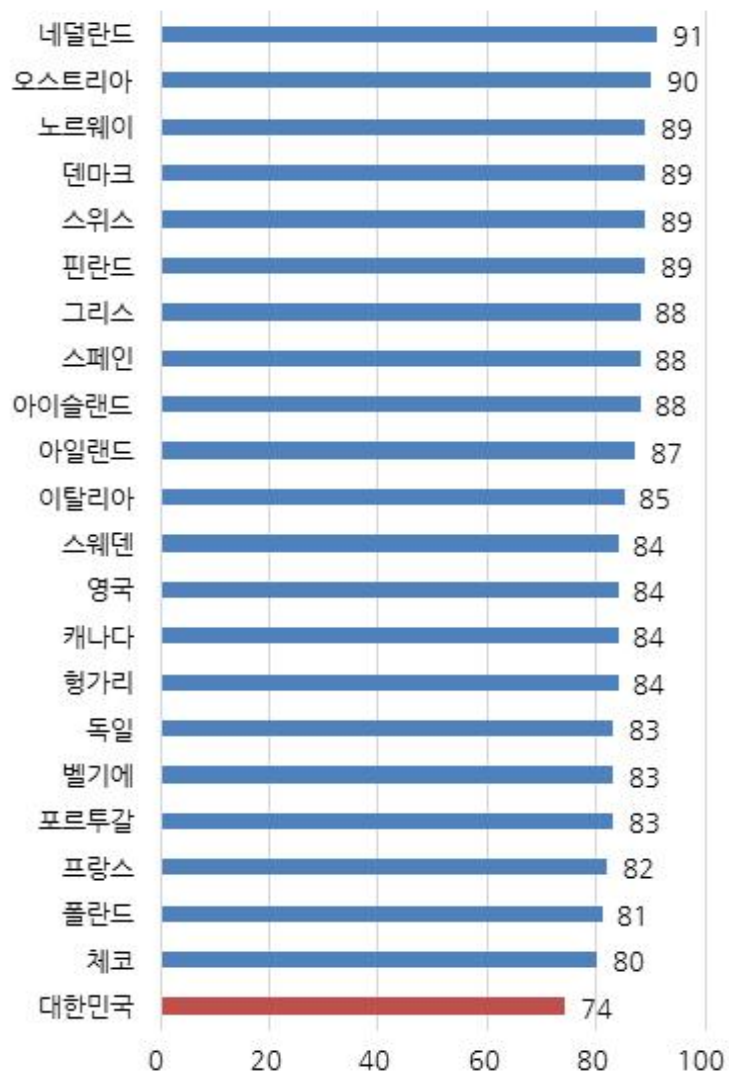
3. 개인 행복_삶의 만족

삶의 만족 척도 :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만족한다' 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한국은 74%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그림3-35. 삶의 만족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삶의 만족	85.2	4.0	91	74.26	7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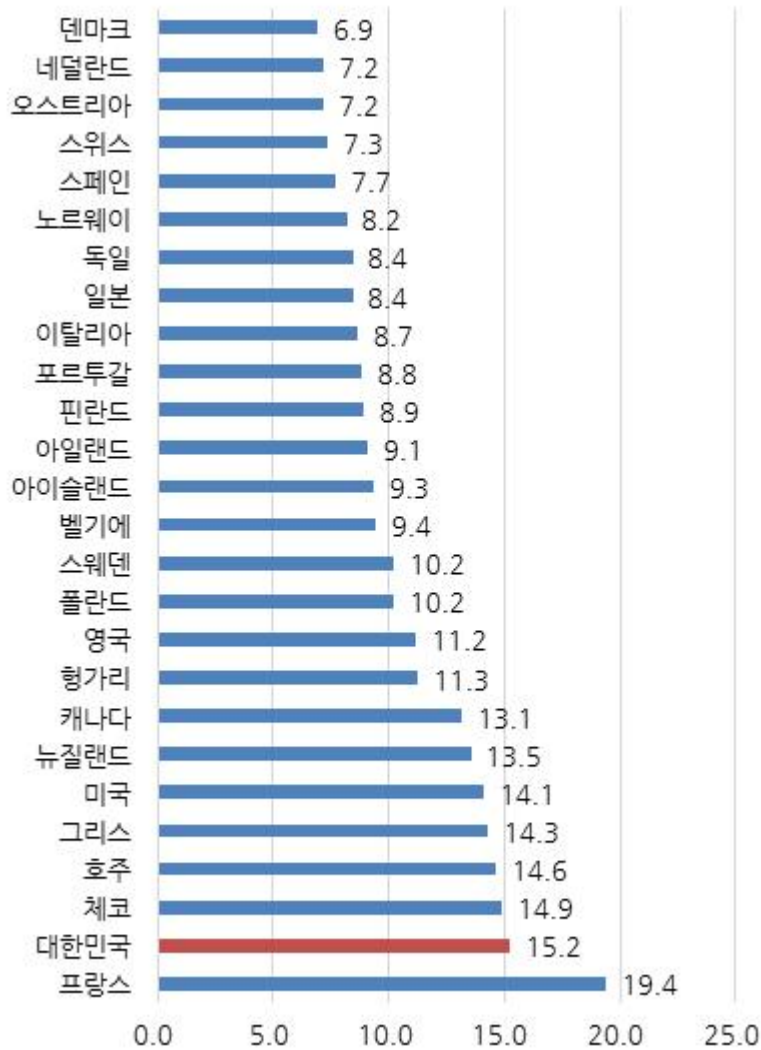
3. 개인 행복_소속감

소속감 :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

-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이 15.2%로, OECD국가 평균(10.7%)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3-36. 소속감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소속감 못느낌	10.7	3.2	6.9	15.2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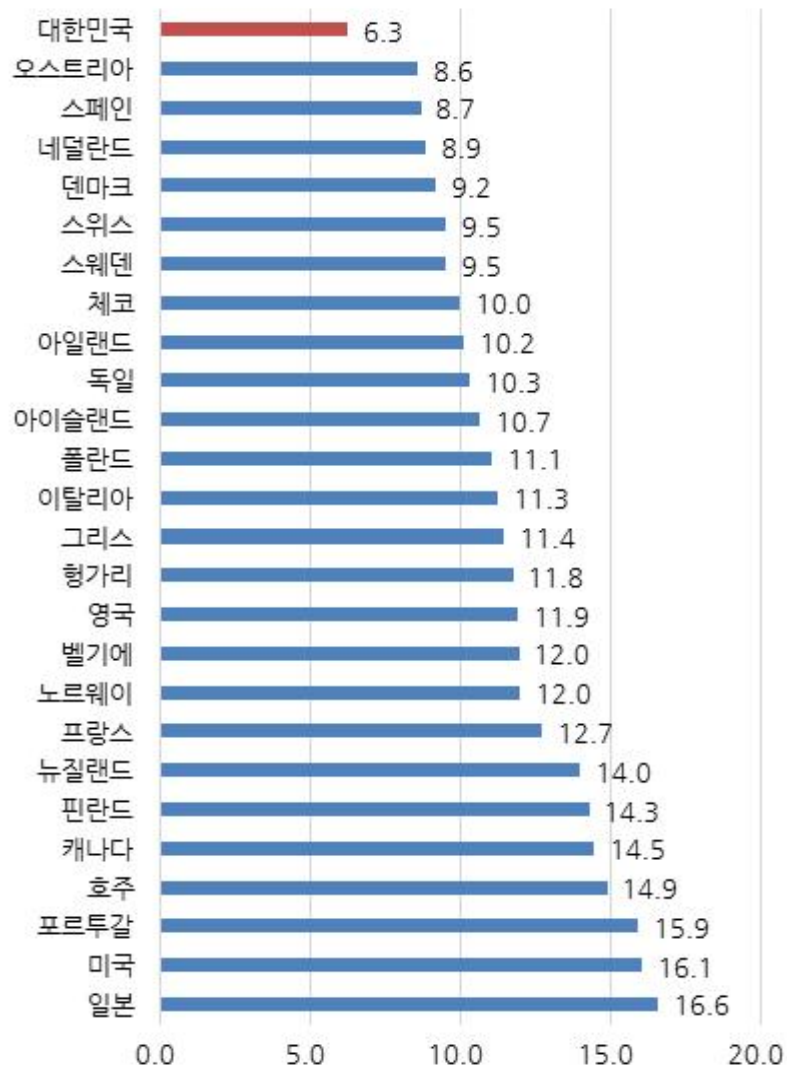
3. 개인 행복_어울림

어울림 :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

-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의 경우 한국은 6.3%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37. 어울림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주변상황 적응 못함	11.6	26	6.3	6.3	16.6

3. 개인 행복_외로움

외로움 : : ‘다소’, 혹은 ‘매우’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

-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15.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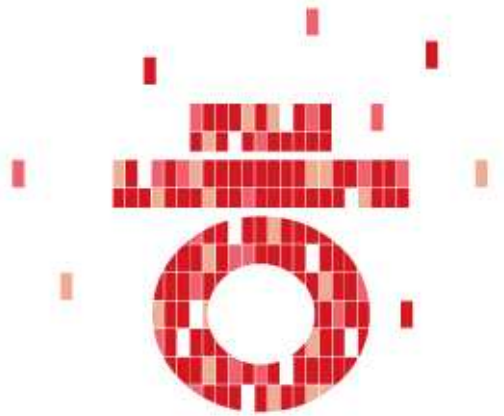
그림3-38. 외로움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상위	한국	최하위
외로움	8.5	2.2	5.3	15.2	15.2

제4장 운동수준과 행복감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를 결코 억박지르지 마십시오. 조선의 부모는 대개가 가정교육은 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 놓습니다. 억박지를 때마다 뻗어가는 어린이의 기운은 바짝바짝 줄어들습니다. 그렇게 길러온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크게 자라서 뛰어난 인물이 못되고 남에게 끌리고 뒤지는 샌님이 되고 맙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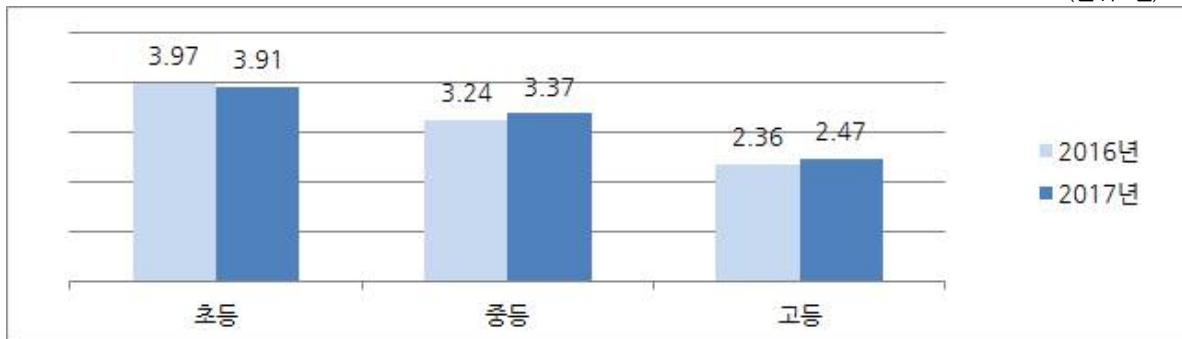
I. 운동수준 분포

1. 교급별 운동수준 분포

- 이 절에서는 초등·중등·고등학생의 운동수준을 살펴보았다. “지난 1주일 동안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1시간 이상 운동한 날수는 몇 일인가요” 문항을 사용했으며, 응답 항목은 0일부터 7일까지 구성돼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운동수준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주 단위 운동일수가 3.91일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3.37일 수준이었으며, 고등학생은 2.47일로 가장 낮았다.

그림4-1. 교급별 주 단위 평균 운동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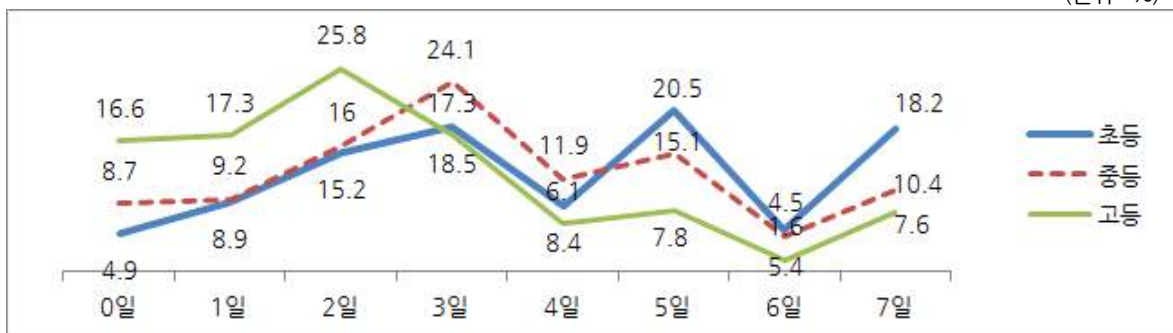
(단위: 일)



- 주 단위 운동일수에 따른 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5일”이라고 답한 비율이 20.5%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은 “3일”(24.1%), 고등학생은 “2일”이 2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4-2. 교급별 주 단위 운동일수 분포

(단위: %)



2. 성별, 계층, 성적에 따른 운동수준 분포

- 주 단위 운동수준을 성별, 계층인식,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남학생의 운동수준이 교급에 상관없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자신이 속한 계층을 높게 인식할수록 운동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할 때 운동수준은 교급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성적 상위권 학생의 운동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한편, 중고생은 하위권 학생층에서 운동수준이 가장 높았다.

그림4-3. 성별 구분에 따른 주 단위 평균 운동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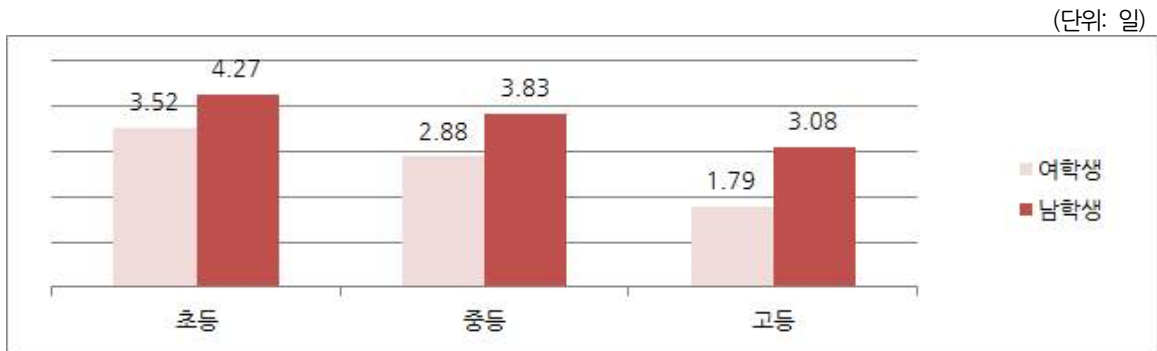


그림4-4. 계층인식에 따른 주 단위 평균 운동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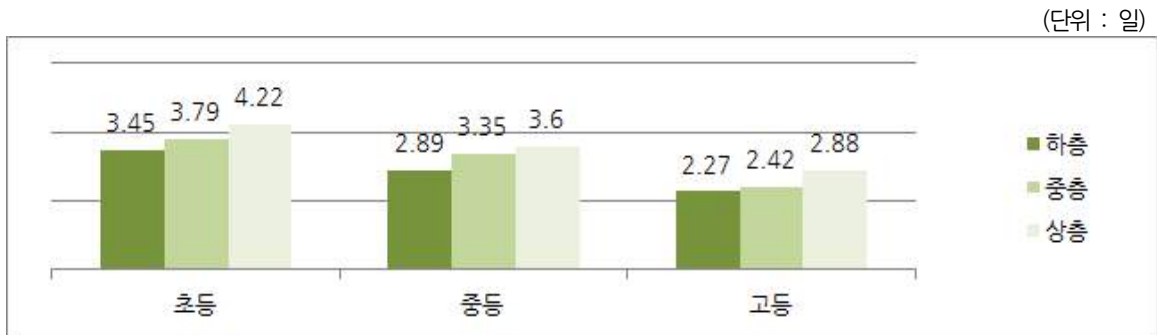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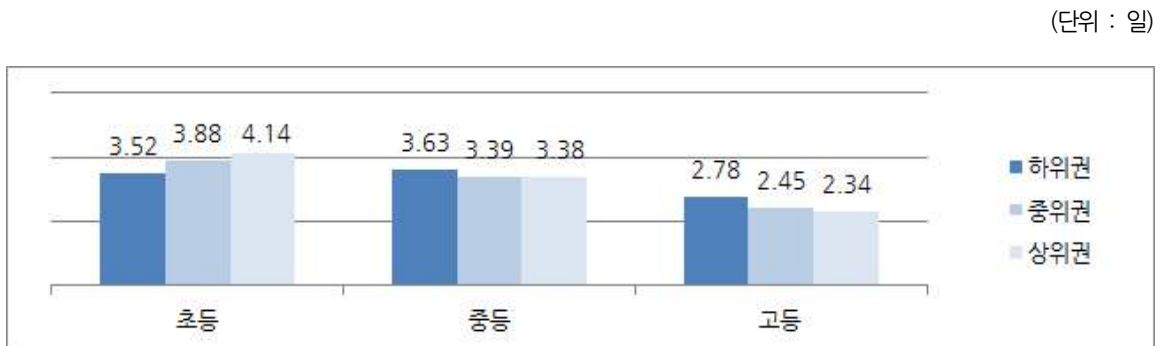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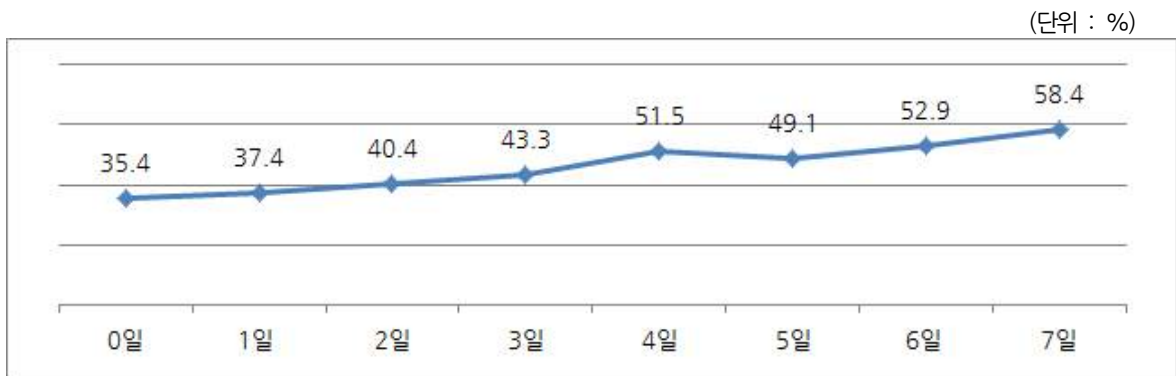
그림4-5. 학교성적 구분에 따른 주 단위 평균 운동일수



II. 운동수준과 학교생활

- 이 절에서는 운동수준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운동수준은 주 단위 운동일수 문항을 이용했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주 단위 운동일수가 증가할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6. 초등학생 : 주 단위 운동일수와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4-7. 중학생 : 주 단위 운동일수와 학교생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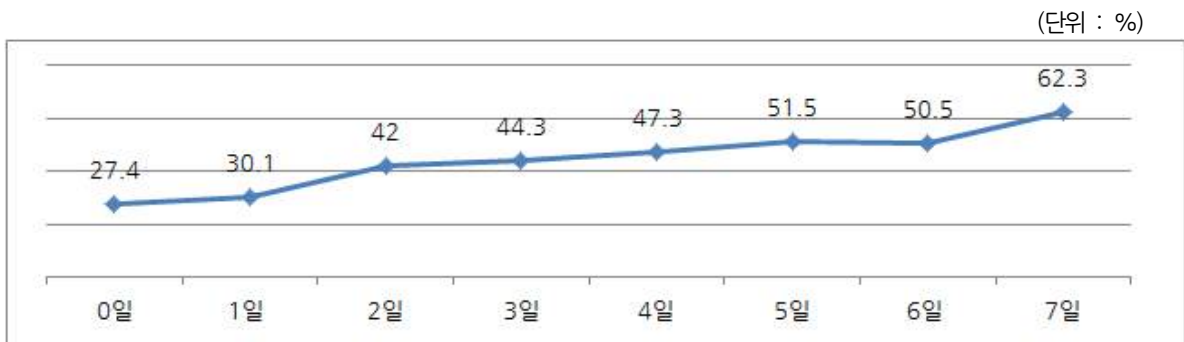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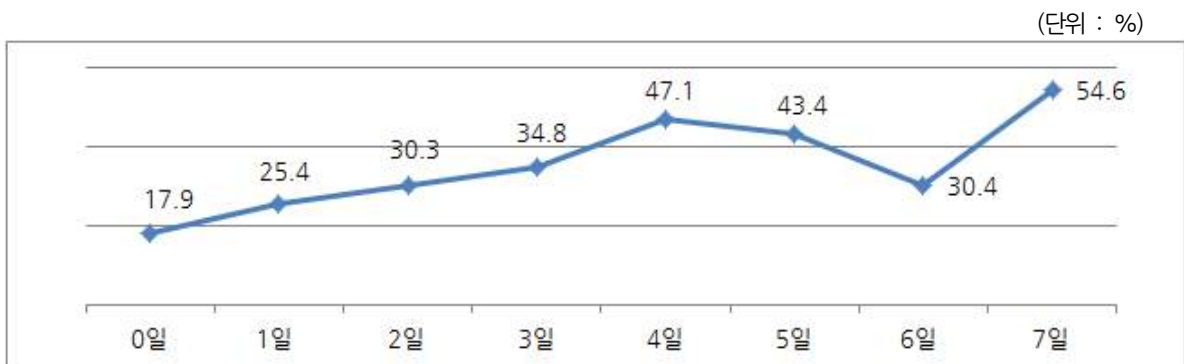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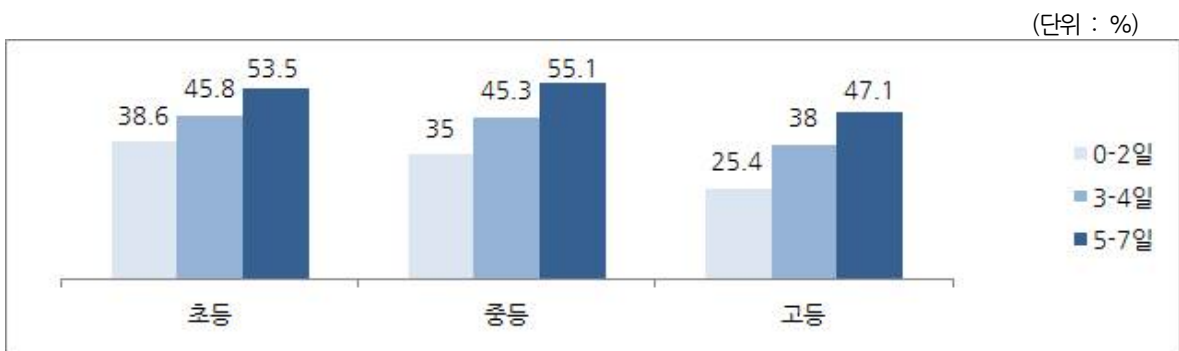


그림4-8. 고등학생 : 주 단위 운동일수와 학교생활 만족



- 또한, 주 단위 운동수준을 0-2일, 3-4일, 5-7일 등 3개 범주로 구분했을 때에도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운동수준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주 단위 운동일수가 5-7일 범주일때 학교생활 만족도가 47.1%로 0-2일과 비교해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그림4-9. 교급별 운동수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



- 한편, 운동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성별로 분석했을 때 교급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운동수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가 여학생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남학생 집단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4-10. 초등학생 : 성별에 따른 운동수준과 학교생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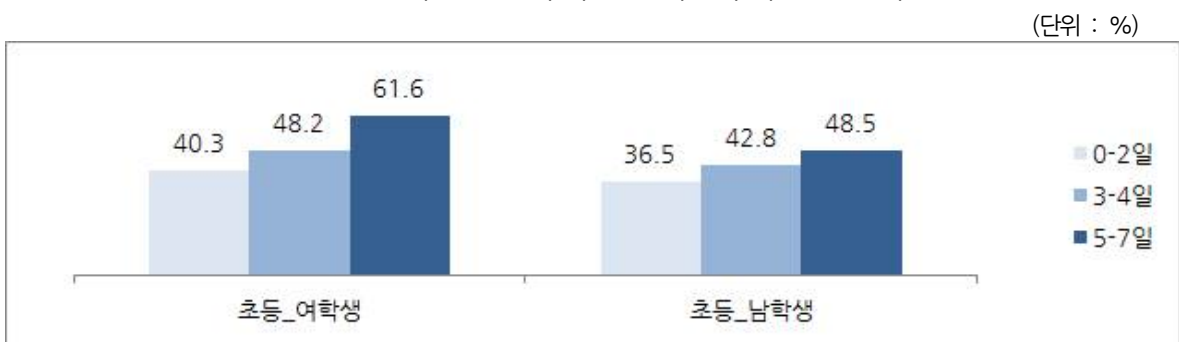


그림4-11. 중학생 : 성별에 따른 운동수준과 학교생활 만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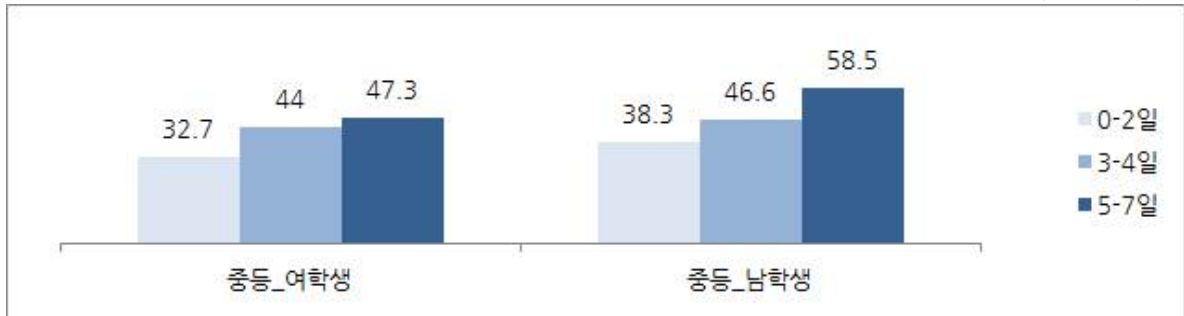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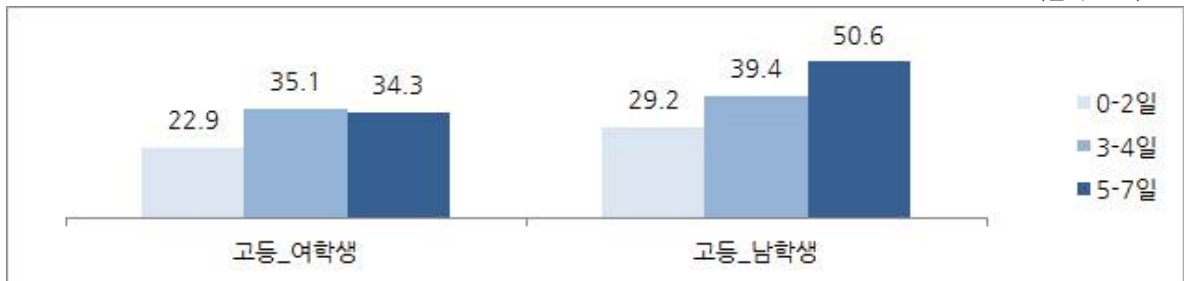


그림4-12. 고등학생 : 성별에 따른 운동수준과 학교생활 만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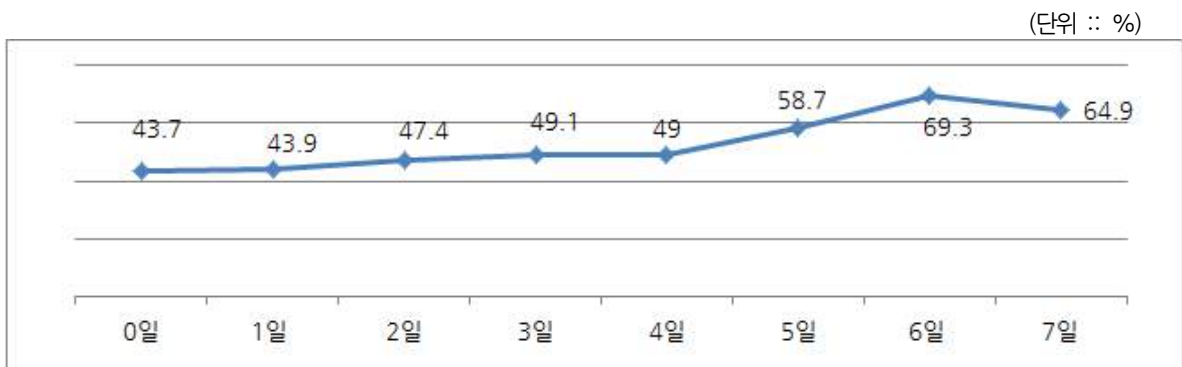


Ⅲ. 운동수준과 행복감

1. 운동수준과 주관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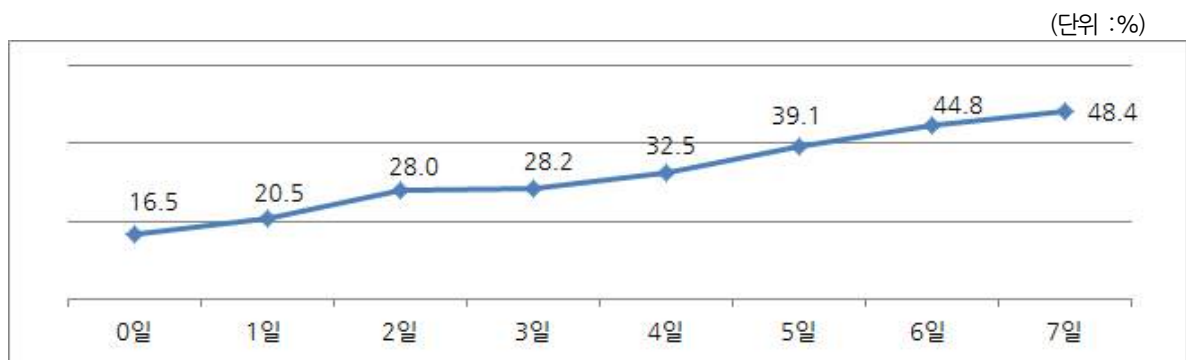
- 이 절에서는 운동수준에 따라 초등·중등·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운동수준은 주 단위 운동일수로, 주관적 행복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주관적 행복감은 운동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4-13. 초등학생 : 주 단위 운동일수와 주관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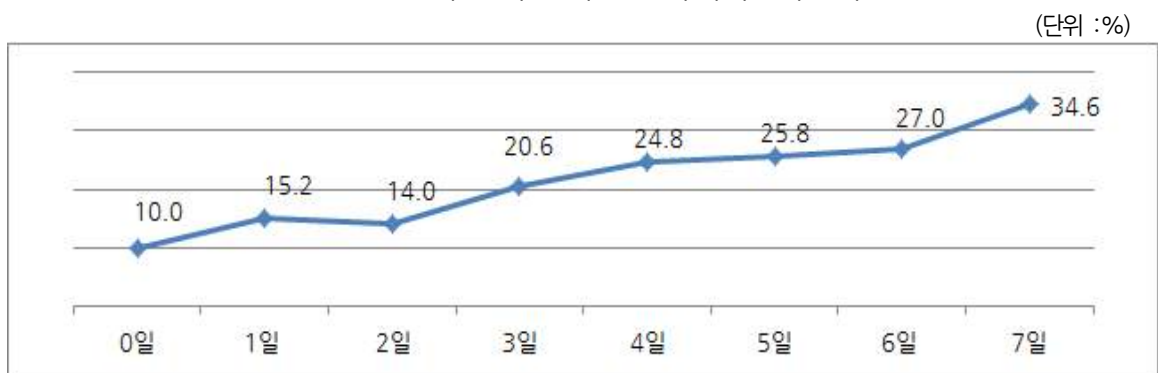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4-14. 중학생 : 주 단위 운동일수와 주관적 행복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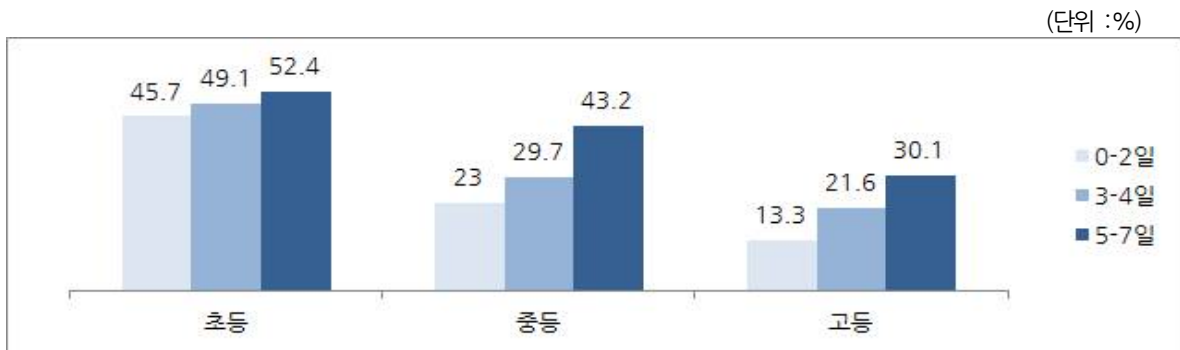
그림4-15. 고등학생 : 주 단위 운동일수와 주관적 행복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 또한, 운동수준을 0~2일, 3~4일, 5~7일 등 3개 범주로 구분해 분석했을 때에도 운동수준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운동수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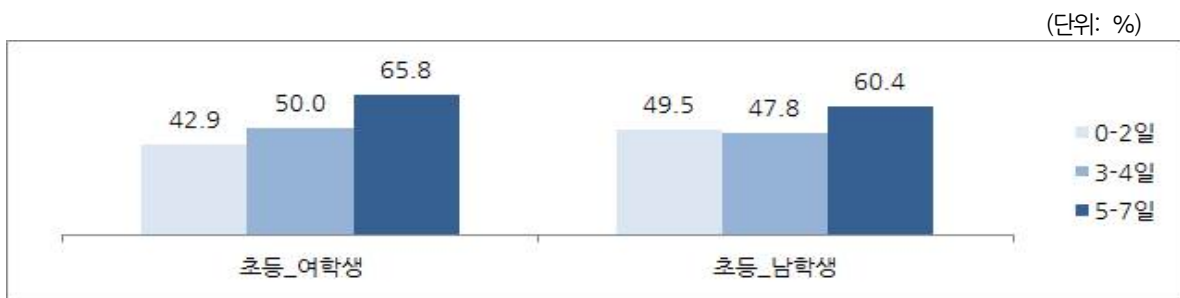
그림4-16. 교급별 운동수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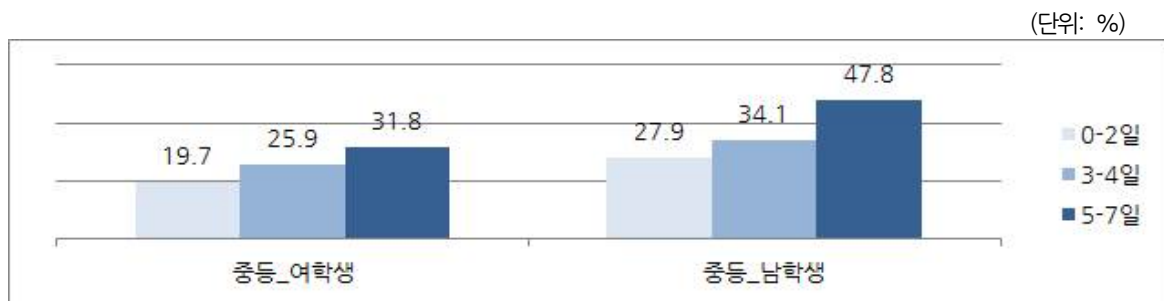
- 한편, 운동수준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볼 때 교급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여학생 집단에서 운동수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가 강하게 부각된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남학생 집단에서 이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4-17. 초등학생 : 성별 운동수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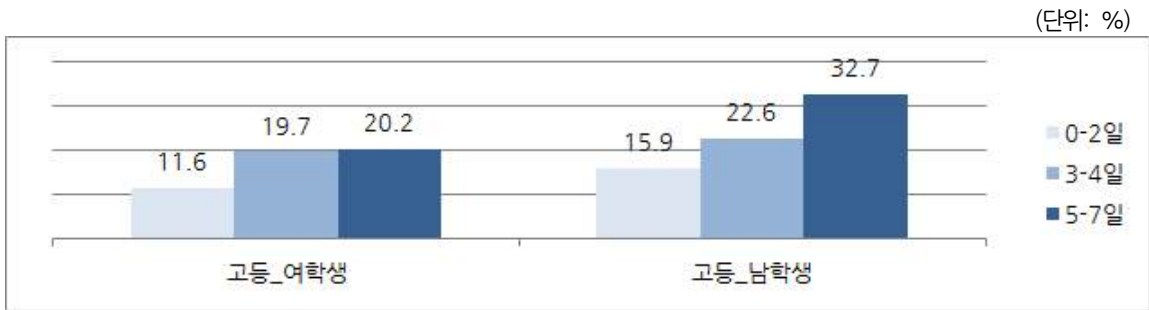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4-18. 중학생 : 성별 운동수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4-19. 고등학생 : 성별 운동수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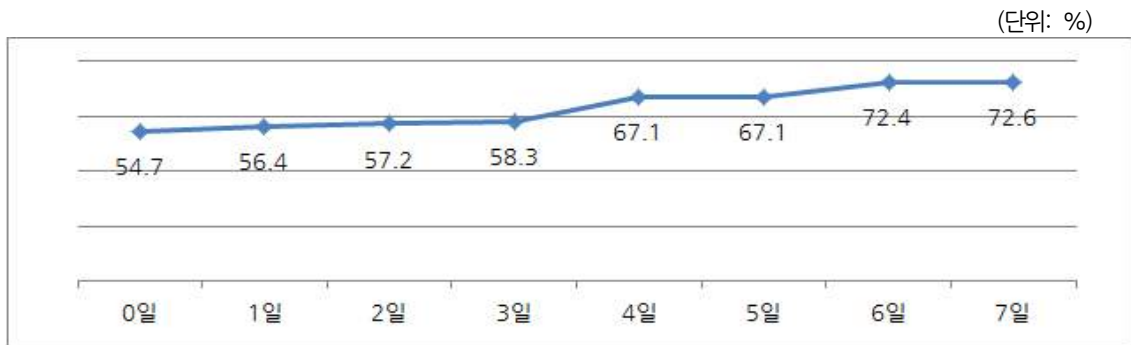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2. 운동수준과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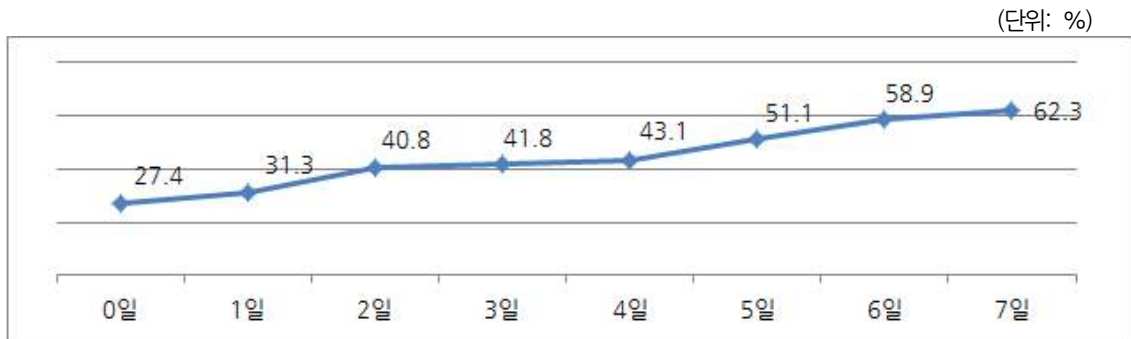
- 다음으로, 운동수준에 따라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운동수준은 주 단위 운동일수로,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생활만족도는 운동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4-20. 초등학생 : 주 단위 운동일수와 생활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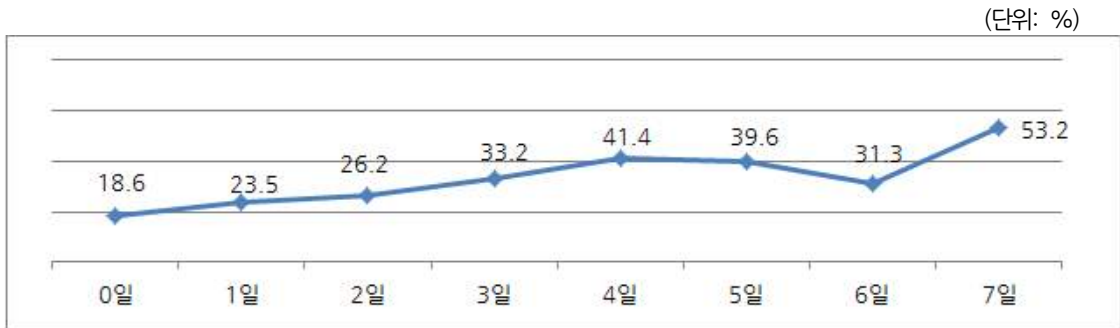
"내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4-21. 중학생 : 주 단위 운동일수와 생활만족



"내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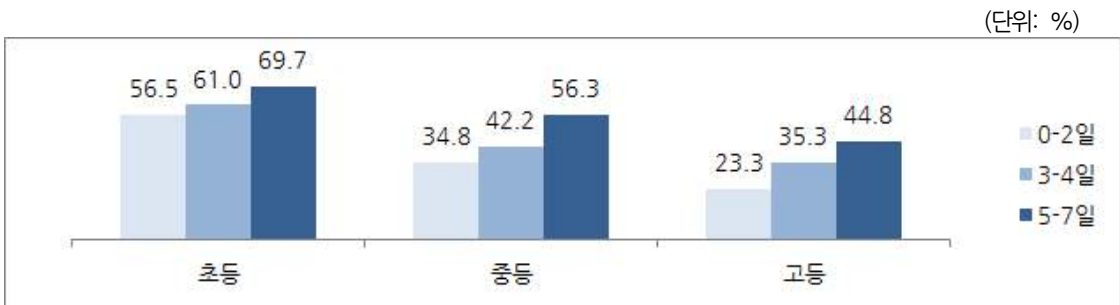
그림4-22. 고등학생 : 주 단위 운동일수와 생활만족



"내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 운동수준을 0-2일, 3-4일, 5-7일 등 3개 범주로 구분했을 때에도 운동수준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운동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4-23. 교급별 운동수준과 생활만족



- 한편, 운동수준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성별로 분석했을 때 교급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여학생 집단에서 운동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강하게 나타난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남학생 집단에서 이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4-24. 초등학생 : 성별 운동수준과 생활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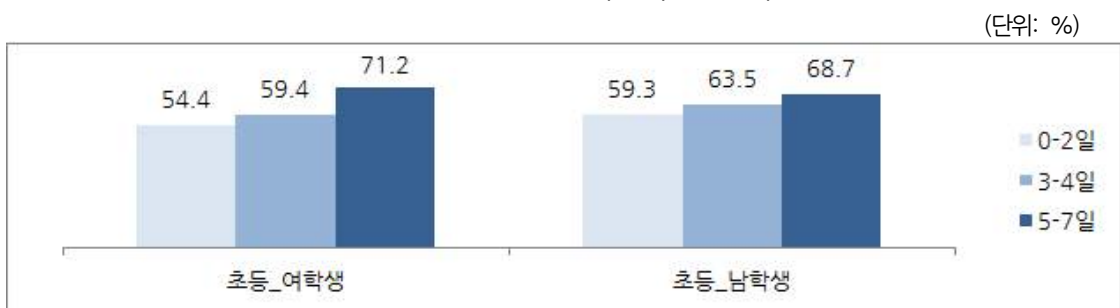


그림4-25. 중학생 : 성별 운동수준과 생활만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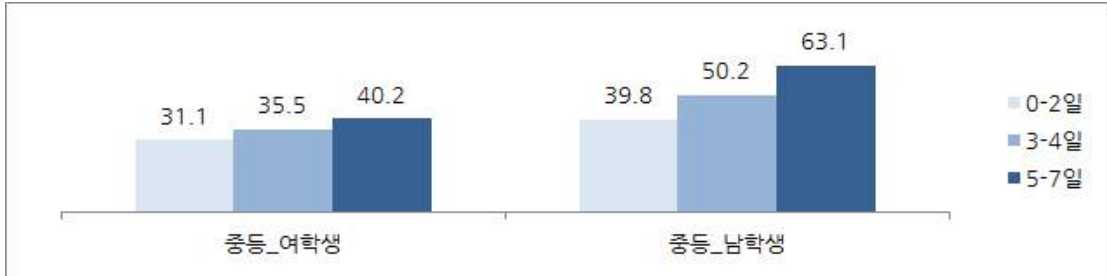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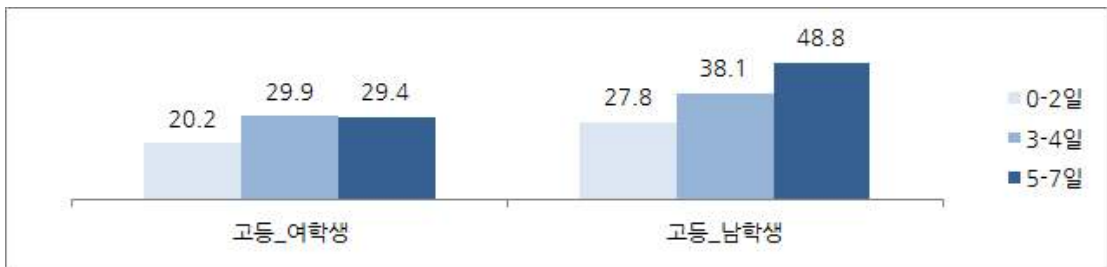


그림4-26. 고등학생 : 성별 운동수준과 생활만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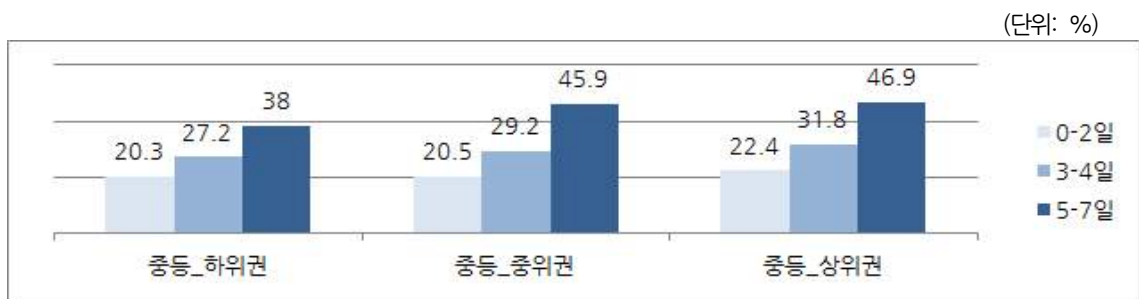


IV. 학교성적 구분에 따른 운동수준과 행복감

1. 성적 범주별 운동수준과 주관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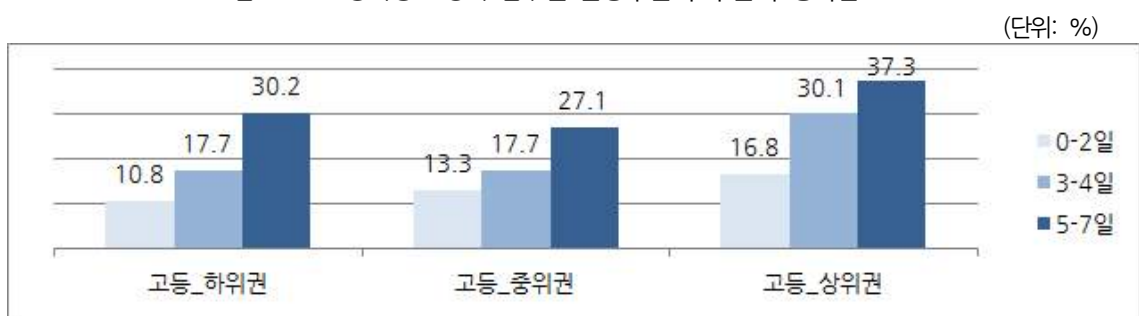
- 이 절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성적 범주에 따라 운동수준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학교성적은 하위, 중위, 상위 등 3개 범주로 구분했으며, 주관적 행복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주관적 행복감은 학교성적 범주에 관계없이 운동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성적은 하위권이지만 운동수준이 높다면 운동수준이 낮은 중위권·상위권 학생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27. 중학생 : 성적 범주별 운동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4-28. 고등학생 : 성적 범주별 운동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2. 성적 범주별 운동수준과 생활만족도

- 여기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성적 범주에 따라 운동수준과 생활만족도의 관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학교성적은 하위, 중위, 상위 등 3개 범주로 구분했으며,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생활만족도 역시 성적 범주에 관계없이 운동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성적은 하위권이지만 운동수준이 높다면 운동수준이 낮은 중위권·상위권 학생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29. 중학생 : 성적 범주별 운동수준과 생활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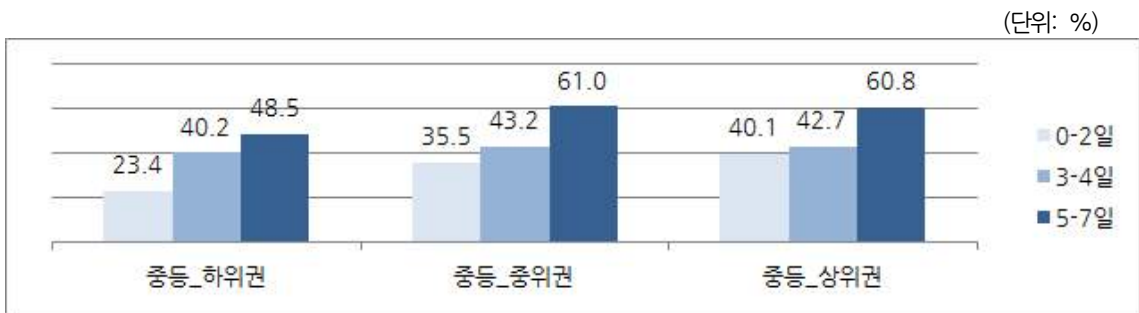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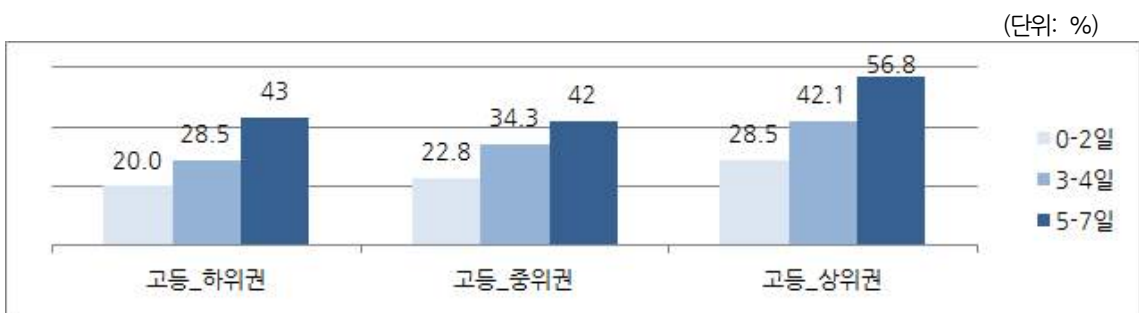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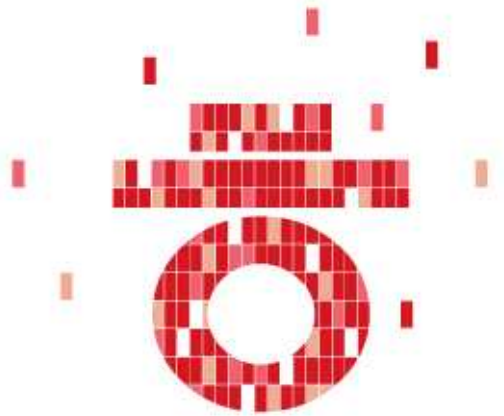


그림4-30. 고등학생 : 성적 범주별 운동수준과 생활만족



제5장 기출·자살충동 위험집단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심심하게 기쁨없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어린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기쁘게 해 주어야 그 마음과 몸이 활짝 커 가는 것입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I. 가출·자살충동 위험집단

1. 가출 및 자살충동 경험 비율

- 이 절에서는 초·중·고 학생의 가출충동과 자살충동 경험 비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약 25.5%가 가출충동 경험이 있었으며, 중학생은 이 비율이 31.3% 수준이었고, 고등학생은 34.5%로 가장 높았다.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초등학생의 가출충동 경험비율이 다른 교급과 달리,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5-1. 교급별 가출충동 경험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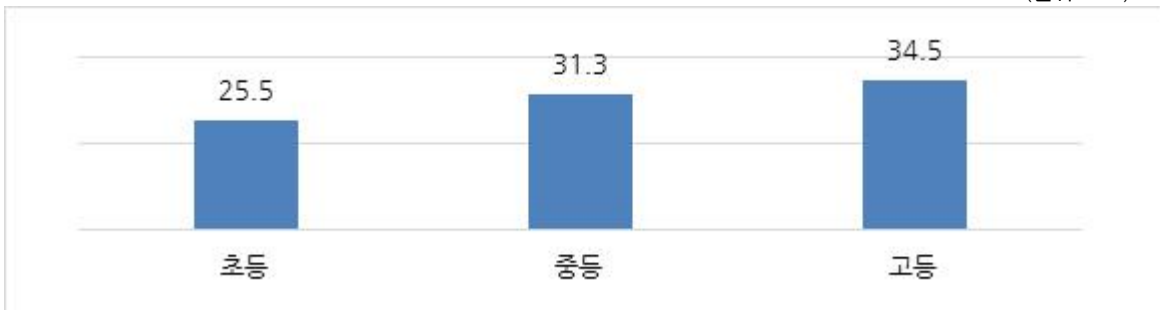


그림5-2. 초등학생 : 연도별 가출충동 경험 비율

(단위 : %)



그림5-3. 중학생 : 연도별 가출충동 경험 비율

(단위 : %)



그림5-4. 고등학생 : 연도별 가출충동 경험 비율

(단위 : %)



- 또한, 자살충동 경험 비율도 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생 약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 경험이 있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4명 중 1명 이상이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초등학생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이 다른 교급과 달리,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5-5. 교급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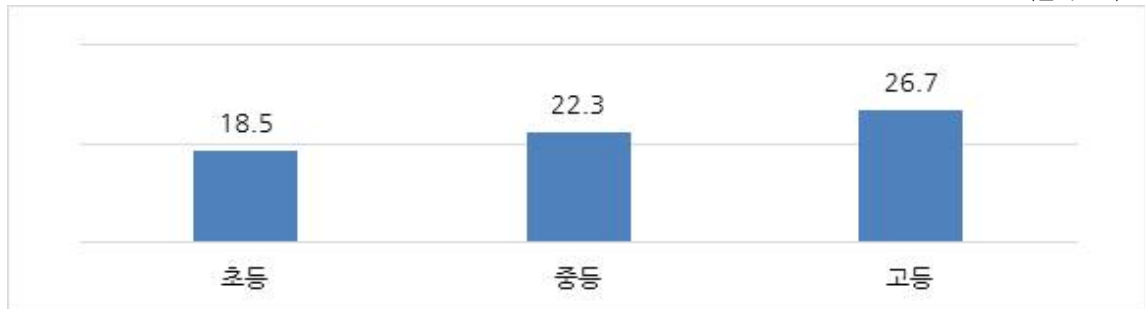


그림5-6. 초등학생 :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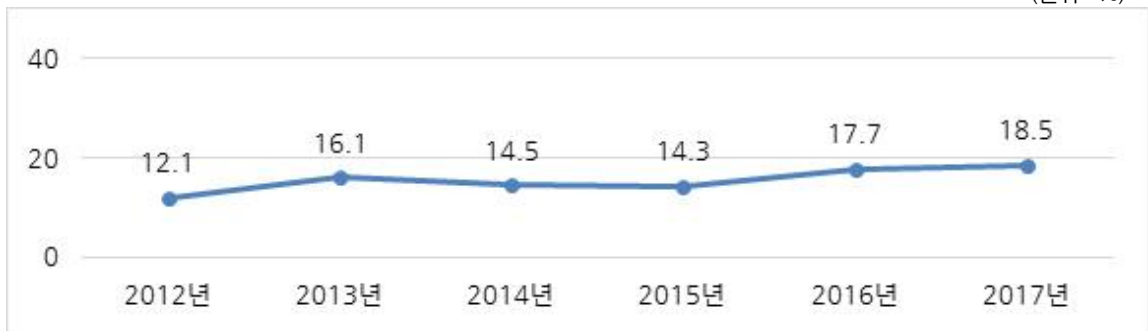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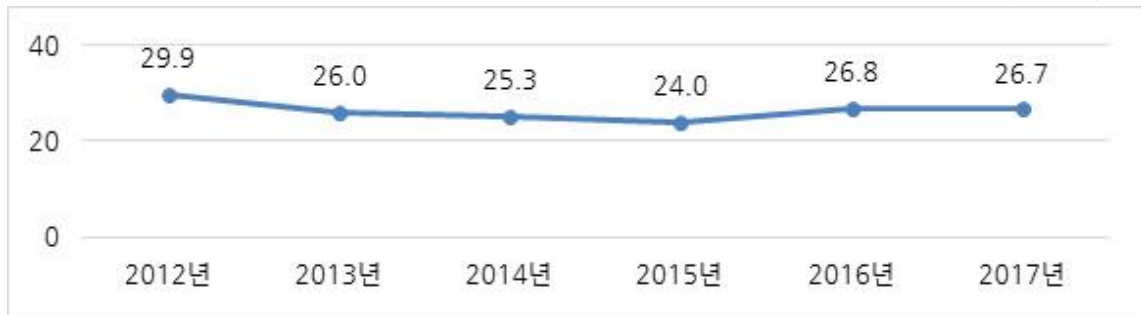
그림5-7. 중학생: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단위: %)



그림5-8. 고등학생: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단위: %)



2. 가출·자살충동 위험집단 구분

- 초·중고 학생이 가출충동을 경험한 빈도를 살펴보았다. 가출충동 경험 횟수가 3회 이상인 비율은 초등학생이 7.2%로 가장 낮았으며, 중학생은 8.6%, 고등학생은 9.5%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가출충동 경험 빈도가 3회 이상인 경우를 위험집단으로 구분했다. 가출충동 위험집단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7.4%로 여학생(7%)보다 소폭 높은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여학생이 각각 5.2% 포인트, 3% 포인트 높았다.

그림5-9. 초등학생 : 가출충동 경험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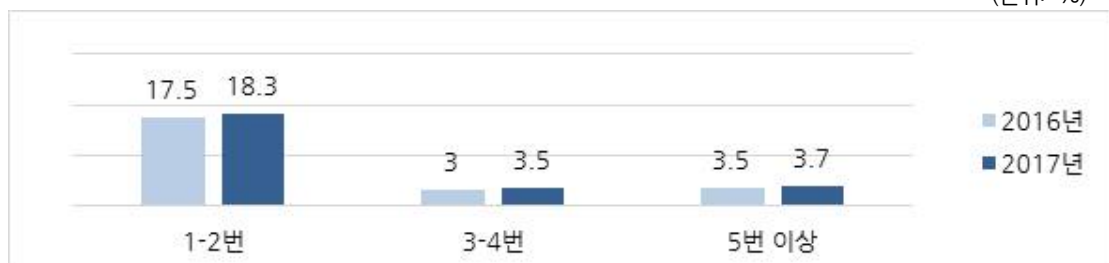


그림5-10. 중학생 : 가출충동 경험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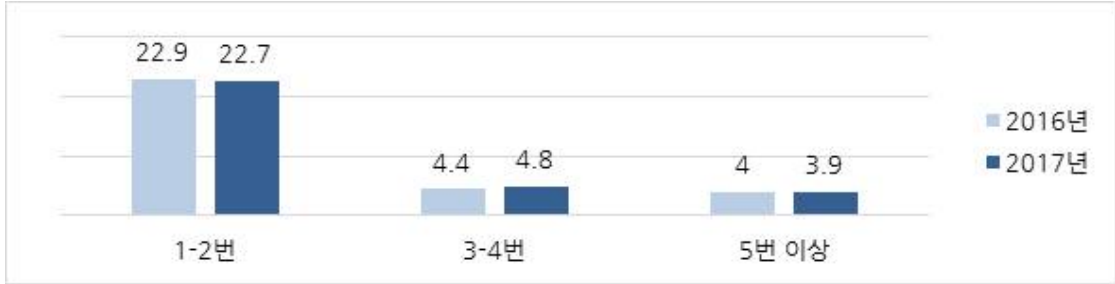


그림5-11. 고등학생 : 가출충동 경험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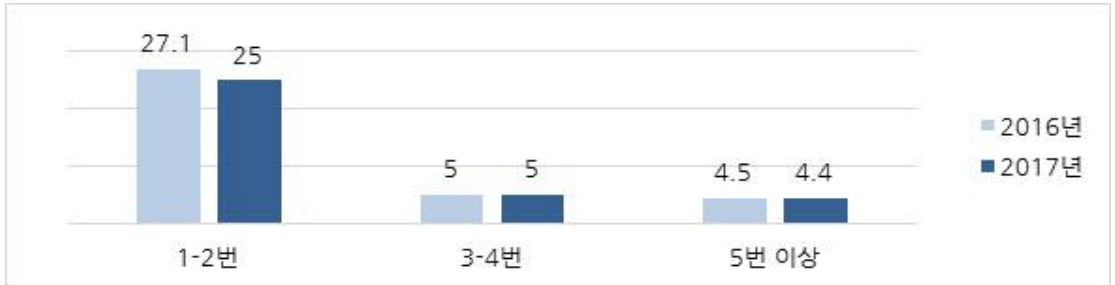


그림5-12. 교급/성별 가출충동 위험집단 비율

(단위: %)



- 또한, 자살충동을 경험한 비율도 교급별로 살펴보았다. 자살충동 경험 횟수가 3회 이상인 비율은 초등학생이 5.6%로 가장 낮았으며, 중학생은 6.5%, 고등학생은 9.1%로 가장 높았다. 여기서는 자살충동 경험 빈도가 3회 이상인 경우를 위험집단으로 구분했다. 자살충동 위험집단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비율이 교급에 상관없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여학생 위험집단 비율이 10.4%로 남학생(2.8%)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그림5-13. 초등학생 : 자살충동 경험 빈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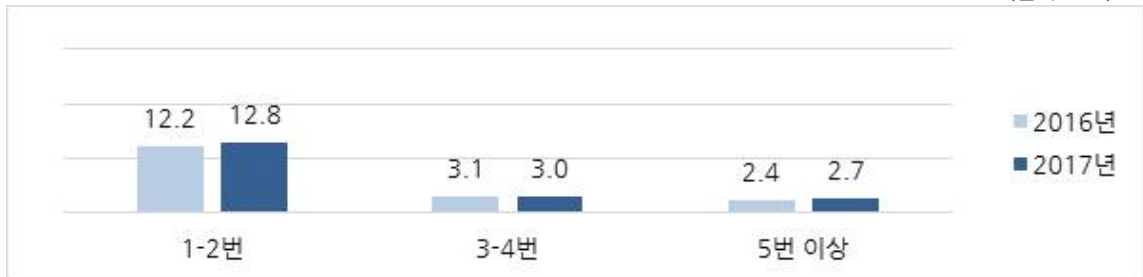


그림5-14. 중학생 : 자살충동 경험 빈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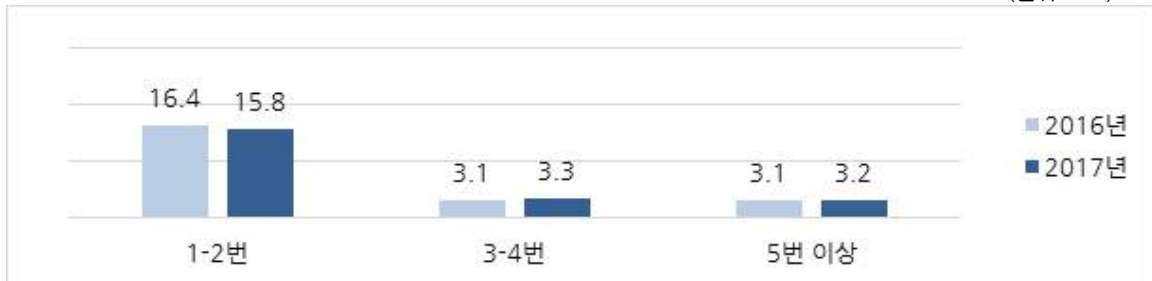


그림5-15. 고등학생 : 자살충동 경험 빈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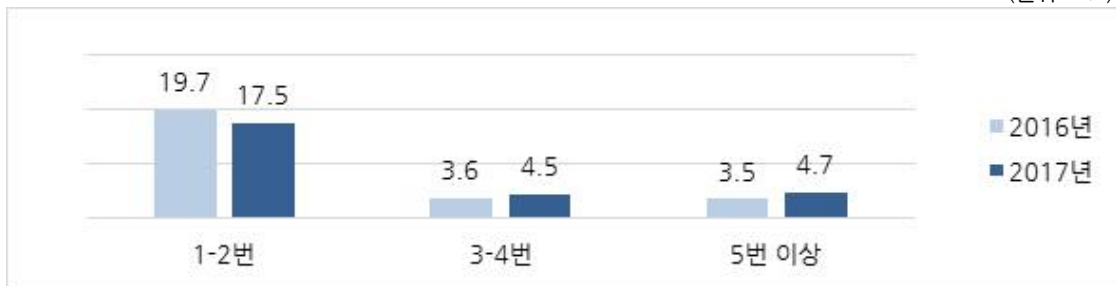


그림5-16. 교급/성별 자살충동 위험집단 비율

(단위 : %)



Ⅱ. 가출·자살충동 위험집단과 사회적 관계

1. 가출·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사회적 관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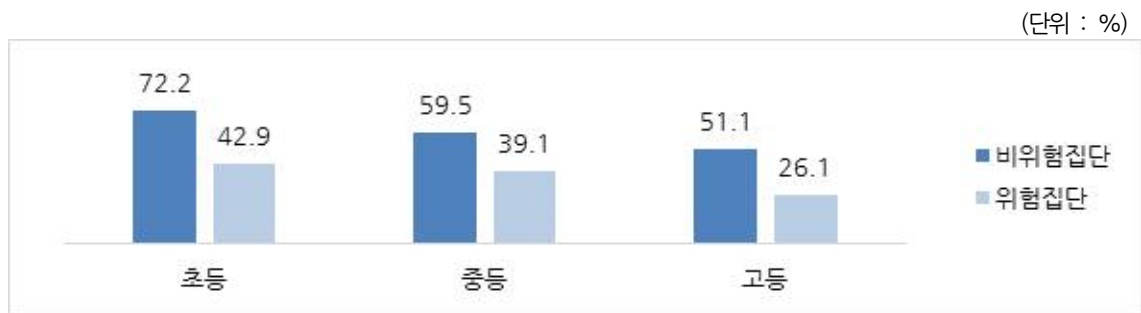
- 이 절에서는 가출 및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사회적 관계 수준이 비위험 집단과 비교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어머니관계, 아버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수준에 대한 위험 집단과 비위험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했다. 먼저, 어머니관계 수준을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을 때 이 비율은 교급에 상관없이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가출 및 자살충동 비위험집단의 어머니관계 수준은 70%를 넘는 한편 위험집단은 40대 초·중반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5-17.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어머니관계 수준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

그림5-19.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어머니관계 수준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

- 또한, 아버지관계 수준을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을 때 이 비율도 교급에 상관없이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가출 및 자살충동 비위험집단의 아버지관계는 약 57% 수준인 한편 위험집단은 30대 초·중반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5-20.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아버지관계 수준

(단위 : %)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

그림5-21.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아버지관계 수준

(단위 : %)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

- 친구관계 수준에서도 가출 및 자살충동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을 때 초등학생 집단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가출충동 비위험집단의 친구관계 수준은 49%인 한편 위험집단은 30.6% 수준이었다

그림5-22.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친구관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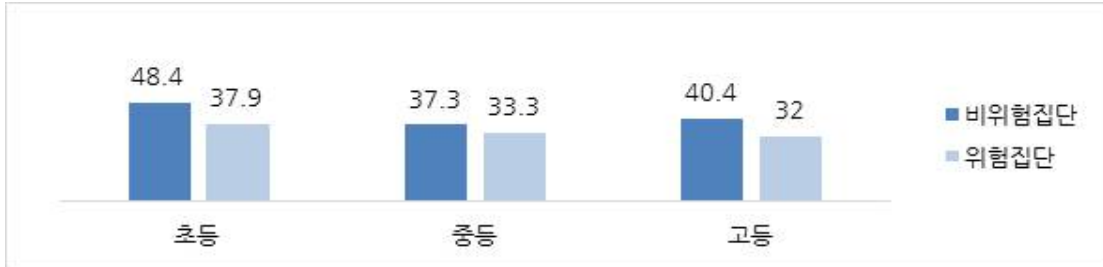
(단위 : %)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

그림5-23.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친구관계 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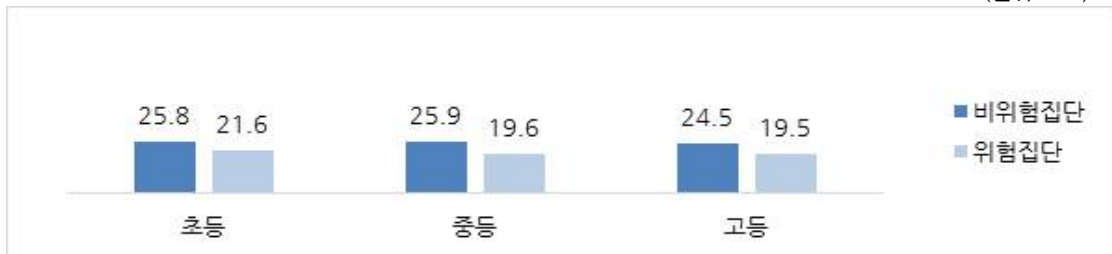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

- 다음으로, 교사관계 수준에서도 가출 및 자살충동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나는 학교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을 때 가출충동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이 교사관계 수준에서 약 5%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자살충동의 경우 중학생 집단에서 이러한 차이가 2배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5-24.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교사관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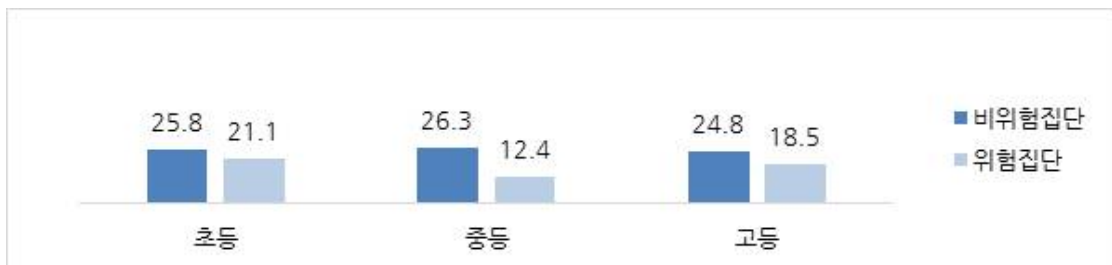
(단위 : %)



"나는 학교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

그림5-25.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교사관계 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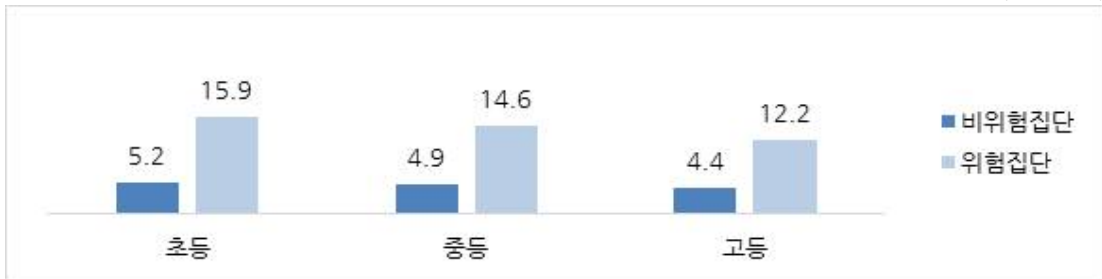
"나는 학교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

2. 가출·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정서적 지지망 유무

- 이 절에서는 가출 및 자살충동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을 구분해 정서적 지지망 유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서적 지지망의 부재를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을 때 이 비율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정서적 지지망이 없는 비율이 가출충동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에서 교급에 상관없이 약 3배 차이를 보였다.

그림5-26.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정서적 지지망 부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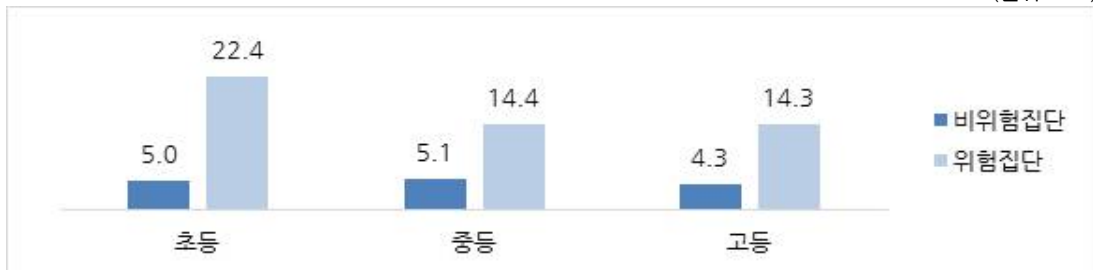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질문에 "없다"고 응답

- 다음으로, 자살충동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의 정서적 지지망 부재 비율을 살펴봤을 때 두 집단이 약 3-4배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초등학교 위험집단 중 정서적 지지망이 없는 비율은 22.4%로 비위험집단과 비교해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그림5-27.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정서적 지지망 부재

(단위 : %)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질문에 "없다"고 응답

Ⅲ. 가출자살충동 위험집단과 행복감

- 이 절에서는 가출 및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행복감이 비위험 집단과 비교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주관적 행복감, 삶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비교했다. 먼저, 주관적 행복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질문에 대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이 비율은 교급에 상관없이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이 약 3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28. 교급별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주관적 행복감

(단위 : %)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5-29. 교급별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주관적 행복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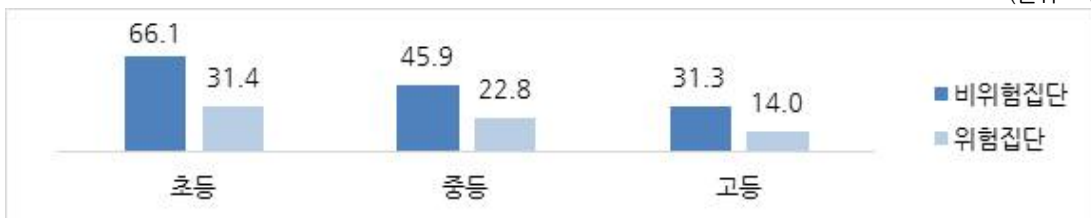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 또한, 생활만족도에서도 가출 및 자살충동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이 큰 차이를 보였다. 생활만족도를 "내 삶에 만족한다"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을 때 이 비율은 두 집단간에 2-3배 차이를 보였다.

그림5-30. 교급별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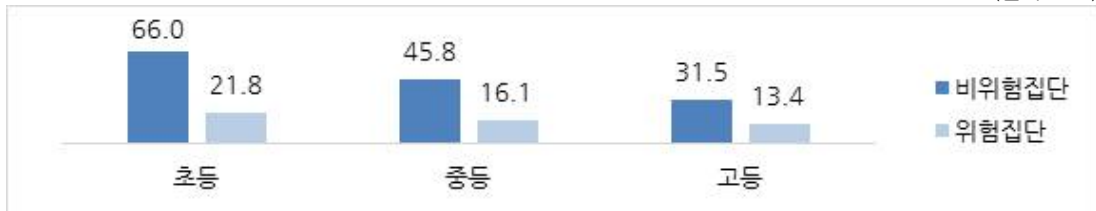
(단위 : %)



"내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5-31. 교급별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생활만족도

(단위 : %)



"내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 학교생활 측면에서도 자살충동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이 큰 차이를 보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를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했을 때 이 비율은 두 집단 간에 약 1.5-2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학생 자살충동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각각 22.2%, 46.2%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그림5-32. 교급별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학교생활 만족

(단위 : %)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5-33. 교급별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학교생활 만족

(단위 : %)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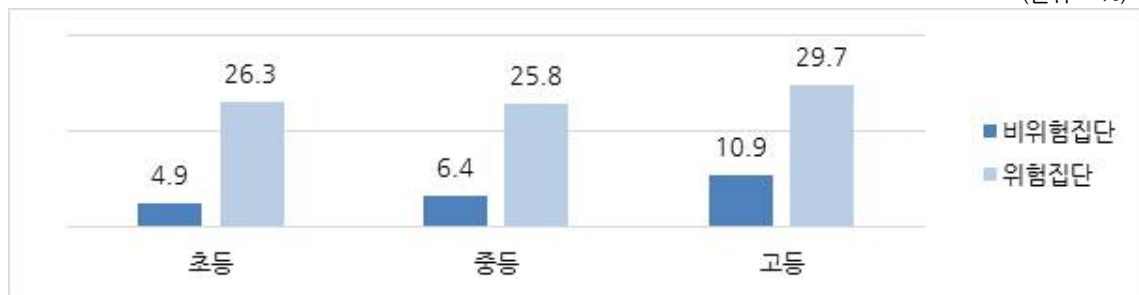
IV. 가출·자살충동 위험집단과 스트레스 경험

1. 공부·성적 스트레스

- 공부나 학교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비율에서도 가출 및 자살충동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이 큰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공부 스트레스 경험을 "공부가 지겨워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했을 때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이 전반적으로 약 3-6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공부 스트레스 경험 비율은 31.2%로, 비위험집단(4.9%)에 비해 6배 이상 높았으며, 중학생도 비위험집단과 위험집단이 각각 6.3%, 32.3%로 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그림5-34.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공부 스트레스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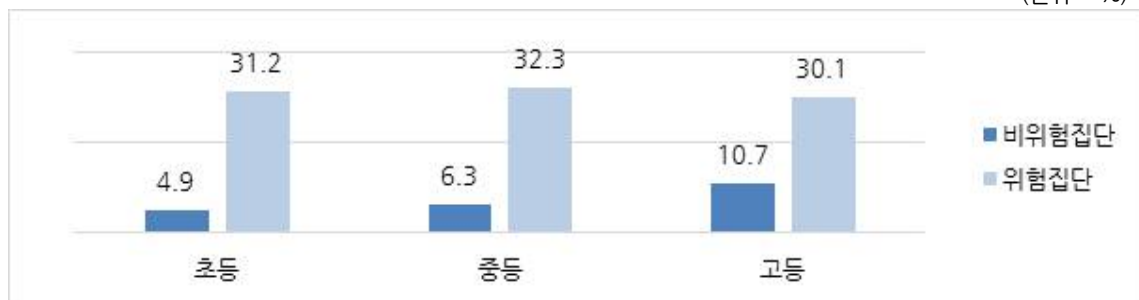
(단위 : %)



"공부가 지겨워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

그림5-35.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공부 스트레스 경험

(단위 : %)



"공부가 지겨워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

- 또한, 학교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비율도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이 약 2.5-4배 차이를 보였다. 학교성적 스트레스 경험을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했을 때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16.4%로 비위험집단(4%)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그림5-36.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학교성적 스트레스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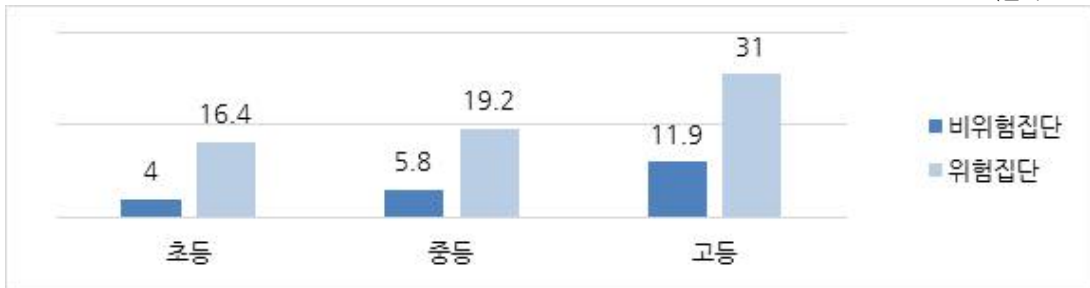
(단위 : %)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

그림5-37.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학교성적 스트레스 경험

(단위 : %)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

2. 외모 스트레스

- 얼굴 생김새나 몸무게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에서도 가출 및 자살충동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이 큰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얼굴 스트레스 경험을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했을 때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이 전반적으로

그림5-38.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얼굴 스트레스 경험

(단위 : %)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

로 3-6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얼굴 스트레스 경험 비율은 19.4%로, 비위험집단(2.9%)에 비해 6배 이상 높았으며, 중학생도 비위험집단과 위험집단이 각각 4.1%, 15.9%로 약 4배 차이를 보였다.

그림5-39.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얼굴 스트레스 경험

(단위 : %)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

- 또한, 몸무게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비율에서도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이 약 2.5-5배 차이를 보였다. 몸무게 스트레스 경험을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했을 때 특히 초등학생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관련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28.7%로 비위험집단(6.1%)에 비해 5배 가까이 높았다

그림5-40.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몸무게 스트레스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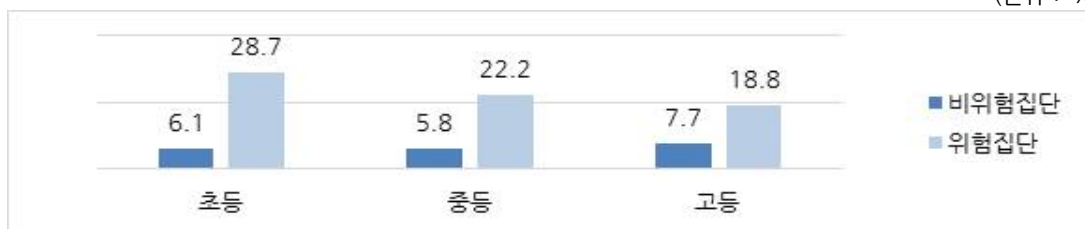
(단위 : %)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

그림5-41.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몸무게 스트레스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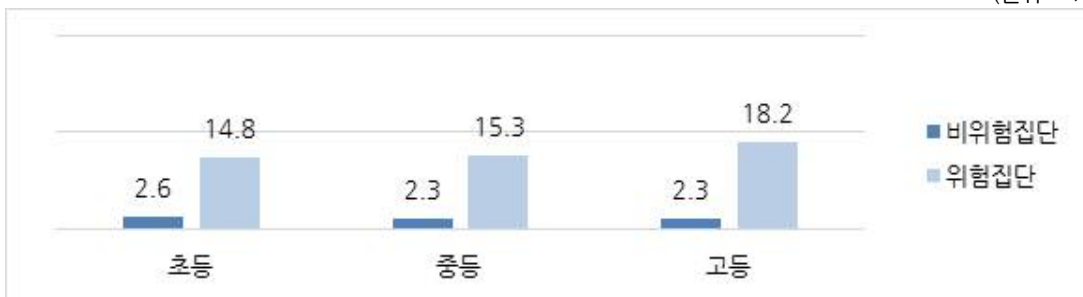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

3. 용돈·소비 관련 스트레스

- 용돈이나 소비 관련 스트레스 경험 비율에서도 자살충동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이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용돈 스트레스 경험을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했을 때 두 집단이 무려 6-8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초등학생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용돈 스트레스 경험비율이 18.9%로 비위험집단(2.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5-42.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용돈 스트레스 경험

(단위 : %)



"용돈이 부족해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

그림5-43.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용돈 스트레스 경험

(단위 : %)



"용돈이 부족해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

- 소비 관련 스트레스 경험 비율에서도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이 약 4-6배 차이를 보였다. 소비 관련 스트레스 경험을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했을 때 특히 초등학생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관련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20.6%로 비위험집단(3.5%)에 비해 약 6배 높았다.

그림5-44. 가출충동 위험집단의 소비 관련 스트레스 경험

(단위 : %)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

그림5-45.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소비 관련 스트레스 경험

(단위 : %)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

제6장 온·오프라인 친구관계와 삶의 질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히십시오. 어린이에게는 되도록 다달이 나는 소년잡지를 읽히십시오. 그래야 생각이 넓고 커짐은 물론이요, 또한 부드럽고도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나 과자를 사 주지 말고 반드시 잡지를 사 주도록 하십시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I.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친구관계

1. 오프라인 친구관계와 온라인 친구 관계

- SNS, 게임 등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주 사용됨에 따라 친한 친구들과 온라인 상에서도 자주 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현상과 함께, 비록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거나 혹은 심지어 잘 모르는 친구이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친구들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전에, 전통적으로 규정되어온 친구관계와는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이 장에서는 중, 고등학생의 친구관계를 온라인 상에서의 친구관계와 오프라인 상에서의 친구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친구를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하여 각 영역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표6-1. 온라인 상에서의 상호작용에 따른 친구의 유형 분류

	아주 친한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친구
온라인 상에서 자주 접촉	1. 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	3. 온라인 위주형 친구
온라인 상에서 자주 접촉하지 않음	2. 오프라인 위주형 친구	-

*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온라인 상에서 접촉한 경우 자주 접촉한 것으로 간주함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친구 관계를 두 개의 기준을 사용하여 구분을 하였다. 첫 번째 기준은 위 표의 가로축을 이루는 ‘아주 친한 친구’에 속하는지의 여부이다. 본 설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자들의 ‘아주 친한 친구’에 대해서 물었다.

아주 친한 친구란 학교친구, 학원친구, 동네친구들 중에서 평소 매우 자주 어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으면 5명 정도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는 몇 명 인가요?

- 본 연구에서는 가장 친한 최대 5명의 ‘아주 친한 친구’들에 대해서 온라인(SNS, 게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 상에서 얼마나 자주 접촉을 하는지,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접촉을 하는 하루를 생각할 때 하루 평균 얼마나 오래 접촉을 하는지를 추가로 설문을 하였다. 이 설문을 바탕으로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온라인 상에서 대화나 게임 등의 활동을 하는 날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되는 친구들은 ‘아주 친한 친구’ 중에서도 온라인 상에서의 상호작용이 잦은 친구(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아주 친한 친구’이지만 온라인 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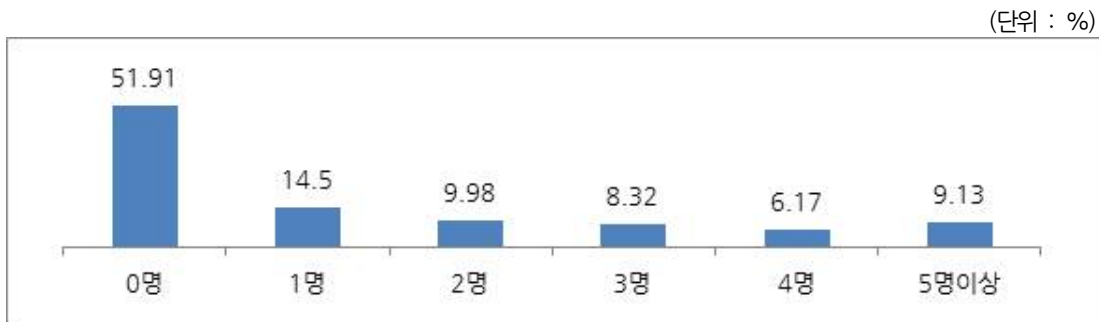
는 자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친구 (오프라인 위주형 친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친구 중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상호작용이 잦은 경우에 온라인 위주형 친구로 구분하였다.

- 이 절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친구관계를 위 표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각각의 친구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학생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친구들과의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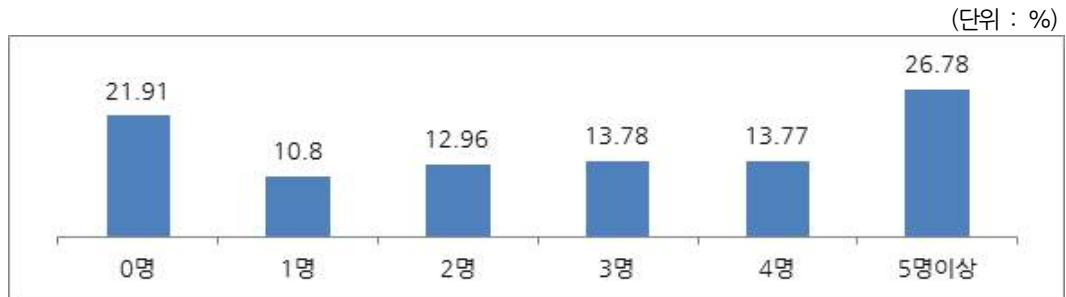
-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가장 친한 친구 최대 다섯 명 중에서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상호작용을 하는 친구 수의 분포는 다음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6-1. 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의 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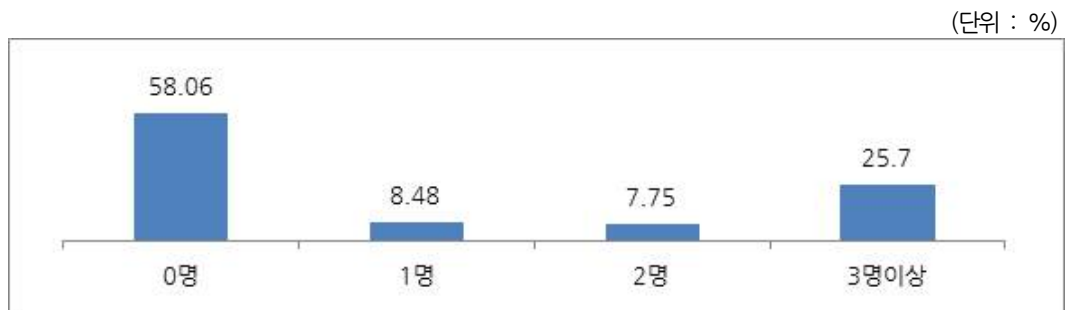
-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많은 학생들이 오프라인 상에서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만 이 친구들과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한 시간씩 온라인 상에서 상호작용을 할 정도로 온라인 상에서 자주 접촉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는 5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다음 그래프는 친한 친구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자주 접촉하지 않는 오프라인 위주형 친구들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6-2. 오프라인 위주형 친구의 수 분포



- 마지막으로 실제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닌데, 온라인 상에서는 자주 소통을 하는 친구들의 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종류의 친구들 같은 경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친구 관계를 나타내는데,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친한 친구 관계는 아니지만 SNS, 게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친구들을 의미한다.

그림6-3. 온라인 위주형 친구의 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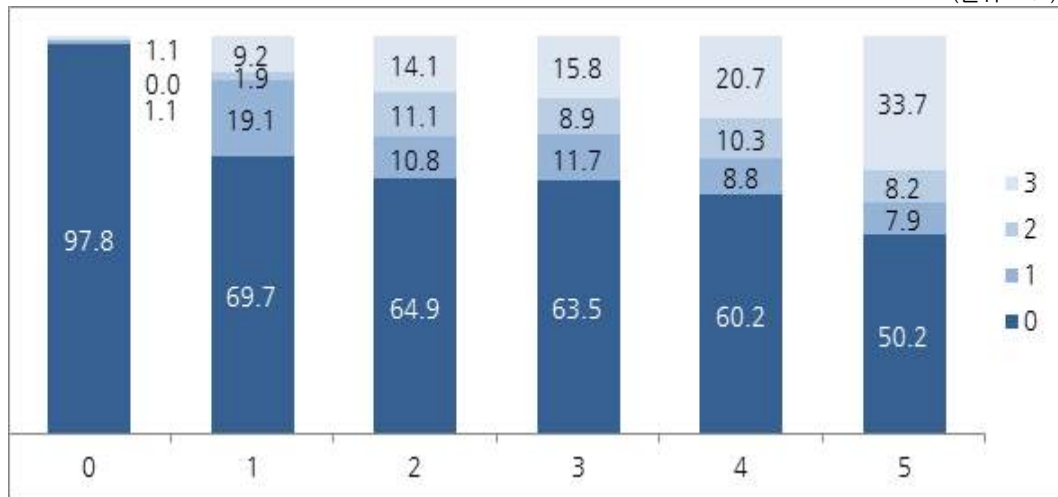


- 온라인 위주의 친구가 한 명도 없는 학생들이 58% 정도 되었고, 1명인 경우가 8.48%, 2명인 경우가 7.75%, 3명 이상인 경우가 25.7%를 보였다.
- 그렇다면 아주 친한 친구의 수와 온라인 위주형 친구의 수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그래프는 아주 친한 친구가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위주형 친구의 수도 많은 것을 보여준다. 아주 친한 친구가 0명일 때에는 온라인 위주형 친구의 수도 0명인 학생들이 대부분(97.9%)을 이루었다. 아주 친한 친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온라인 위주로 소통을 하는 친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의 친구관계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전통적인 친구관계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

려가 있는데, 적어도 한국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두 종류의 친구 관계가 상호 대체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6-4. 아주 친한 친구의 수에 따른 온라인 위주형 친구 수 분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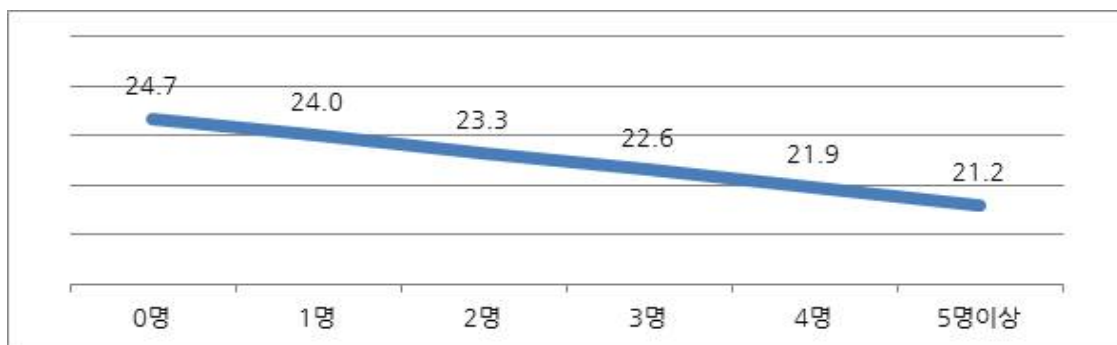
II. 온·오프라인 친구관계와 삶의 질

1. 친구 유형에 따른 자살충동과의 상관관계

- 이어지는 세 개 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종류의 친구가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자살 충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자살원인 통계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빈번한 것이 바로 자살로서, 이들의 자살 충동은 한국 중고등학생의 삶에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나 적절한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살 충동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제이기 때문에 친구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각 종류의 친구 수에 따라 자 충동을 느낄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이 그래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연령과 성별을 통제 한 상태에서 해당되는 종류의 친구 수에 따라 자살 충동을 느꼈을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나타낸 것이다.
- 첫 번째 그래프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 수에 따른 자살 충동 확률 차이를 나타낸다. 온라인 상에서도 활발히 상호작용을 하는 아주 친한 친구 수가 증가할수록 자살 충동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0명일 때는 24.7%에 달하는 반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1.2%까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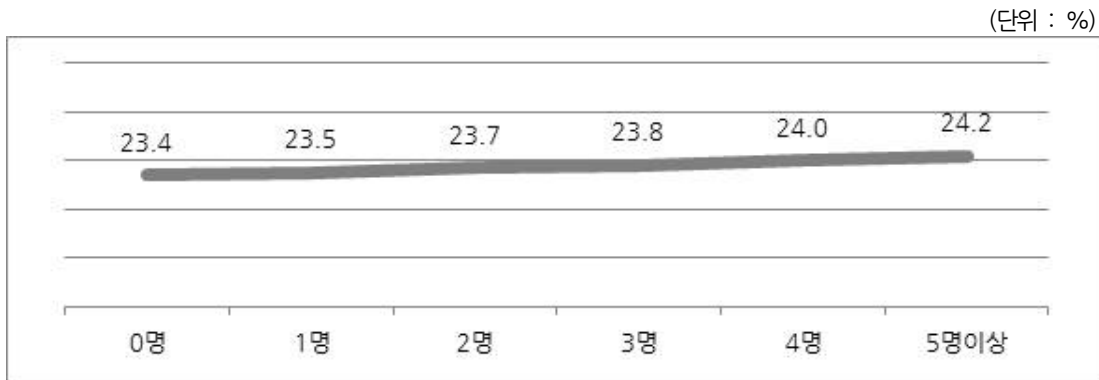
그림6-5. 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 수에 따른 자살 충동 확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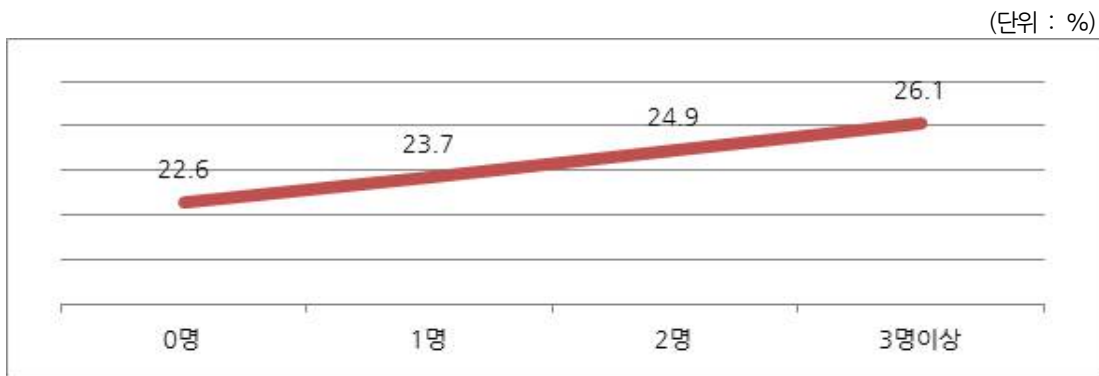
- 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오프라인 위주형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살 충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래프는 친한 친구 중에서 온라인 상에서는 활발히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친구들의 수에 따른 자살 충동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0명일 때와 5명 이상일 때에 차이가 0.8% 포인트밖에 나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6-6. 오프라인 위주형 친구 수에 따른 자살 충동 확률



- 흥미로운 차이는 온라인 위주형 친구 수에 따른 차이에서 발견되었다. 아주 친한 친구인데 온라인 상에서 자주 상호작용을 하는 친구의 경우 그 수가 증가할수록 자살 충동 확률이 감소했던 것과 반대로, 온라인 위주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 부류의 친구의 경우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살 충동을 경험했을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7. 온라인 위주형 친구 수에 따른 자살 충동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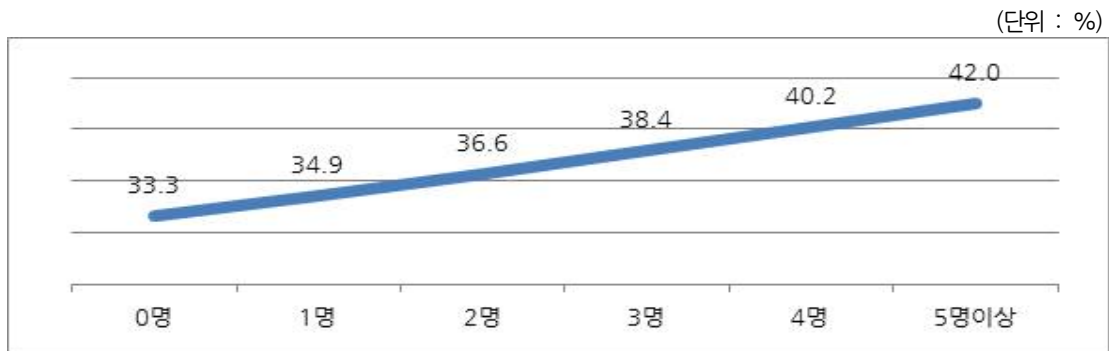


2. 친구 유형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 앞에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로 다른 유형의 친구는 자살 충동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나의 삶에 만족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전체 중 36.3%였는데, 자신의 삶에 만족할 확률은 친구 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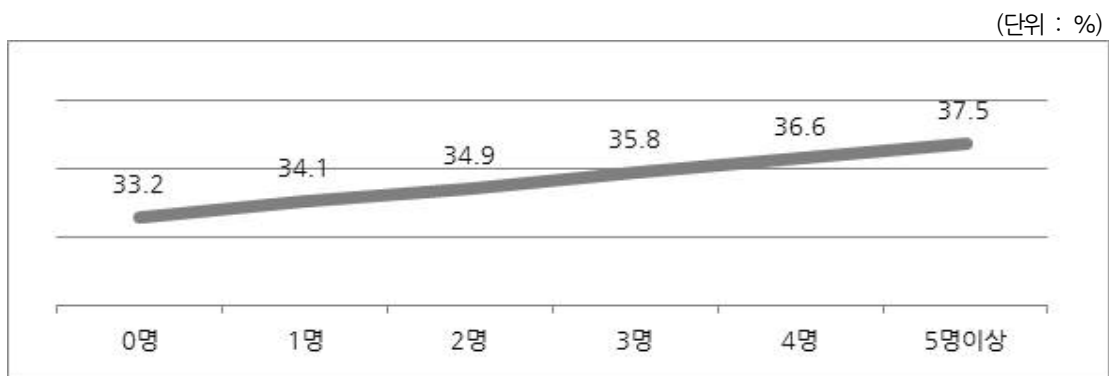
- 첫 번째로 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할 확률은 거의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0명일 때에는 33.3%에 불과했지만 5명 이상인 학생들의 경우 42%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6-8. 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 수에 따른 삶에 만족할 확률



- 오프라인 위주형 친구들의 경우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삶에 매우 만족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했으나, 그 경향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상호작용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처럼 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략 4%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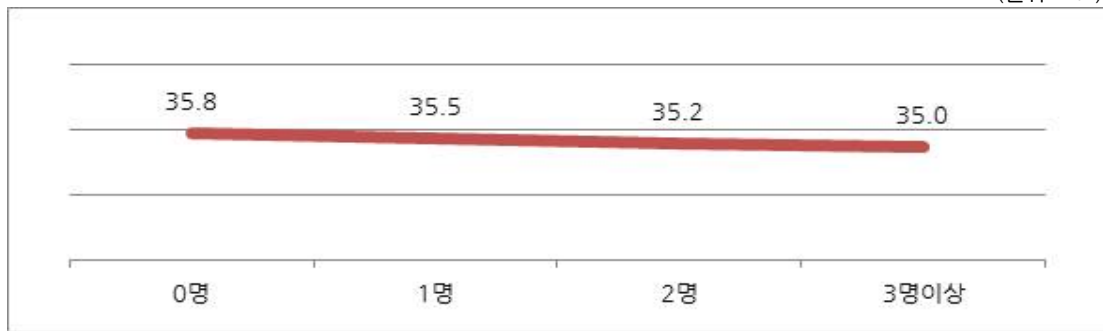
그림6-9. 오프라인 위주형 친구 수에 따른 삶에 만족할 확률



- 친한 친구가 아닌데 온라인 상에서만 활발히 상호작용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삶에 매우 만족할 확률에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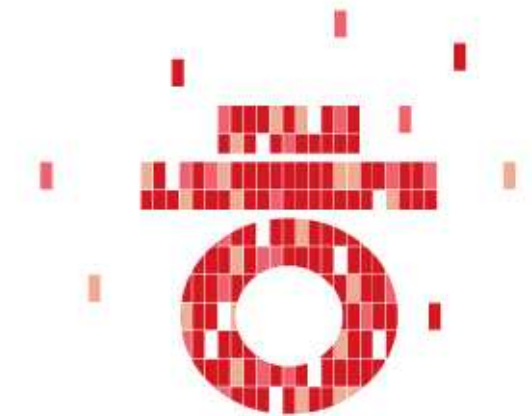
그림6-10. 온라인 위주형 친구 수에 따른 삶에 만족할 확률

(단위 : %)



- 자살 충동 및 삶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 세 종류의 친구 관계가 이처럼 상이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이 세 종류의 친구 관계가 서로 다른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온오프라인 혼합형 친구들의 경우 중고등학생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반면 오프라인 위주형 친구들은 그보다는 조금 약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위주형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자살 충동이 증가하는 식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친구관계는 오프라인 상에서 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친구들이므로 볼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만 활발히 상호작용을 하는 온라인 위주의 친구들 같은 경우 삶의 질에 별 영향을 주지 못 하거나 오히려 그 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것으로까지 나타났다.

부록1. 설문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집안의 어린이가 무엇을 즐기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해 가나,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해 보아 주십시오. 평상시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잘못된 뒤에 야단을 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부모들의 큰 잘못입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문1. 집에 책이 모두 몇 권 있나요?
(만화책, 잡지책, 참고서 제외)

- 1) 1~10권
- 2) 11~25권
- 3) 26~100권
- 4) 101~200권
- 5) 201~500권
- 6) 501권 이상
- 7) 전혀 없다

문2. 집에 '컴퓨터'는 모두 몇 대 있나요?
(노트북, 넷북, PDA 등 포함)

- 1) 1대
- 2) 2대
- 3) 3대 이상
- 4) 없다

문3.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또는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이 있나요?

- 1) 있다
- 2) 없다 (→문4로)

문3a.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나요?

이용 시간 : 하루 평균 시간 분

문3b.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를 쓰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응답칸

-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전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문3c.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1) 전화통화
- 2)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포함)
- 3) 게임
- 4) 학습
- 5) 웹 검색(교통, 뉴스, 날씨 등)
- 6) 동영상 시청
- 7)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 8) 기타 _____

■ 다음 질문은 아주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아주 친한 친구란 학교친구, 학원친구, 동네친구들 중에서 평소 매우 자주 어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으면 5명 정도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문4. 아주 친한 친구는 몇 명 인가요? 명

* 아주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는 '0'명이라고 쓰신 후 문6으로 건너 가세요.

문5. 다음은 친한 친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 1)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 2) 나는 내 친구들이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 3)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 4) 나는 내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 5) 내가 속상해 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 6)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 7) 내 친구들과 나의 학교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지난 학년)
- 8) 나와 내 친구들의 부모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 다음은 학교 및 학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6. '지난 학년 때' 같은 반 학생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나요?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별로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조금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문7.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쓰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런 편이다
	1	2	3	4

응답칸

- 1) 나는 몸이 조금 아프거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가 있을 때에도 매일 학교에 가려고 노력한다
- 2) 나는 학교 숙제나 시험을 위해, 좋아하지 않는 과목까지 포함하여, 최선을 다한다
- 3)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숙제까지 포함하여, 나는 모든 숙제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한다

문13e.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 0)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
- 1) 부모님께 알렸다
- 2) 학교에 알렸다(담임선생님 등)
- 3) 친구들에게 알렸다
- 4) 학교폭력 전문가거나 청소년 상담실에 상담, 신고하였다
- 5)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 6) 기타 _____

문14.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경험이 있나요?

- 1) 있다
- 2) 없다 (→ 문15으로)



문14a.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경험이 모두 몇 번 있나요? 번

문14b. 최근 1년간 자신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준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15.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칸에 모두 ✓ 표시 해 주세요.

- 1) 친아버지
- 2) 친어머니
- 3) 친할아버지
- 4) 친할머니
- 5) 외할아버지
- 6) 외할머니
- 7) 새아버지
- 8) 새어머니
- 9) 남자형제
- 10) 여자형제
- 11) 기타 _____
- 12) 해당 없음

문16. 아래 각 항목별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님과 일주일(7일)에 몇 일 정도 함께 하나요? 응답칸에 '0~7일' 사이의 숫자로 기입해주세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거나 안 계신 경우에는 응답칸에 숫자 "9"를 기입해 주세요.)

	응답칸
1) 아버지와 일주일에 몇일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input type="text"/>
2) 어머니와 일주일에 몇일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input type="text"/>

응답칸

3)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와 함께 일주일에 몇일 저녁식사를 하나요?	<input type="text"/>
4) 아버지는 여리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몇일 시간을 내나요?	<input type="text"/>
5) 어머니는 여리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몇일 시간을 내나요?	<input type="text"/>

문17. 아버지(친아버지 혹은 새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새)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아버지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input type="text"/>
2)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input type="text"/>
3)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input type="text"/>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input type="text"/>
5) 아버지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input type="text"/>
6) 아버지와 나의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input type="text"/>
7) 아버지와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부방 등)은 서로 잘 알고 있다	<input type="text"/>
8) 아버지와 내 친구 부모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input type="text"/>

문18. 어머니(친어머니 혹은 새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새)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어머니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input type="text"/>
2) 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input type="text"/>
3)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input type="text"/>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input type="text"/>
5) 어머니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input type="text"/>
6) 어머니와 나의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input type="text"/>
7) 어머니와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부방 등)은 서로 잘 알고 있다	<input type="text"/>
8) 어머니와 내 친구 부모님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input type="text"/>

문19.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으신가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1) 전혀 좋지 않다
- 2) 별로 좋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좋은 편이다
- 5) 매우 좋다
- 6) 해당사항 없음

문20.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다음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 | | |
|----------------|---------------|
| 1) 초등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업 |
| 3) 고등학교 졸업 | 4) 2년제 대학교 졸업 |
| 5) 4년제 대학교 졸업 | 6) 대학원 이상 |
| 7) 학교를 다닌 적 없음 | 9) 안 계심 |

문21.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응답칸을 빈칸으로 두시거나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 | | |
|----------------------|---------------|
| 1) 사무/전문/관리직 | 2) 판매/서비스/영업직 |
|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 4) 농림어업 |
|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 6) 주부 |
| 7) 무직/기타 | 9) 안 계심 |

■ 다음 질문은 주관적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22. 다음 질문들에 대해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

문23.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1) 매우 행복하다
- 2) 대체로 행복한 편이다
- 3) 별로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행복하지 않다
- 5) 모르겠다

문23a. 평소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주로 어떤 때입니까? 만약 '별로 또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면' 주로 어떤 때 행복감을 느낄 것 같습니까?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공부가 재미있을 때/공부할 때
- 2) 성적이 좋을 때
- 3)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 4) 부모님과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 5) 가정형편이 넉넉할 때
- 6) 좋아하는 일을 실행 할 수 있을 때
- 7) 기타 _____

문23b. 그럼,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인가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학습부담이 너무 클 때(학교, 학원)
- 2)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
- 3)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 4) 부모님과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느낄 때
- 6)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때
- 7) 기타 _____

문24. 평소 '행복'을 느끼는 곳을 한 군데만 고른다면 어디인가요?

- | | |
|-------------|-------------------|
| 1) 집 | 2) 학교 |
| 3) 학원 | 4) 친구와 모이는 장소 |
| 5) 동아리 | 6)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 |
| 7) 기타 _____ | 8) 특별히 없다 |

문25.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 | | |
|------------|------------|
| 1) 매우 불행하다 | 2) 약간 불행하다 |
| 3) 보통이다 | 4) 약간 행복하다 |
| 5) 매우 행복하다 | |

문26.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1) 건강 | 2) 돈 |
| 3) 성적 향상 | 4) 동성 친구 |
| 5) 이성 친구 | 6) 화목한 가족 |
| 7) 자유 | 8) 종교 |
| 9) 자격증(기술 등) | 10) 기타 _____ |

문27. 다음 항목을 읽고 “1) 예 2) 아니오” 중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 주세요.

보기 : 1) 예 2) 아니오	응답칸
1) 과일을 매일 섭취하나요?	
2) 등교 전에 아침식사를 챙겨 먹나요?	
3)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운동을 한 날수는 몇 일 인가요?	일
4) 최근 2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병/의원, 보건소, 한의원에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5)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나요?	
6) 최근 2주 동안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7) 1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흡연을 하나요?	
8) 지금까지 두 번 이상 음주를 한 적이 있나요?	
9) 최근 12개월 동안 신체적인 싸움을 한 적이 있나요?	
10) 최근 12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한 적이 있나요?	

문28. 게임(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핸드폰게임 등)을 해본 적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 문29으로)



문28a. 지난 6개월 동안 게임을 얼마나 자주 했나요?

- 1) 매일 2) 1주일에 5-6회
3) 1주일에 3-4회 4) 1주일에 1-2회
5) 거의 하지 않았다

문28b. 지난 6개월 동안 게임을 하루에 얼마나 했나요?

- 1) 1시간 미만 2) 1-2시간 미만
3) 2-3시간 미만 4) 3-4시간 미만
5) 4시간 이상

문28c. 지난 6개월 동안 게임을 주로 어디서 했나요?

- 1) 집 2) 학교
3) PC방 4) 친구 집
5) 기타 _____

문28d. 게임(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핸드폰 게임 등)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를 쓰세요.

보기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 | | |
|--|--|
| 1) 나는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 |
| 2) 나는 원래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 |
| 3)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생각하며 보낸다 | |
| 4) 나는 게임을 할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동안 해야 직성이 풀린다 | |
| 5) 나는 공부하는 데 자장이 있지만 게임을 계속하게 된다 | |

문29. 가출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 1) 전혀 없다 (→ 문30로)
2) 1~2번 있다
3) 3~4번 있다
4) 5번 이상 있다

(있는 경우)

문29a. 무슨 문제 때문에 가출을 생각했나요?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부모님과의 갈등 2) 친구들과 어울려서
3)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4) 선생님과 갈등
5) 친구들과의 갈등 6) 성적 하락
7) 주위의 무관심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9) 기타 _____

문29b. 가출을 실행해 본 적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문30.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 1) 전혀 없다 (→ 문31로)
2) 1~2번 있다
3) 3~4번 있다
4) 5번 이상 있다

(있는 경우)

문30a. 무슨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나요?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부모님과의 갈등
- 2) 친구들과 어울려서
- 3)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 4) 선생님과의 갈등
- 5) 친구들과의 갈등
- 6) 성적 하락
- 7) 주위의 무관심
-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9) 기타 _____

문31.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의 생활 형편이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금전적인 부분)



문32. 다음 다섯 가지 과목의 성적에 대해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배우지 않음
	1	2	3	4	5	6

	응답칸
1) 국어	<input type="text"/>
2) 영어	<input type="text"/>
3) 수학	<input type="text"/>
4) 사회	<input type="text"/>
5) 과학	<input type="text"/>

문33. 주중(학교가는 날)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일 평균 시간 분

문34. 주말(학교가지 않는 날)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일 평균 시간 분

문35.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 1) 예
- 2) 아니오 (→ 문35으로)

문35a.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학원, 과외
 - 2) 가정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 3)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 4) 채팅, 문자 메시지
 - 5)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물 (동영상, 만화, 잡지 등) 이용
 - 6)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 7) 기타
-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36. 현재 자신의 키가 얼마인가요?

 cm

문37. 현재 자신의 몸무게가 얼마인가요?

 kg

문38. 자신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무엇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요?

- 1) 초등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졸업
- 4) 2년제 대학교 졸업
- 5) 4년제 대학교 졸업
- 6) 대학원 이상

문39. 최종 학교를 마치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나요?

- 1) 사무/전문/관리직
- 2) 판매/서비스/영업직
-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 4) 농림어업
-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 6) 주부
- 7) 무직
- 8) 기타 _____

문40. 부모님은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나요?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문41. 자신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나요?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문42. 평소에 부모님과 주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나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1) 학교 및 학원생활 2) 공부와 성적
3) 친구관계 4) 미래 진로와 직업
5) 취미와 여가활동 6) 기타 _____
9) 안계심

문43.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간에 숫자를 써 주세요(해당사항이 없으면 '6'으로 표기)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4)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5)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6)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7)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8)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9)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0)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1)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2)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3)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4)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5) 멋있거나 이쁜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6)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7)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44. 다음 9가지 항목을 잘 읽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어른들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것을 3가지만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1) 어린이를 어른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 2) 어린이를 어리거나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세요.
- 3)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 4) 어린이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세요.
- 5) 어린이들을 때리거나 괴롭히지 마세요.
- 6) 어린이들이 풍부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 주세요.
- 7) 불편한 어린이도 다니기 쉽게 해 주세요.
- 8)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9)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어 남북 어린이들이 친구가 되게 해 주세요.

♣ 끝까지 성의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문1. 집에 책이 모두 몇 권 있나요?
(만화책, 잡지책, 참고서 제외)

- 1) 1~10권 2) 11~25권
3) 26~100권 4) 101~200권
5) 201~500권 6) 501권 이상
7) 전혀 없다

문2. 집에 '컴퓨터'는 모두 몇 대 있나요?
(노트북, 넷북, PDA 등 포함)

- 1) 1대 2) 2대
3) 3대 이상 4) 없다

문3.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 문4로)

문3a.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나요?

이용 시간 : 하루 평균 시간 분

문3b.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간에 숫자를 쓰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응답칸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문3c.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 인가요?

- 1) 전화통화 2)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포함)
3) 게임 4) 학습
5) 웹 검색(교통, 뉴스, 날씨 등) 6) 동영상 감상
7)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토리) 8) 기타 _____

■ 다음은 학교 및 학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 '지난 학년 때' 같은 반 학생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나요?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조금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5.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과 대한 질문입니다.[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간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학교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나는 학교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문6. 현재 사교육(학원, 과외, 공부방 등 학교 정규 수업이외의 교습을 받는 형태)을 받고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문7로)

문6a. 사교육을 모두 몇 군데에서 받고 있나요?

군데

* 사교육 : 학원, 과외, 공부방 등 학교 정규 수업이외의 교습을 받는 형태

문6b. 일주일에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총 몇 시간인가요?

시간 분

문6c. 사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보기]에서 골라 응답간에 숫자로 쓰세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6'으로 표기하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사교육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나는 사교육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3) 사교육선생님과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4) 사교육선생님과 나의 (지난 학년) 학교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7.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없다
 - 2) 아버지
 - 3) 어머니
 - 4) 형제 / 자매
 - 5) 담임선생님
 - 6) 학교 상담선생님
 - 7) 친구
 - 8) 이웃 / 친척
 - 9)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 (예: 청소년 전화 1388)
 - 10) 기타
-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문8.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쓰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런 편이다
	1	2	3	4

	응답칸
1) 나는 몸이 조금 아프거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가 있을 때에도 매일 학교에 가려고 노력한다	<input type="text"/>
2) 나는 학교 숙제나 시험을 위해, 좋아하지 않는 과목까지 포함하여 최선을 다한다	<input type="text"/>
3)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숙제까지 포함하여, 나는 모든 숙제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한다	<input type="text"/>

■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9. 학교/집근처 등 본인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2) 별로 심각하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심각한 편이다
- 5) 매우 심각하다

문10. 다음은 여러 종류의 학교폭력입니다. 이 중 본인 주변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일어나나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신체 폭행
- 2) 금품 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 3) 욕, 인신공격 등 언어로 하는 폭력
- 4) 따돌림
- 5) 성 폭력
- 6)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욕설, 협박
- 7) 기타 _____

문11. 최근 1년간 위와 같은 종류의 학교폭력 중 하나라도 직접 당한 적이 있나요?

- 1) 있다
- 2) 없다 (→ 문12로)

↓

문11a. 최근 1년간 어떠한 것이라도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모두 몇 번 있나요? 번

문11b. 최근 1년간 나에게 어떠한 것이라도 학교폭력을 한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문11c. 최근 1년간 어떠한 종류의 학교폭력을 당했나요? 해당번호를 모두 골라 □안에 ✓표 해 주세요.

- 1) 신체 폭행
- 2) 금품 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 3) 욕, 인신공격 등 언어로 하는 폭력
- 4) 따돌림
- 5) 성폭력
- 6)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욕설, 협박
- 7) 기타 _____

문11d. 최근 1년간 어디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나요? 당했던 곳 모두 골라 □안에 ✓표 해 주세요.

- 1) 교실
- 2) 복도
- 3) 화장실
- 4) 공원
- 5) 등·하교길
- 6) 운동장이나 사람 없는 곳
- 7) 기타 _____

문11e.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 0)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
- 1) 부모님께 알렸다
- 2) 학교에 알렸다(담임선생님 등)
- 3) 친구들에게 알렸다
- 4) 학교폭력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실에 상담, 신고하였다
- 5)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 6) 기타 _____

문12.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경험이 있나요?

- 1) 있다
- 2) 없다 (→ 문13로)

↓

문12a.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경험이 모두 몇 번 있나요? 번

문12b. 최근 1년간 자신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준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 다음 질문은 아주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아주 친한 친구란 학교친구, 학원친구, 동네친구들 중에서 평소 매우 자주 어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으면 5명 정도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문13. 아주 친한 친구는 몇 명 인가요? 명

아주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는 '0'명 이라고 쓰신 후 문15로 건너 가세요.

■ 방금 문13에서 “아주 친한 친구 5명” 이라고 했는데요, 그 친구 한명 한명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세요.

문14. 먼저 아래 박스에 아주 친한 친구의 이름(혹은 별명이나 애칭)을 친한 순서대로 최대 5명까지 써 주세요.
친구 한명 한명에 대한 각 질문을 잘 읽으신 후 아래 테이블의 해당 보기 □안에 ✓ 표시해 주세요.

문14a. 아주 친한 친구의 이름 (혹은 별명, 애칭)	문14b. 이 친구의 성별	문14c. 이 친구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	문14d. 이 친구의 성적	문14e. 이 친구와 온라인 상에서 (SNS, 게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을 합니까?	문14f. 이 친구와 온라인 상에서 접촉한 날 하루를 생각해보십시오.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온라인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까?
1) 친구1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매일 <input type="checkbox"/> 2) 1주일에 4~5일 <input type="checkbox"/> 3) 1주일에 3~4일 <input type="checkbox"/> 4) 1주일에 1~2일 <input type="checkbox"/> 5) 1주일에 1회 미만	<input type="checkbox"/> 1) 10 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2) 5 ~ 10시간 <input type="checkbox"/> 3) 2 ~ 5시간 <input type="checkbox"/> 4) 1 ~ 2시간 <input type="checkbox"/> 5) 30분 ~ 1시간 <input type="checkbox"/> 6) 30분 미만
2) 친구2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매일 <input type="checkbox"/> 2) 1주일에 4~5일 <input type="checkbox"/> 3) 1주일에 3~4일 <input type="checkbox"/> 4) 1주일에 1~2일 <input type="checkbox"/> 5) 1주일에 1회 미만	<input type="checkbox"/> 1) 10 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2) 5 ~ 10시간 <input type="checkbox"/> 3) 2 ~ 5시간 <input type="checkbox"/> 4) 1 ~ 2시간 <input type="checkbox"/> 5) 30분 ~ 1시간 <input type="checkbox"/> 6) 30분 미만
3) 친구3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매일 <input type="checkbox"/> 2) 1주일에 4~5일 <input type="checkbox"/> 3) 1주일에 3~4일 <input type="checkbox"/> 4) 1주일에 1~2일 <input type="checkbox"/> 5) 1주일에 1회 미만	<input type="checkbox"/> 1) 10 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2) 5 ~ 10시간 <input type="checkbox"/> 3) 2 ~ 5시간 <input type="checkbox"/> 4) 1 ~ 2시간 <input type="checkbox"/> 5) 30분 ~ 1시간 <input type="checkbox"/> 6) 30분 미만
4) 친구4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매일 <input type="checkbox"/> 2) 1주일에 4~5일 <input type="checkbox"/> 3) 1주일에 3~4일 <input type="checkbox"/> 4) 1주일에 1~2일 <input type="checkbox"/> 5) 1주일에 1회 미만	<input type="checkbox"/> 1) 10 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2) 5 ~ 10시간 <input type="checkbox"/> 3) 2 ~ 5시간 <input type="checkbox"/> 4) 1 ~ 2시간 <input type="checkbox"/> 5) 30분 ~ 1시간 <input type="checkbox"/> 6) 30분 미만
5) 친구5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매일 <input type="checkbox"/> 2) 1주일에 4~5일 <input type="checkbox"/> 3) 1주일에 3~4일 <input type="checkbox"/> 4) 1주일에 1~2일 <input type="checkbox"/> 5) 1주일에 1회 미만	<input type="checkbox"/> 1) 10 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2) 5 ~ 10시간 <input type="checkbox"/> 3) 2 ~ 5시간 <input type="checkbox"/> 4) 1 ~ 2시간 <input type="checkbox"/> 5) 30분 ~ 1시간 <input type="checkbox"/> 6) 30분 미만

■ 다음은 온라인 친구들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14-1. 위에서 얘기한 아주 친한 친구들을 제외하고 하루에 한 시간 이상 <u>온라인상에서</u> 대화나 게임 등의 활동을 하는 날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되는 친구는 모두 몇 명입니까?	□ 명
--	----------

문14-2. 온라인 친구들 중 가장 자주 접촉하는 친구 순으로 **최대 3명까지** 이름을 작성하고 다음 문항에 답하십시오.

문14-2a. 아주 친한 친구의 이름 (혹은 별명, 애칭)	문14-2b. 이 친구의 성별	문14-2c. 이 친구의 나이	문14-2d. 이 친구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	문14-2e. 이 친구의 성적	문14-2f. 이 친구를 알게 된 경로
1) 온라인 친구1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3) 모름	_____세 <input type="checkbox"/> 모름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4) 모름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4) 모름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5) 학생 이남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게임 <input type="checkbox"/> 2)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input type="checkbox"/> 3)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디씨갤러리 등) <input type="checkbox"/> 4) 오프라인 (학교, 학원, 동네 친구 등) <input type="checkbox"/> 5) 기타 (_____)
2) 온라인 친구2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3) 모름	_____세 <input type="checkbox"/> 모름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4) 모름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4) 모름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5) 학생 이남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게임 <input type="checkbox"/> 2)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input type="checkbox"/> 3)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디씨갤러리 등) <input type="checkbox"/> 4) 오프라인 (학교, 학원, 동네 친구 등) <input type="checkbox"/> 5) 기타 (_____)
3) 온라인 친구3 _____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3) 모름	_____세 <input type="checkbox"/> 모름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4) 모름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4) 모름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5) 학생 이남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1) 게임 <input type="checkbox"/> 2)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input type="checkbox"/> 3)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디씨갤러리 등) <input type="checkbox"/> 4) 오프라인 (학교, 학원, 동네 친구 등) <input type="checkbox"/> 5) 기타 (_____)

■ 문 14-3. 친한 친구들 간의 관계

앞에서 적은 친한 친구들과 온라인친구의 이름을 적고 친구들 간에 얼마나 친한지를 적으세요.
(아래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세요)

- ① 아주 친함 ② 어느 정도 친함 ③ 별로 친하지 않음 ④ 서로 전혀 모름

	친구 1	친구 2	친구 3	친구 4	친구 5	온라인 친구 1	온라인 친구 2	온라인 친구 3
친구 1	■							
친구 2	■	■						
친구 3	■	■	■					
친구 4	■	■	■	■				
친구 5	■	■	■	■	■			
온라인 친구 1	■	■	■	■	■	■		
온라인 친구 2	■	■	■	■	■	■	■	
온라인 친구 3	■	■	■	■	■	■	■	■

작성법 예)

아래는 총 3명의 친한 친구와 1명의 온라인 친구가 있는 경우를 나타낸 것입니다. 세명의 친한 친구 이름, 임꺽정, 성춘향, 이몽룡을 친구1, 친구2, 친구3에 각각 기입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온라인 친구 홍길동을 온라인 친구1에 각각 기입합니다. 친구 이름을 작성한 뒤, 해당사항이 없는 칸에는 밑줄을 긋고 비워둡니다.

내 친구인 임꺽정과 성춘향이 서로 모르는 경우라면 임꺽정과 성춘향이 교차하는 칸에 '4 (서로 전혀 모름)'을 작성합니다. 임꺽정과 이몽룡이 별로 친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꺽정과 이몽룡이 교차하는 칸에 '3(별로 친하지 않음)'을 기입합니다. 임꺽정과 홍길동이 아주 친한 경우라면 임꺽정과 홍길동이 교차하는 칸에 '1(아주친함)'을 기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친구2인 성춘향에 대해서도 성춘향과 이몽룡이 아주 친한 경우라면 성춘향과 이몽룡이 교차하는 칸에 '1(아주 친함)'을 작성합니다.

	친구 1 임꺽정	친구 2 성춘향	친구 3 이몽룡	친구 4	친구 5	온라인 친구 1 홍길동	온라인 친구 2	온라인 친구 3
친구 1 임 꺽 정	■	4	3	—	—	1		
친구 2 성 춘 향	■	■	1	—	—	2		
친구 3 이 몽 룡	■	■	■	—	—	2		
친구 4	■	■	■	■				
친구 5	■	■	■	■	■			
온라인 친구 1 홍 길 동	■	■	■	■	■	■		
온라인 친구 2	■	■	■	■	■	■	■	
온라인 친구 3	■	■	■	■	■	■	■	■

문15. 다음은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에 관해 얘기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2) 나는 내 친구들이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3)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4) 나는 내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5) 내가 속상해 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6)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7) 내 친구들과 나의 (지난 학년) 학교선생님은 잘 알고 있다	
8) 나와 내 친구들의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은 서로 잘 알고 있다	

■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16.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칸에 모두 ✓ 표시해주세요.

- | | |
|---------------------------------------|------------------------------------|
| <input type="checkbox"/> 1) 친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2) 친어머니 |
| <input type="checkbox"/> 3) 친할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4) 친할머니 |
| <input type="checkbox"/> 5) 외할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6) 외할머니 |
| <input type="checkbox"/> 7) 새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8) 새어머니 |
| <input type="checkbox"/> 9) 남자형제 | <input type="checkbox"/> 10) 여자형제 |
| <input type="checkbox"/> 11) 기타 _____ | <input type="checkbox"/> 12) 해당 없음 |

문17. 아래 각 항목별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님과 일주일(7일)에 몇 일 정도 함께 하나요? 응답칸에 '0~7일' 사이의 숫자로 기입해주세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거나 안 계신 경우에는 응답칸에 숫자 "9"를 기입해 주세요.)

	응답칸
1) 아버지와 일주일에 몇일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2) 어머니와 일주일에 몇일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3)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와 함께 일주일에 몇일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4) 아버지는 여려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몇일 시간을 내나요?	일
5) 어머니는 여려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몇일 시간을 내나요?	일

문18. 아버지(친아버지 혹은 새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새)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아버지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아버지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6) 아버지와 나의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7) 아버지와 나의 <small>사교육선생님(학원)과외 공부방 등</small> 은 서로 잘 알고 있다	
8) 아버지와 내 친구 부모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19. 어머니(친어머니 혹은 새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새)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어머니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어머니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6) 어머니와 나의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7) 어머니와 나의 <small>사교육선생님(학원)과외 공부방 등</small> 은 서로 잘 알고 있다	
8) 어머니와 내 친구 부모님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20.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으신가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1) 전혀 좋지 않다 2) 별로 좋지 않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6) 해당사항 없음

문21.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다음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 | |
|---------------|---------------|
| 1) 초등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업 |
| 3) 고등학교 졸업 | 4) 2년제 대학교 졸업 |
| 5) 4년제 대학교 졸업 | 6) 대학원 이상 |
| 7) 학교를 다닌적 없음 | 9) 안 계심 |

문22.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다음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응답칸을 빈칸으로 두시거나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 | | |
|----------------------|---------------|
| 1) 사무/전문/관리직 | 2) 판매/서비스/영업직 |
|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 4) 농림어업 |
|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 6) 주부 |
| 7) 무직/기타 | 9) 안 계심 |

■ 다음 질문은 주관적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23. 다음 질문들에 대해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그렇지 않다	별로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문24.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 | |
|-------------------|----------------|
| 1) 매우 행복하다 | 2) 대체로 행복한 편이다 |
| 3) 별로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행복하지 않다 |
| 5) 모르겠다 | |

문24a. 평소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주로 어떤 때입니까? 만약 '별로 또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면' 주로 어떤 때 행복감을 느낄 것 같습니까?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공부가 재미있을 때/공부할 때
- 2) 성적이 좋을 때
- 3)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 4) 부모님과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 5) 가정형편이 넉넉할 때
- 6) 좋아하는 일을 실행할 수 있을 때
- 7) 기타 _____

문24b. 그럼,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인가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학습부담이 너무 클 때(학교, 학원)
- 2)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
- 3)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 4)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느낄 때
- 6)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때
- 7) 기타 _____

문25. 평소 '행복'을 느끼는 곳을 한 군데만 고른다면 어디인가요?

- | | |
|-------------|-------------------|
| 1) 집 | 2) 학교 |
| 3) 학원 | 4) 친구들과 모이는 장소 |
| 5) 동아리 | 6)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 |
| 7) 기타 _____ | 8) 특별히 없다 |

문26.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 | | |
|------------|------------|
| 1) 매우 불행하다 | 2) 약간 불행하다 |
| 3) 보통이다 | 4) 약간 행복하다 |
| 5) 매우 행복하다 | |

문27.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 1) 건강 | 2) 돈 | 3) 성적 향상 |
| 4) 동성 친구 | 5) 이성 친구 | 6) 화목한 가족 |
| 7) 자유 | 8) 종교 | 9) 자격증(기술 등) |
| 10) 기타 _____ | | |

문28. 다음 항목을 읽고 "1) 예 2) 아니오" 중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 주세요.

보기 : 1) 예 2) 아니오	응답칸
1) 과일을 매일 섭취하나요?	
2) 등교 전에 아침식사를 챙겨 먹나요?	
3)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운동을 한 날수는 몇 일 인가요?	일
4) 최근 2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병/의원, 보건소, 한의원에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5)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나요?	
6) 최근 2주 동안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7) 1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흡연을 하나요?	
8) 지금까지 두 번 이상 음주를 한 적이 있나요?	
9) 최근 12개월동안 마약/분드를 흡입한 적 있나요?	

보기 : 1) 예 2) 아니오	응답칸
10) 최근 12개월 동안 신체적인 싸움을 한 적이 있나요?	
11) 최근 12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한 적이 있나요?	
12) 오토바이를 타 본 적이 있나요?	
13)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 본 적이 있나요?	
14)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나요?(없다면 ⇨ 문29로 건너 가세요.)	
14a) [성관계를 가져봤다면] 가장 최근에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하였나요?	
14b) [성관계를 가져봤다면] 아이를 갖게 한 적, 혹은 낳은 적이 있나요?	

문29. 게임(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핸드폰게임 등)을 해본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 문30로)	

↓

문29a. 지난 6개월 동안 게임을 얼마나 자주 했나요?	
1) 매일 2) 1주일에 5-6회 3) 1주일에 3-4회 4) 1주일에 1-2회 5) 거의 하지 않았다	
문29b. 지난 6개월 동안 게임을 하루에 얼마나 했나요?	
1) 1시간 미만 2) 1~2시간 미만 3) 2~3시간 미만 4) 3~4시간 미만 5) 4시간 이상	
문29c. 지난 6개월 동안 게임을 주로 어디서 했나요?	
1) 집 2) 학교 3) PC방 4) 친구 집 5) 기타 _____	

문29d. 게임(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핸드폰 게임 등)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를 쓰세요.

보기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짜증이나 고 화가 난다						
	2) 나는 원래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3)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생각하며 보낸다						
	4) 나는 게임을 할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동안 해야 직성이 풀린다						
	5) 나는 공부하는 데 자장이 있지만 게임을 계속하게 된다						

문30. 가출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1) 전혀 없다 (⇨ 문31로) 2) 1~2번 있다 3) 3~4번 있다 4) 5번 이상 있다	(있는 경우)

문30a. 무슨 문제 때문에 가출을 생각했었나요?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 부모님과의 갈등 2) 친구들과 어울려서 3)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4) 선생님과의 갈등 5) 친구들과의 갈등 6) 성적 하락 7) 주위의 무관심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9) 기타 _____	
문30b. 가출을 실행해 본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문31.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1) 전혀 없다 (⇨ 문32로) 2) 1~2번 있다 3) 3~4번 있다 4) 5번 이상 있다	(있는 경우)

문31a. 무슨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었나요? (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 부모님과의 갈등 2) 친구들과 어울려서 3)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4) 선생님과의 갈등 5) 친구들과의 갈등 6) 성적 하락 7) 주위의 무관심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9) 기타 _____	

문32.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의 생활 형편이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금전적인 부분)	
---	--



문33. 주중(학교가는 날)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일 평균	시간	분

부록2. 1922~1923 어린이날 선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



어린이날 선언

‘어린이’, ‘어린이 날’ 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 많은 사람들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련한 어린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에서 어린이 운동을 펼쳤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파의 어린이 사랑과 그가 몸을 던져 했던 모든 활동에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 걸고 오늘보다 내일에 사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문화운동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셨던 겁니다. 더욱 의미깊은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인권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922년 어린이날 선언, 1923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어린이날의 취지와 함께 소년운동의 기초조건, 어른들에게 쓰는 글, 어린이에게 쓰는 글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이 훗날 아동권리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창시자 에글렌타인 쥘 여사가 1923년 만든 아동권리선언의 초안이 1924년 국제연맹(현 유엔)에서 제네바선언으로 채택되었는데, 이보다 1년 앞선 일이어서 아동문학가 윤석중 씨는 이를 두고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태동했다고 할 수 있는 어린이날 선언문, 국제사회가 어린이의 존엄성을 인식하기 전부터 아동권리의 선구자인 방정환 선생님이 아동의 조화로운 전인발달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뜻이 9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 1922년 어린이날 선언

‘천도교소년회’는 창립1주년이 되는 1922년 5월 1일을 우리 나라 최초의 ‘어린이날’로 정하고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했는데, 그때 ‘어린이날’ 선전문을 배포했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행사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방정환 선생님이 작성했거나 혹은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방정환 선생님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제1회 ‘어린이날’ 선전문

- 一.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하지 말아 주십시오.
- 二. 어린 사람을 늘 갖가히 하시고 자조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 三.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 四.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 五. 리발이나 목욕 가튼 것을 때맞처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 六. 낮분 구경은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조 보내 주십시오.
- 七. 장가나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街路로趣旨宣傳
자동차대의창가대로난호아
작은어린이날의대선언

천도교소년회(天道敎少年會) 주
최의소년보호운동(少年保護運動)
행하는바에관하여
가정하는바에관하여
방해를엇지못하여
하얏스나
허가될것게되얏스
도
하
한
로
소
자
구
관
대
가
도
주
고
그
한
피
말
자
三
쓰
四
五
六
七

電車衝空
삼십일밤에
동구압해서

삼십일 오후한시 이십분
의주중(義州通)에서 동대
모가드일백이십오년차
삼십일 삼십일밤에
그안의경거하얏도
차와충돌하여 일백이십
운전대의 구실구호의차
유리창이 모다깨지고
간 바람치는듯한소리가
우소중의 이리대스나
개의보상은업고 다만차
리를조금상하얏는데
의해차관계로별안간
차가물을쓰고달려가
뒤에차가그대로오다가
뜻한다피라

光復軍의
순사들
근원정남 덕천정찰사(平南
警察署)에서는 대한광복군
원정명진(大韓光復軍派遣
明進)외삼사령의 독립단들
하여밤에영웅취조중이
대제한내용(이적보도
건이나모커로부터림지
의하면친의진정면은본
군래국면(大韓國)을성
조선독립을희망하다가

『동아일보』 1922.5.2. 3면

○ 1923년 어린이날 기념 선전문물 : 소년운동의 선언,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 동무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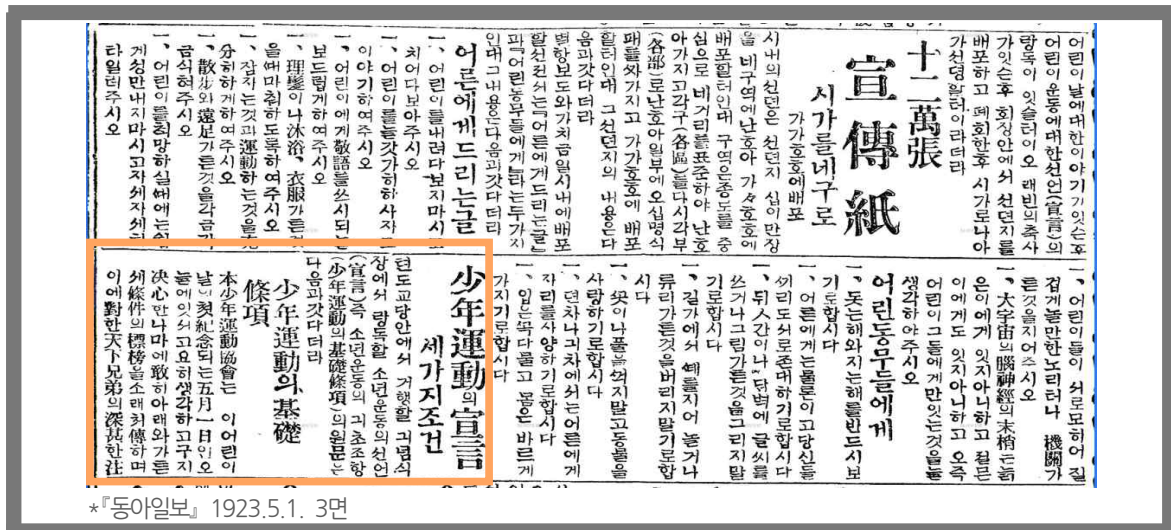
이 선전문물은 1923년 5월1일 ‘조선소년운동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어린이날’ 기념 선전문물입니다. 이것은 1924년 국제아동권리선언인 ‘제네바선언’보다 1년 앞선 것으로, 아동문학가 윤석중은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1. 취지 : 젊은이나 늙은이는 일의 희망이 없다. 우리는 오직 나머지 힘을 다하여 가련한 우리 후생되는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자.

소년운동의 선언 세가지 조건

본 소년운동협회는 이 어린이날의 첫 기념되는 5월 1일인 오늘에 있어 고요히 생각하고 굳이 결심한 나머지 감히 아래와 같은 세 조건의 표방을 소리쳐 전하며 이에 대한 천하 형제의 심심한 주의와 공명과 또는 협동 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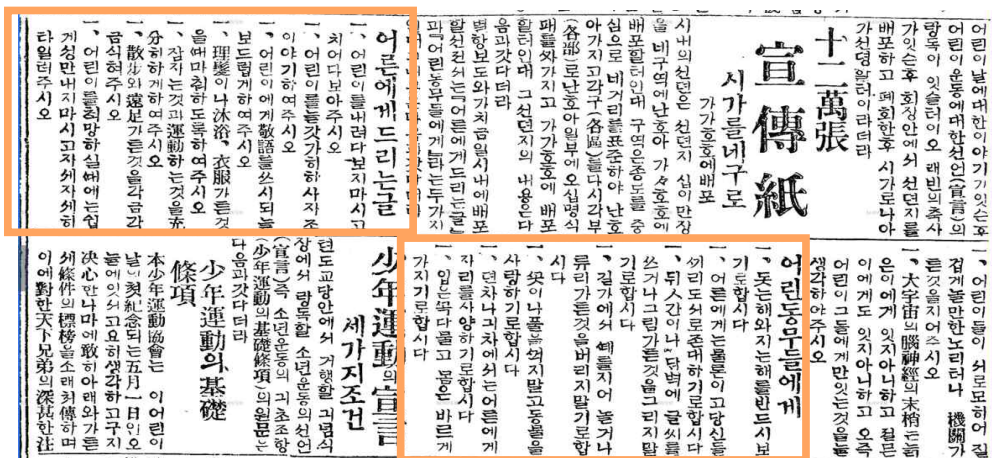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1.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1.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동아일보』 1923.5.1. 3면

어린 동무들에게

- 1. 돛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 1.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 1.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가튼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 1. 길가에서 떼를 지어 놀거나 류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 1.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 1.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 1.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동아일보』 1923.5.1. 3면

어른에게 드리는 글

-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 주시오.
- 1. 어린이를 늘 갖가히 하사 자조 이야기를 하여 주시오.
- 1.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
- 1.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가튼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 1.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 1. 산보와 원족 가튼 것을 각금 각금 식혀주시오.
- 1.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 1. 어린이들이 서로 모히어 질겁게 놀만한 노리터나 기관 가튼 것을 지어 주시오.
- 1.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절름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즉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어린이날의 약속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데 있을 뿐입니다.** 다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몇 가지를 실행합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놈, 내 딸년 하고 자기의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른은 뿌리라면 어린이는 짝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짝을 내려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원칙상 그 짝을 위하여 그 나무는 뺏쳐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를 결코 억박지리지 마십시오 조선의 부모는 대개가 가정교육은 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 놓습니다 억박지를 때마다 뺏어가는 어린이의 기운은 바짝바짝 줄어들입니다. 그렇게 길러온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크게 자라서 뛰어난 인물이 못 되고 남에게 쫓리고 뒤지는 샌님이 되고 맙니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심심하게 기쁨 없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어린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기쁘게 해 주어야 그 마음과 몸이 활짝 커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 가며 기르십시오. 칭찬을 하면 주제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잘한 일에는 반드시 칭찬과 독려를 해 주어야 그 어린이의 용기와 자신하는 힘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집안의 어린이가 무엇을 즐기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해 가나,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해 보아 주십시오. 평상시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잘못된 뒤에 야단을 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부모들의 큰 잘못입니다.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히십시오. 어린이에게는 되도록 다달이 나는 소년잡지를 읽히십시오. 그래야 생각이 넓고 커짐은 물론이요, 또한 부드럽고도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나 과자를 사 주지 말고 반드시 잡지를 사 주도록 하십시오.



제3회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논문공모전

| 주최 | (재)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주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 후원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청소년 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정환재단은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당면한 문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본 조사를 제안하여, 현대리서치연구소의 후원으로 2009년부터 매년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조사하여 그 변화하는 양상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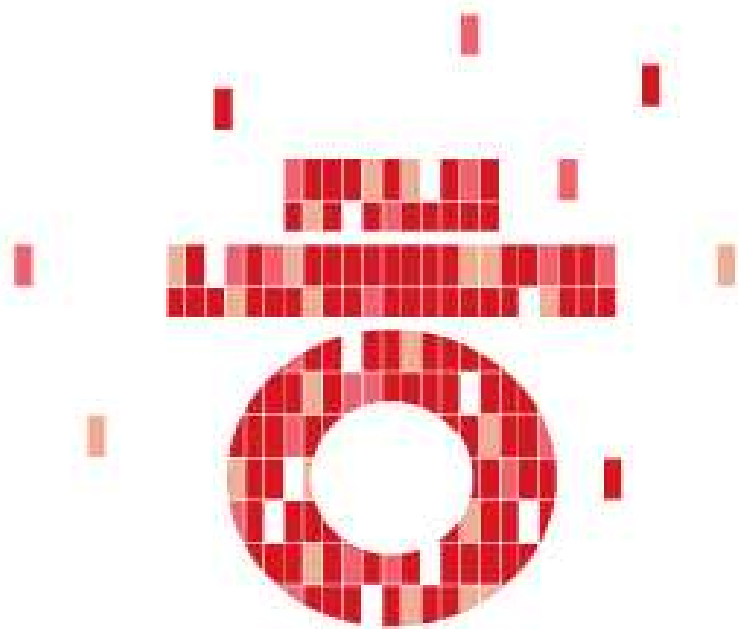
또한 한국사회과학자료원(www.kosssa.or.kr)을 통해 지금까지의 조사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5년 한국조사연구학회(www.kasr.org)와 함께 <제1회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우수논문을 발표하고 시상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논문 공모전>은 9년간 누적된 행복지수 조사자료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여 시작 된 것으로 2017년 <제3회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논문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참가자격 : 대학원생 및 학부생, 박사학위 소지자와 공저 가능
- 참가신청방법 : 공개한 질문지를 참고하여 A4용지 5매 이하, 자유양식의 연구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 시상 : 학술대회 발표 및 상금

*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추진일정은 한국방정환재단과 한국조사연구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

2016 한국조사연구학회 추계 학술대회			
안녕하십니까? 추계 학술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 장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일정	중회의실B	소회의실3	소회의실4
10:30 ~ 12:20	튜토리얼: 구조방정식모형의 설정시 고려 사항 - 통제, 매개, 조절변수를 중심으로	센서스의 조사 품질	조사 분석의 실제
13:30 ~ 15:20	선거/정치 여론 조사 및 방법론	제 2회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공모전 논문발표 및 시상식	조사 방법론의 실제
15:30 ~ 15:50	한국조사보도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		
16:00 ~ 17:50	시청점유율 조사,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 및 마케팅 조사	빅데이터 기반의 정부 통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53길 5 숲남 3층 우)04309

Phone) 02-322-5515 Fax) 02-322-5452 eMail) happy365@korsofa.org www.korsofa.org